

日韓聖公会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 주년 대회

報告書
보고서

共に生きる世界 ～神・人間・自然との和解～
함께사는세상 ～하느님, 인간, 자연과의 화해～

「神と和解させていただきなさい。」(コリント二 5 : 20c、新共同訳)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5:20c)

2024. 10. 21 (月) ~24 (木)

韓国濟州島 イシドル リトリートセンタ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主催 日本聖公会日韓協働委員会、大韓聖公会韓日共同委員会
주최 일본성공회 한일협력위원회, 대한성공회 한일공동위원회

もくじ

日韓聖公会 40 周年記念大会 主旨・祈り	3
プログラム	5
参加者名簿	7
日韓宣教協働 40 年を振り返って	12
聖書研究 (朴泰植 司祭)	27
現場からの声①「神との和解」(金長煥 主教)	39
現場からの声①「神との和解」(武藤謙一 主教)	49
現場からの声②「人間との和解」(金 均燮さん)	53
現場からの声②「人間との和解」(呉 光現さん)	65
現場からの声③「自然との和解」(イ・ポンニ 司祭)	72
現場からの声③「自然との和解」(長谷川清純 主教)	81
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メモ	97
済州 4・3 事件犠牲者追悼の祈り	103
日韓友情の家祝福式	105
フィールドワーク (写真)	111
全体振り返り (写真)	113
閉会聖餐式説教 (金 鎬旭 主教)	115
「日韓聖公会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を終えて	117



목차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 주년 대회 취지 · 기념기도	4
프로그램	6
참가자 명단	8
한일 선교 협력 40 년을 돌아보며	12
성서연구 (박태식 사제)	28
현장에서의 소리① ‘하느님과의 화해’ (김장환 주교)	40
현장에서의 소리① ‘하느님과의 화해’ (무토우 켄이치 주교)	50
현장에서의 소리② ‘사람과의 화해’ (김균섭 씨)	53
현장에서의 소리② ‘사람과의 화해’ (오광현 씨)	65
현장에서의 소리③ ‘자연과의 화해’ (이뿐이 사제)	72
현장에서의 소리③ ‘자연과의 화해’ (하세가와 키요스미 주교)	81
그룹 토론 메모	98
제주 4·3 사건 희생자추도기도	104
한일 우정의 집 축복식	106
필드워크 (사진)	111
전체 회고 (사진)	113
폐회 성찬식 설교 (김 호욱 주교)	116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 주년 대회’를 끝내면서	118



日韓聖公会 40 周年記念大会 主旨

1984 年に日韓聖公会の宣教協働が公式に始まり、10 年ごとに記念大会を開催して交流と学びを重ね、相互理解を深めてきました。2014 年の 30 周年記念大会は韓国・済州で開催し、宣教協働を振り返り、新たな 10 年に向けた取り組みについて協議し、11 項目の共同声明にまとめました。日韓合同会議の度にその進捗状況を確認し、互いの宣教課題を学ぶフィールドワークを行いつつ、日韓青年セミナーや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も実施してきました。

私たちは、政治的な日韓関係にかかわらず、この 40 年間の両聖公会の「誠心の交わり」の結実をもとに、未来の宣教協働に向けて新たな出発をしようとしています。

現在、K カルチャーなどを通じた若い世代の交流が活発な一方で、在日コリアンへの排外主義に基づく憎悪犯罪も起こ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中で、世界聖公会の宣教指針である「宣教の 5 指標」を再確認しながら、両聖公会の役割について協議し、これからの 10 年を展望したいと思います。

今回の 40 周年記念大会は、これまで両聖公会の信頼関係のもとに築いてきた宣教協働の実りを分かち合い、日韓・東アジア・世界の聖公会の連帯をさらに強固にするものになります。

両聖公会は神さまによって与えられた恵みを分かち合い、ポストコロナという新しい宣教課題を共有し、互いに学び合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

両国の深い痛みをもつ過去の歴史に対して真摯に向き合い、東アジアの平和実現のための具体的な実践を模索したいと思います。

また地球規模の課題である環境保全と持続可能な社会の実現に向けて、両聖公会のより具体的な実践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

今回も済州で開催することは、30 周年共同声明の『⑤両聖公会は「風の島を聖霊の島へ」という済州教会の宣教ビジョンを共有し、「生命、正義、平和」を求める共同の信仰的实践を模索する。』に基づく、意義深いものです。

日韓宣教協働 40 周年の祈り

正義と平和の源である神よ、あなたは、私たち日本聖公会と大韓聖公会に宣教協働という良き志を与え、2024 年に宣教協働 40 周年を迎えさせ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どうか私たちが、過去を振り返り、今を見つめ、新しい未来を展望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

嘆きと苦しみ、分裂と敵意と憎しみあふれる世界に、あなたの光と愛をお与えください。私たちの出会いを通して、悲しみの中に慰めを、痛みの中に癒しを、疑いの中に信仰を、主よ、豊かに注ぎ込んでください。この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を通して私たちを新たにし、あなたの示される和解と正義、解放と平和への道を歩む者と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いつくしみ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 주년 대회 취지

1984 년 한일성공회의 선교협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10 년마다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교류와 배움을 거듭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4 년 30 주년 기념대회는 한국·제주에서 개최하고, 양국간의 선교협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 년을 향해 협의하고 11 항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합동회의 때마다 그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서로의 선교과제를 배우는 필드워크를 실시하면서, 한일청년세미나와 한국사회선교 스터디투어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40 년간 양성공회의 '진실한 교제'의 결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교협동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K 컬처 등을 통한 젊은 세대의 교류는 활발한 한편 제일 코리안에 대한 배외주의에 근거한 증오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성공회의 선교지침인 '선교의 5 지표'를 재확인하면서 양성공회의 역할에 대해 협의하여 앞으로 10 년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이번 40 주년 기념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양성공회의 신뢰관계에 쌓아온 선교협동의 열매를 나누고 한일, 동아시아, 세계의 성공회와의 연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성공회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포스트코로나라는 새로운 선교 과제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겠습니다. 양국의 깊은 고통을 가진 과거의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구 규모의 과제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양성공회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30 주년 공동성명의 ['⑤양성공회는 '바람의 섬을 성령의 섬으로'라는 제주교회의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생명, 정의, 평화'를 요구하는 공동의 신앙적 실천을 모색한다.]에 근거한 의미 있는 모임입니다.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40 주년 기념기도

정의와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 당신은 저희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에 선교적 동반자라는 진실된 친구를 주시고 2024 년에 선교 협동 40 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을 바라보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 하고자 하오니, 슬픔과 고통, 분열과 갈등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빛과 사랑을 주소서.

주여, 저희의 만남을 통해 슬픔 속에 위로를, 고통 속에 치유를, 의심 속에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소서. 그리고 이번 선교 협력 40 주년 기념 대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두의 화해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プログラム

10月21日(月)	10月23日(水)
15:30 濟州空港集合 16:00 イシドルへ移動 17:00 受付(イシドル リトリートセンター) 18:00 開会礼拝・オリエンテーション 40周年回顧(映像) 19:30 夕食、ミニ交流会 21:00 スタッフ会議	07:00 朝食 08:30 4・3公園へ向けて出発 09:30 濟州 4・3 平和公園見学 (奉安殿-公園-記念館) 11:00 4・3 事件犠牲者追悼礼拝 12:00 濟州友情教会へ向けて出発 13:00 昼食 14:00 濟州友情教会の紹介・交流会 日韓友情の家祝福式 (L) 15:00 フィールドワーク (戦跡・飛行場跡など) 18:30 夕食 19:30 フェアウェルパーティー 21:00 スタッフ会議
10月22日(火)	10月24日(木)
07:00 朝の祈り 08:00 朝食 09:30 聖書研究 「私たちに与えられる和解」 (L) 朴泰植(パク・テシク) 司祭 10:30 現場からの声① 「神との和解」 (L) 金長煥(キム・ジャンファン) 主教 武藤謙一 主教 (宣教の5指標①②) 11:30 昼食 12:30 現場からの声② 「人間との和解」 (L) 金均燮(キム・ギョンスッ) さん 吳光現さん (宣教の5指標③④) 13:30 現場からの声③ 「自然との和解」 (L) イ・ブンニ 司祭 長谷川清純 主教 (宣教の5指標⑤) 15:00 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8グループ) 現場からの声を受けて 神との和解・人間との和解・自然との和 解 18:00 夕食 19:30 全体会・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報告 21:00 フリータイム 女性宣教センターの働きから スタッフ会議	07:00 朝食 08:30 全体振り返り 09:30 閉会聖餐式 (L) 10:30 空港へ移動 午後 日韓合同主教会(濟州友情教会)

※ (L) = ライブ配信

프로그램

10 월 21 일 (월)	10 월 23 일 (수)
15:30 제주공항 집합 16:00 이시돌로 이동 17:00 접수(이시돌) 18:00 개회예배 · 오리엔테이션 40주년 회고(영상) 19:30 저녁식사 미니교류회 21:00 스텝회의	07:00 아침식사 08:30 4·3공원으로 출발 09:30 제주 4·3 평화공원견학 (봉안전-공원-기념관) 11:00 4·3사건 희생자 추도예배 12:00 제주우정교회로 출발 13:00 점심식사 14:00 제주우정교회 소개, 교류회 한일우정의집 축복식 (L) 15:00 필드워크 (전쟁유적지, 비행장 견학) 18:30 저녁식사 19:30 페어웰파티 21:00 스텝회의
10 월 22 일 (화)	10 월 24 일 (목)
07:00 아침기도 08:00 아침식사 09:30 성서연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화해' (L) 박태식 사제 10:30 현장에서의 소리 1 '하느님과 화해' (L) 김장환 주교 무토우 켄이치 주교 <i>성공회 선교정신①②</i> 11:30 점심식사 12:30 현장에서의 소리 2 '사람과의 화해' (L) 김균섭 씨 오광현 씨 <i>성공회 선교정신③④</i> 13:30 현장에서의 소리 3 '자연과의 화해' (L) 이뿐이 사제 하세가와 키요스미 주교 <i>성공회 선교정신⑤</i> 15:00 그룹 토의 (8 그룹으로)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 인간, 자연과의 화해 18:00 저녁식사 19:30 전체모임 그룹통의 보고 21:00 자유시간 여성선교센터 사역을 통한 배움의 시간 스텝회의	07:00 아침식사 08:30 전체일정 되돌아보기 09:30 폐회성찬회 (L) 10:30 공항으로 이동 오후 <i>일한합동주교회 (제주우정교회)</i>

※ (L) = 생방송

参加者名簿

	名 前	なまえ	教区・教会	参加枠
1	主教 笹森 田鶴	ささもり たづ	北海道教区主教	主教会
2	主教 長谷川 清純	はせがわ きよすみ	東北教区主教	主教会
3	主教 高橋 宏幸	たかはし ひろゆき	北関東教区管理主教・ 東京教区主教	主教会
4	主教 入江 修	いりえ おさむ	横浜教区主教	主教会
5	主教 西原 廉太	にしはら れんた	中部教区主教	主教会
6	主教 磯 晴久	いそ はるひさ	大阪教区主教	主教会 日韓協働委員長
7	主教 武藤 謙一	むとう けんいち	九州教区主教	主教会
8	主教 上原 榮正	うえはら えいしょう	沖縄教区主教 首座主教	主教会
9	佐藤 さつき	さとう さつき	北海道・聖マーガレット教会	教区代表
10	赤坂 聖矢	あかさか せいや	東北・仙台基督教会	教区代表
11	星野 早紀	ほしの さき	東京・インマヌエル新生教会	教区代表
12	波田 依里也	はた えりや	横浜・沼津聖ヨハネ教会	教区代表
13	池住 圭	いけずみ けい	中部・名古屋聖ステパノ教会	教区代表 日韓協働委員
14	吉村 美萌梨	よしむら みほり	京都・福井聖三一教会	教区代表
15	古澤 恵依子	ふるさわ けいこ	大阪・大阪聖愛教会	教区代表
16	司祭 杉野 達也	すぎの たつや	神戸・米子聖ニコラス教会	教区代表
17	中村 香	なかむら かおり	神戸・聖ミカエル教会	教区代表
18	牛島 和美	うしじま かずみ	九州・長崎聖三一教会	教区代表
19	崎原 香乃子	さきはら かのこ	沖縄・島袋諸聖徒教会	教区代表
20	佐藤 萌野	さとう もえの	東北・弘前昇天教会	青年
21	須賀 瞳	すが ひとみ	東京・八王子復活教会	青年
22	松村 希	まつむら のぞみ	中部・長野聖救主教会	青年委員
23	司祭 李 贊熙	い ちゃんひ	東北・弘前昇天教会	宣教協働者
24	司祭 林 永寅	いむ よんいん	東京・聖愛教会	宣教協働者
25	司祭 金 大原	きむ であん	東京・インマヌエル新生教会	宣教協働者
26	司祭 成 成鍾	そん そんじょん	東京・聖路加礼拝堂	宣教協働者
27	司祭 姜 暁俊	かん あきとし	横浜・八日市場聖三一教会	宣教協働者
28	司祭 金 善姫	きむ そんひ	中部・主教座聖堂	宣教協働者
29	司祭 丁 胤植	ちょん ゆんしく	中部・名古屋聖マルコ教会	宣教協働者
30	執事 梁 權模	やん くおんも	京都・聖光教会	宣教協働者
31	司祭 任 大彬	いむ てびん	大阪・聖十字教会（カナダ）	宣教協働者
32	司祭 金 頭昇	きむ どうすん	大阪・大阪聖三一教会	宣教協働者
33	司祭 韓 相敦	はん さんどん	大阪・尼崎聖ステパノ教会	宣教協働者
34	司祭 柳 時京	ゆ しぎょん	大阪・川口基督教会	宣教協働者
35	司祭 李 浩平	い ほびょん	九州・熊本聖三一教会	宣教協働者
36	司祭 金 汀洙	きむ じょんす	沖縄・島袋諸聖徒教会	宣教協働者

참가자 명단

	성 명	영 문	교구 · 교회	직분
1	주교 笹森 田鶴	Sasamori Tazu	홋카이도 교구 주교	주교회
2	주교 長谷川 清純	Hasegawa Kiyosumi	도호쿠 교구 주교	주교회
3	주교 高橋 宏幸	Takahashi Hiroyuki	북관동 교구 관리주교 도쿄 교구 주교	주교회
4	주교 入江 修	Irie Osamu	요코하마 교구 주교	주교회
5	주교 西原 廉太	Nishihara Renta	중부 교구 주교	주교회
6	주교 磯 晴久	Iso Haruhisa	오사카 교구 주교	주교회 한일협동위원장
7	주교 武藤 謙一	Muto Kenichi	규슈 교구 주교	주교회
8	주교 上原 榮正	Uehara Eisho	오키나와 교구 주교 의장 주교	주교회
9	佐藤 さつき	Sato Satsuki	홋카이도 · 성마가렛교회	교구 대표
10	赤坂 聖矢	Akasaka Seiya	도호쿠 · 센다이 기독교회	교구 대표
11	星野 早紀	Hoshino Saki	도쿄 · 임마누엘신생교회	교구 대표
12	波田 依里也	Hata Eriya	요코하마 · 누마즈 성요한교회	교구 대표
13	池住 圭	Ikezumi Kei	중부 · 나고야 성스테파노교회	교구 대표 한일협동위원
14	吉村 美萌梨	Yoshimura Mihori	교토 · 후쿠이 성삼위교회	교구 대표
15	古澤 恵依子	Furusawa Keiko	오사카 · 오사카 성사랑교회	교구 대표
16	사제 杉野 達也	Sugino Tatsuya	고베 · 요나고 성 니콜라스교회	교구 대표
17	中村 香	Nakamura Kaori	고베 · 성미카엘교회	교구 대표
18	牛島 和美	Ushijima Kazumi	규슈 · 나가사키 성삼위교회	교구 대표
29	崎原 香乃子	Sakihara Kanoko	오키나와 · 시마부쿠로제성도교회	교구 대표
20	佐藤 萌野	Sato Moeno	도호쿠 · 히로사키 승천교회	청년
21	須賀 瞳	Suga Hitomi	도쿄 · 하치오지 부활교회	청년
22	松村 希	Matsumura Nozomi	중부 · 나가노 성구주교회	청년 위원
23	사제 李 贊熙	Lee Chanhee	도호쿠 · 히로사키 승천교회	선교 협력자
24	사제 林 永寅	Lim Youngin	도쿄 · 성사랑교회	선교 협동자
25	사제 金 大原	Kim Daeweon	도쿄 · 임마누엘신생교회	선교 협력자
26	사제 成 成鍾	Seong Sungjong	도쿄 · 성루카예배당	선교 협동자
27	사제 姜 暁俊	Kan Akitoshi	요코하마 · 요우카이치바 삼일교회	선교 협력자
28	사제 金 善姬	Kim Sunhee	중부 · 주교좌성당 대기	선교 협동자
29	사제 丁 胤植	Jung Yoonsic	중부 · 나고야성마르코교회	선교 협력자
30	부제 梁 權模	Yang Kwonmo	교토 · 성빛교회	선교 협동자
31	사제 任 大彬	Im Daebin	오사카 · 성십자교회 (캐나다)	선교 협력자
32	사제 金 頭昇	Kim Duseung	오사카 · 오사카성사랑교회	선교 협동자
33	사제 韓 相敦	Han Sangdon	오사카 · 아мага사키 성스테파노교회	선교 협력자
34	사제 柳 時京	Yoo Sikyung	오사카 · 가와구치 기독교회	선교 협력자
35	사제 李 浩平	Lee Hopyoung	도호쿠 · 구마모토 성삼일교회	선교 협동자
36	사제 金 汀洙	Kim Jungsoo	오키나와 · 시마부쿠로 제성도교회	선교 협력자

	名 前	なまえ	教区・教会	参加枠
37	司祭 高 英敦	こう よんどん	沖縄・愛楽園祈りの家教会	宣教協働者
38	司祭 咸 允淑	はむ ゆんすく	沖縄・豊見城聖マルコ教会	宣教協働者
39	司祭 朴 美賢	ぱく みひょん	沖縄・名護聖ヨハネ教会	宣教協働者
40	司祭 上原 成和	うえはら せいわ	沖縄・石垣キリスト教会	日韓協働委員
41	呉 光現	お くあんひょん	大阪・聖公会生野センター	日韓協働委員
43	黒澤 圭子	くろさわ けいこ	東京・東京聖テモテ教会	日韓協働委員
43	司祭 松山 健作	まつやま けんさく	京都・金沢聖ヨハネ教会	日韓協働委員
44	司祭 卓 志雄	たく じうん	東京・聖アンデレ教会	管区・宣教主事
45	司祭 矢萩 新一	やはぎ しんいち	管区事務所	管区・総主事
46	主教 Poggo Anyhony	あんそにー ぽっご	アングリカン・コミュニオン オフィス総主事	ゲスト
47	司祭 Ajibade Ijeoma	あじばで いじえおま	カンタベリー大主教首席 補佐官	ゲスト
48	司祭 Bruce Woodcock	ぶるーす うっどこっく	米国聖公会アジア・太平洋地域 担当幹事	ゲスト
49	主教 金 長煥	Kim Jang Whan	ソウル教区主教	主教会
50	司祭 李 大晟	Lee Dae Sung	ソウル・江華邑教会	韓日共同委員
51	司祭 崔 敦淳	Choi Donsoon	ソウル・社会宣教局	韓日共同委員
52	金 ハンナ	Kim Hanna	ソウル・主教座聖堂	ACC 委員
53	李 京洙	Lee Kyong Soo	ソウル・主教座聖堂	韓日共同委員
54	田 鎬成	Jun Hosung	ソウル・主教座聖堂	韓日共同委員
55	崔 敬子	Choi Kyung Ja	ソウル・一山教会	女性宣教委員会
56	石 嫺善	Seok You Seon	ソウル・江南教会	GFS
57	睦 鎮姫	Mok Jin Hee	ソウル・安養教会	全国オモニ連合
58	尹 大燁	Yun Dae Yeop	ソウル・仁川間石教会	青年部
58	張 星乾	Jang Seong Geon	ソウル・道峰教会	青年部
60	金 娥潏	Kim Ah Rin	ソウル・城南教会	青年
61	司祭 崔 俊基	Choi Jun Gi	教務院	教務院長
62	主教 金 鎬旭	Kim Ho Wook	大田教区主教	主教会
63	司祭 李 賢銅	Lee Hyeon Dong	大田・大所教会	韓日共同委員
64	司祭 イ プンニ	Lee Bbun Ea	大田・原州教会	発題者
65	司祭 呉 東均	Oh Dong Kyun	大田・清州山南教会	生命委員
66	司祭 張 東允	Jang Dong Yun	大田・ビョンチョン教会	教務局長
67	執事 李 惠仙	Lee Hye Sun	大田・主教座聖堂	女性聖職
68	柳 然寶	Ryu Yeon Bo	大田・竝川教会	韓日共同委員
69	金 均燮	Kim Kyun Seob	大田・主教座聖堂	発題者
70	洪 性任	Hong Sung Lim	大田・壽洞教会	教区オモニ連合
71	金 昭眞	Kim So Jin	大田・主教座聖堂	青年
72	申 明和	Sin Myeoung Hwa	大田・鳳鳴洞教会	青年

	성명	영문	교구·교회	직분
37	사제 高 英敦	Koh Youngdon	오키나와·애락원 기도의집 교회	선교 협동자
38	사제 咸 允淑	Ham Yoonsook	오키나와·토미구스쿠 성마르코교회	선교 협동자
39	사제 朴 美賢	Park Mi Hyun	오키나와·나고 성요한교회	선교 협동자
40	사제 上原 成和	Uehara Seiwa	오키나와·이시가키 그리스도교회	한일협동위원
41	吳 光現	Oh Kwang Hyun	오사카·성공회 이쿠노 센터	한일협동위원
42	黒澤 圭子	Kurosawa Keiko	도쿄·도쿄 성디모데교회	한일협동위원
43	사제 松山 健作	Matsuyama Kensaku	교토·가나자와 성요한교회	한일협동위원
44	사제 卓 志雄	Tahk Jih Woong	도쿄·성안드레아 주교좌성당	관구·선교 주사
45	사제 矢萩 新一	Yahagi Shinichi	관구 사무소	관구·총주사
46	주교 Poggo Anyhony		앵글리칸커뮤니언 사무국 총주사	게스트
47	사제 Ajibade Ijeoma		캔터베리 대주교 수석 보좌관	게스트
48	사제 Bruce Woodcock		미국 성공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주사	게스트
49	주교 김 장환	Kim Jang Whan	서울교구 주교	주교원
50	사제 이 대성	Lee Dae Sung	서울·강화읍 교회	한일협동위원
51	사제 최 돈순	Choi Donsoon	서울·사회선교국	한일협동위원
52	김 한나	Kim Hanna	서울·주교좌 성당	ACC 위원
53	이 경수	Lee Kyong Soo	서울·주교좌 성당	한일협동위원
54	전 호성	Jun Hosung	서울·주교좌 성당	한일협동위원
55	최 경자	Choi Kyung Ja	서울·일산교회	여성선교
56	석 유선	Seok You Seon	서울·강남 교회	GFS
57	목 진희	Mok Jin Hee	서울·안양 교회	전국어연
58	윤 대엽	Yun Dae Yeop	서울·인천간석 교회	청년
59	장 성건	Jang Seong Geon	서울·도봉 교회	청년
60	김 아린	Kim Ah Rin	서울·성남 교회	청년
61	사제 최 준기	Choi Jun Gi	교무원	교무원장
62	주교 김 호욱	Kim Ho Wook	대전교구 주교	주교원
63	사제 이 현동	Lee Hyeon Dong	대전·대소 교회	한일협동위원
64	사제 이 뿐이	Lee Bbun Ea	대전·원주교회	발제자
65	사제 오 동균	Oh Dong Kyun	대전·청주 산남 교회	생명위원
66	사제 장 동윤	Jang Dong Yun	대전·병천 교회	교무국장
67	부제 이 혜선	Lee Hye Sun	대전·주교좌 성당	성직자
68	류 연보	Ryu Yeon Bo	대전·원성동 교회	한일협동위원
69	김 균섭	Kim Kyun Seob	대전·주교좌 성당	발제자
70	홍 성임	Hong Sung Lim	대전·수동 교회	교구어연
71	김 소진	Kim So Jin	대전·주교좌 성당	청년
72	신 명화	Sin Myeoung Hwa	대전·봉명동 교회	청년

	名 前	なまえ	教区・教会	参加枠
73	主教 朴 東信	Park Dong Shin	釜山教区主教	主教会
74	司祭 蔡 昌完	Chae Chang Wan	釜山・濟州友情教会	韓日共同委員
75	司祭 司空 炳度	Sagong Byungdo	釜山・教務局	教務局長
76	金 貴ラン	Kim Gwi Ran	釜山・主教座聖堂	教区オモニ連合
77	姜 信惠	Kang Shin Hye	釜山・濟州友情教会	青年
78	司祭 羅 聖權	Na Song Gwon	教務院	教務員
79	司祭 朴 泰植	Bak Tae Sik		聖書研究講師
80	シム ドンヒョン	Sim Dong Hyun		映像配信担当

	성 명	영 문	교구・교회	직분
73	주교 박 동신	Park Dong Shin	부산교구 주교	주교원
74	사제 채 창완	Chae Chang Wan	부산・제주우정 교회	한일협동위원
75	사제 사공 병도	Sagong Byungdo	부산・교무국	교무국장
76	김 귀란	Kim Gwi Ran	부산・주교좌 성당	교구어연
77	강 신혜	Kang Shin Hye	부산・제주우정 교회	청년
78	사제 나 성권	Na Song Gwon	교무원	교무원
79	사제 박 태식	Bak Tae Siki		성서연구 발제자
80	심 동현	Sim Dong Hyun		영상 담당





日韓宣教協働40年を振り返って
한일 선교 협동 40년을 되돌아 보며

Since 1984

日本聖公会 管区事務所 総主事 エッセイ 矢萩 新一
 일본성공회 관구사무소 총주사 이새 야하기 신이치

第1次韓日聖公会宣教 SEMINAR
 1984. 10. 6-10 大韓延禧 SEGIIL

第1回日韓 聖公会宣教セミナー (1984ソウル)
 제 1회 한일성공회 선교 세미나 (1984 서울)

1975年 東京教区 BTプロジェクト

1975년 도쿄교구 BT프로젝트

1984年 第1回 日韓 宣教 セミナー

1984년 제1회 한일선교세미나

1988年 日韓協働委員会設置

1988년 한일협동위원회 설치

1992年 聖ガブリエル教会再建、聖公会生野センター開設

1992년 성가브리엘교회 재건, 성공회 이쿠노센터 개설



1994年 日韓 宣教協働 10年を迎え...

1994년 한일선교협동 10년을 맞이하여...

1995年 第1回 日韓青年キャンプ @神戸 ※日韓合同会議の開始

1995년 제1회 한일청년캠프 @고베 ※한일합동회의 시작

1996年 「聖公会の戦争責任に関する宣言」を決議決議

1996년 「성공회의 전쟁책임에 관한 선언」을 총회에서 결의

2002年 日本聖公会 機構改革:正・平の日韓協働プロジェクトに

2002년 일본성공회 기구개혁:「정·평 한일협동프로젝트」로

2003年 日韓合同 主教会 @ソウル

2003년 한일 합동주교회의 @서울



第1回 日韓聖公会 青年キャンプ @神戸
제1회 한일성공회 청년캠프 @고베

2004年 日韓宣教協働20周年 記念大会 @福岡

2004년 한일선교협동20주년 기념대회 @후쿠오카

2006年 宣教協働者 招聘委員会 設置

第1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河口湖(通算11回目)

2006년 선교 협동자 초빙위원회 설치

제1회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카와구치호(통산11번째)

2007年 第1回 世界聖公会 平和大会 (TOPIK) @坡州・金剛山

2007년 제1회 세계성공회 평화대회 (TOPIK) @파주・금강산

2009年 第1回 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

2009년 제1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투어



2006年 第1回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河口湖
2006년 제1회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카와구치호

2010年 日韓併合100年「和解と平和の旅」@江華
 2010년 한일합방100년「화해와 평화의 여행」@강화
 2011年 東日本大震災・福島第一原発事故
 2011년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2012年 日本聖公会 宣教協議会 @浜名湖
 2012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 @하마나호수
 2013年 第2回 世界聖公会 平和協議会 @沖縄
 2013년 제2회 세계성공회 평화협의회 @오키나와



2010年「和解と平和の旅」
 2010년 '화해와 평화 여행'
 修復された江華教会の手すり
 수리된 강화성당 계단 난간

2014年 日韓宣教協働30周年 記念大会 @濟州島
 2014년 한일선교협동30주년 기념대회 @제주도
 2015年 日本聖公会・韓国語での聖餐式を開始
 戦後70年 諸行事・大韓聖公会からも参加
 第8回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 @中国・延吉/白頭山
 2015년 일본성공회・한국어로 성찬식을 시작
 戦後70년 여러 행사에・대한성공회도 참여
 제8회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중국・연길/백두산
 2016年 日韓協働委員会 再設置
 大韓聖公会 女性宣教センター 開設
 2016년 한일협동위원회 재설치
 대한성공회 여성선교센터 개설





2014年 日韓宣教協働30周年 記念大会 @濟州島
 2014년 한일선교협동30주년 기념대회 @제주도

「日韓聖公会 宣教協働30周年 記念大会」 共同声明

- ①日本聖公会と大韓聖公会は、継続的な宣教協働のために管区レベルでの計画・推進のための機構を設置する。
- ②両聖公会は、人種差別的・排他的極右運動に対する 2014 年の日本聖公会と大韓聖公会の総会決議を受けて、在日韓国朝鮮人をはじめとするマイノリティーの人権を守る働きを今後も継続する。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30주년 기념대회」 공동성명

- ①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는 계속적인 선교 협동을 위해 관구 차원에서 이를 계획,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 ②양국 성공회는 인종차별적, 배타적 극우주의 운동에 대한, 2014년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의 총회 결의에 따라 향후 재일한국조선인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 ③両聖公会は、日韓の青年交流を活かして、東アジアの苦難と痛みを共にする青年活動に取り組む。そのために日韓両国の関係を越えて青年の主体的な交流を可能にする支援協力体制を整える。
- ④両聖公会は、沖縄・濟州島における新たな軍事基地建設に反対し、「2013年第2回世界聖公会平和協議会 in Okinawa 声明」の具体的実践に努める。
- ③양국 성공회는 청년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는 청년활동을 해나간다. 그를 위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넘어 주체적인 청년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④양국 성공회는 오키나와와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반대하고, 「2013년 제 2회 세계성공회 평화협의회 in Okinawa 의 성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⑤ 兩聖公회는、「風の島を聖霊の島に」という、濟州教会の宣教ビジョンを共有し、「生命いのち・正義・平和」を求める共同の信仰的实践を模索する。
- ⑥ 兩聖公회는、「宣教協働 20 周年記念大会共同声明」に掲げた女性の交流が不十分であったことを反省し、女性が互いに学び合い、協働できる環境を整える。そのための定期的な交流を進め、意思決定機関および諸委員会における女性の比率が 30%以上となるように努める。
- ⑤ 양국 성공회는 ‘바람의 섬에서 성령의 섬으로’라는 제주교회의 선교비전을 공유하고, 제주도에서 생명, 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의 신앙적 실천을 모색한다.
- ⑥ 양국 성공회는 ‘선교협동 20 주년 기념대회’ 공동성명에 게재된 여성의 교류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하고, 여성이 서로 배우고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의사결정 기관 및 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⑦ 兩聖公회는、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南北統一への努力が重要な宣教課題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TOPIK(Towards Peace in Korea)事業を通して積極的に協力する。
- ⑧ 兩聖公회는、両国語による聖餐式を実践するよう努力し、真の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の実現を目指す。
- ⑦ 양국 성공회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남북통일의 노력이 중요한 선교의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TOPIK(Towards Peace in Korea) 사업을 통해 적극 협력한다.
- ⑧ 양국 성공회는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 예배를 시작하도록 노력한다.

- ⑨ 兩聖公회는、世界聖公会の「宣教の 5 指標(The Five Marks of Mission)」を共有し、そのひとつである「創造秩序の保存と地球生命の回復と維持」のため、原発と放射能(核エネルギー)問題の深刻さを認識し、信仰の課題として取り組む。
- ⑩ 兩聖公회는、日韓のみならず、東アジア地域を含めた歴史の学びを深め、互いの宣教方策を交換して神学・礼拝・宣教・牧会などの共同研究を継続する。
- ⑨ 양국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의 선교 5 대 지표(The Five Marks of Mission)를 공유하고, 그 하나인 ‘창조질서 보존과 지구 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핵에너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앙의 과제로써 실천에 힘쓴다.
- ⑩ 양국 성공회는 한일 양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역사 학습을 심화하고, 서로의 선교방침을 교환하는 신학과 예배, 선교와 사목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한다.



2015年 第8回 日韓聖公会 青年セミナー@中国・延吉/白頭山
 2015년 제8회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중국·연길/백두산



2017年 張本榮 司祭 逝去50周年 記念礼拝 @大阪
 2017년 장본영 사제 별세 50주년 기념예배 @오사카

- 2018年 第10回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 @大田 (通算20回目)
- 2018년 제10회 한일성공회 청년 세미나 @대전 (통산20번째)
- 2019年 2.8独立宣言100周年 日韓聖公会合同礼拝 @東京
- 3.1独立宣言100周年 日韓聖公会合同礼拝 @ソウル
- 和解と平和を求める日韓キリスト者の共同祈祷会@東京
- 2019년 2.8독립선언100주년 한일성공회 합동예배 @동경
- 3.1독립선언100주년 한일성공회 합동예배 @서울
-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일그리스도인 협동기도회 @동경
- 2023年 日本聖公会 宣教協議会
- 2023년 일본성공회 선교 협의회
- 2024年 日韓宣教協働40周年 2024년 한일선교협동40주년

2023年日本聖公会宣教協議会からのよびかけ

2023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 제안

ここからまた歩きはじめよう～いのちに仕え、となりびととなるために～
여기부터 다시 걷기 시작하자～생명을 섬기고 이웃이 되기 위하여～

1. 神のみ声に耳を傾けよう

1.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2. 人々の声に耳を傾けよう

2.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3. 世界の声に耳を傾けよう

3. 세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2024年 日韓聖公会宣教協働40周年記念大会

2024년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주년 대회

テーマ：共に生きる世界 ～神・人間・自然との和解～

테마：함께사는세상 ～하느님, 인간, 자연과의 화해～

「神と和解させていただきなさい。」（コリント二5：20c）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5:20c）



日韓聖公会 交流史年表

1910-1945	朝鮮半島植民地化	米ソ2大国による南北分断
1950	朝鮮戦争	
1961		朴正熙政権による軍事独裁化
		<各教区での日韓交流のプロジェクト>
1965	日韓基本条約締結	東京教区第46(定期)教区会 「相互責任・相互依存委員会(MRI委員会)」設置
		ソウル・ワシントン・東京 3教区合同宣教活動
		九州教区・大田教区 姉妹教区 大田教区分割後の釜山教区との友好関係も継続
		東京教区BTプロジェクト 人的に釜山教区を支援
		在韓原爆被災者救済 5ヶ年にわたって年50人ずつ治療援助
		釜山教区蔚山聖バルナバ教会献堂式
		大阪教区「在日韓国・朝鮮人協働委員会(ガブリエルプロジェクト)」発足
1983	日本聖公会宣教セミナー準備会設立	
1984	第1回日韓宣教セミナー「相互理解」@ソウル 金成洙主教/木川田一郎主教	
1985	第2回日韓宣教セミナー「わたしは主に罪を犯しました。一両国聖公会の歴史をかえりみて」@大阪	
		1986 ソウル・東京青年交流会@韓国
1987	韓国民主化宣言	
1988	第3回日韓宣教セミナー「教会成長と社会正義の関係」@ソウル・釜山	1988 東京教区 日韓青年交流会@東京
	日本聖公会第40(定期)総会 日韓協働委員会の設置	
1990	第4回日韓宣教セミナー「大韓聖公会100周年と宣教第2世代の課題」@ソウル	1990 東京教区 日韓青年交流会@ソウル
		1992 聖ガブリエル教会再建、聖公会生野センター開設
1993	大韓聖公会管区成立	関東3教区生野委員会設立
	第5回日韓宣教セミナー「サルリム(生かし合い)のための分ち合いの実践」@東京・川崎	
	日本聖公会宣教協議会	1995 中部教区・ソウル教区 姉妹関係協約書締結
1995	日韓聖公会 宣教セミナー合同評価会@釜山	
	第1回日韓青年ワークキャンプ「阪神淡路大震災復興支援のため」@神戸	
	韓日聖公会合同会議@済州島	
	第2回日韓青年文化キャンプ「隣人とは誰か」@ソウル・水安堡	
1996	日本聖公会第49(定期)総会 日本聖公会の戦争責任に関する宣言を決議	

한일 성공회 교류사 연표

1910-1945	조선반도 식민지화	미·소 대국에 의한 남북분단
		6.25 전쟁
		박정희 정권에 의한 군사독재화
		< 각 교구에서의 한일 교류 프로젝트 >
1965	한일 기본 조약 체결	동경교구 제 46 (정기) 교구의회: 「상호 책임·상호 의존 위원회 (MRI 위원회)」 설치 서울·워싱턴·동경 3 교구 합동 선교 활동
		규슈교구 · 대전교구 자매교구: 대전교구 분할 후 부산교구와의 우호 관계도 계속
		동경교구 BT 프로젝트: 인적으로 부산교구 지원
		재한 원폭 피해자 구제: 5 년 동안 매년 50 명씩 치료 지원
		부산교구 울산 성 바르나바 교회 헌당식
		오사카교구 「재일 한국·조선인 협동위원회 (가브리엘 프로젝트)」 발족
1983	일본성공회 선교세미나 준비 모임 설립	
1984	제 1 회 한일 선교세미나 「상호이해」 @서울 김성수 주교/키카와다 이치로 주교	
1985	제 2 회 한일 선교세미나 「저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 양국성공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오사카	
		서울 · 동경 청년교류회@한국
1987	한국 민주화선언	
1988	제 3 회 한일 선교세미나 「교회성장과 사회정의의 관계」 @서울 · 부산	1988 동경교구 한일청년교류회@동경
1988	일본성공회 제 40(정기)총회 한일 협동위원회의 설치	
1990	제 4 회 한일 선교세미나 「대한성공회 100 주년과 선교 제 2 세대의 과제」 @서울	1990 동경교구 한일청년교류회@서울
	대한성공회 관구 설립	1992 성 가브리엘 교회 재건, 성공회 이쿠노 센터 개설
1993	제 5 회 한일 선교세미나 「살림을 위한 나눔의 실천」 @동경 · 카와사키	관동 3 교구 이쿠노 위원회 설립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	1995 중부교구區 · 서울교구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
1995	한일 성공회 선교세미나 합동 평가회@부산	
	제 1 회 한일 청년 워크캠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부흥 지원을 위해」 @고베	
	한일 성공회 합동회의 @제주도	
	제 2 회 한일 청년 문화캠프 「이웃은 누구인가?」 @서울 · 수안보	
1996	일본성공회 제 49 (정기) 총회 일본성공회의 전쟁책임에 관한 선언을 결의	

1997	第3回日韓青年交流キャンプ「平和と一致」@広島・呉・関西
1998	第4回日韓青年キャンプ「神さまは遠いところがないーわたし、となり、神さまー」@ソウル・南揚州教会
1999	東京教区初の女性司祭按手式にソウル教区から参列
	第5回日韓青年キャンプ@沖繩・那覇・愛楽園
2000	日韓協働委員会 「草津のタルピッ (月あかり)」 草津楽泉園在住、在日韓国朝鮮人、元ハンセン病患者の証言集の出版
	韓日聖公会神学会第1回協議会
	日韓合同会議、覚書の交換
2001	第6回青年交流プログラム「共に歩もうこの道を」@ソウル、南揚州教会・江華島
	韓日聖公会神学総会・第2回協議会「脱権威主義の社会の中の聖公会の職制と展望」@東京
2002	第7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共に歩もうこの道をII」@横浜・川崎・東京
	日韓協働委員会 「こんにちは！アンニョンハセヨ！日韓在日」発行
2003	第53(定期)総会 日本聖公会機構改革
	正義と平和委員会・ 日韓協働プロジェクト設置 、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は青年委員会所管。正義と平和・ジェンダープロジェクト設置
2004	第8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生命、対話、共生」@ヨンスリ、ソウル
	日韓両聖公会合同主教会@ソウル
2006	第9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人・大地・分かち合い・北海道開拓と強制連行」@北海道
	聖公会生野センターNPO法人化
2007	第10回日韓青年交流プログラム@全州
	日韓聖公会宣教協働20周年大会@福岡
2008	日韓聖公会合同主教会
	2005 東北教区 大田教区と「友好協力関係」締結
2006	女性に関する課題の担当者(女性デスク)設置
	宣教協働者招聘委員会設置 、「宣教協働者受入資金」設定(2022まで継続)以降、在日・韓国出身教役者の集いが継続的に持たれている。
2007	第1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 「日韓聖公会の宣教課題と東アジアの平和」@河口湖(通算11回目)
	教区婦人会総会に大韓聖公会代表を招待、教会単位の姉妹関係、女性会議へ大韓聖公会代表者を招待など
2008	第1回世界聖公会平和大会(TOPIK) 聖公会平和フォーラム「朝鮮半島の平和的統一」(主催：大韓聖公会)@坡州・金剛山
	北朝鮮訪問 世界15か国聖公会関係者150名 日本聖公会・首座主教ほか9名参加
2008	第2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平和の地に平和の種になろう」@ソウル
	第57(定期)総会「『世界聖公会平和大会』の宣言文の主旨に賛同し、協働する件」決議
	全国青年大会 in 沖繩(第3回日韓青年セミナー)「そこにキリストは共にいる」

1997	제 3 회 한일 청년 교류캠프 「평화와 일치」 @히로시마 · 쿠레 · 간사이
1998	제 4 회 한일 청년 캠프 「하느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다」-나, 이웃, 하느님-」 @서울 · 남양주 교회 동경교구 첫 여성 사제 서품식: 서울교구에서 참석
1999	제 5 회 한일 청년 캠프@오키나와 · 나하 · 아이라쿠엔 한일 협동 위원회 「쿠사쓰의 달빛」 쿠사쓰 라쿠센엔 거주, 재일 한국·조선인 전 나병환자의 증언집 간행 한일 성공회 신학회 제 1 회 협의회
2000	한일 협동회의, 각서의 교환 제 6 회 청년교류 프로그램 「함께 걷자 이 길을」 @서울, 남양주 교회, 강화도
2001	한일 성공회 신학 총회 · 제 2 회 협의회 「탈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의 성공회의 직제와 전망」 @동경 제 7 회 한일교류 프로그램 「함께 걷자 이 길을 II」 @요코하마 · 카와사키 · 동경 한일 협동위원회 「안녕하세요! 한 · 일 · 재일」 발행
2002	제 53 (정기) 총회 일본성공회 기구 개혁 정의와 평화 위원회 · 한일 협동 프로젝트 설치 , 한일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청년위원회 소관. 정의와 평화 · 젠더 프로젝트 설치 제 8 회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생명, 대화, 공생」 @연수리, 서울 한일 성공회 합동 주교회의@서울
2003	제 9 회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사람,대지, 나눔 · 핫카이드 개척과 강제연행 ·」 @훗카이드 성공회 이쿠노 센터 NPO 법안화
2004	제 10 회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전주 한일 성공회 선교협동 20주년 대회@후쿠오카 한일 성공회 합동 주교회의
2006	여성에 관한 과제 담당자(여성 데스크)설치 선교협동자 초빙 위원회 설치, 「선교협동자를 위한 자금」 설정 (2022년까지 계속) 이후, 재일 · 한국 출신 교역자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제 1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한일 성공회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평화」 @카와구치호 (통산 11 회째) 교구 부인회 총회에 대한 성공회 대표를 초대, 교회 단위의 자매 결연, 여성 회의에 대한 성공회 대표자를 초청 등
2007	제 1 회 세계성공회 평화대회 (TOPIK) 성공회 평화 포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주최: 대한성공회) @파주 · 금강산 북한 방문 세계 15 개국 성공회 관계자 150 명 일본성공회 · 수좌주교 9 명 참가 제 2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평화의 땅에 평화의 씨앗이 되자」 @서울
2008	제 57 회 (정기) 총회 「『세계성공회 평화대회』의 선언문의 취지에 찬동하며, 협동하는 건」 결의 전국청년대회 in 오키나와 (제 3 회 한일 청년 세미나) 「그 곳에 그리스도는 함께 계신다」 여성 데스크: 동아시아의 향후 여성들의 교류와 여자 데스크 간의 협동 및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한일 담당자 회의

	女性デスク：東アジアにおける今後の女性たちの交流や女性デスク間の協働及びネットワーク作りについて日韓担当者の会合
2009	第1回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 「地域に密着した宣教活動の多様性に学ぶ」@ソウル
	第4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変化する未来と日韓聖公会青年の課題」@江原道華川・ソウル
2010	日本聖公会宣教150周年 日韓聖公会合同主教会@済州
	女性の司祭按手10周年感謝プログラム @名古屋
	第2回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多様な社会宣教の現場に学ぶ」@全州・大田
	日本聖公会プレ宣教協議会 TOPIK 作業グループ設置
	第5回日韓青年セミナー「主の平和」@長崎
2012	日韓併合100年「和解と平和の旅」
	11月14日の主日を「日韓併合100年『和解と平和を祈る日』と定め、各教会に「和解と平和の祈り」と信施を求めた。 信施を江華教会階段手すりの修復のために献金
2013	日本聖公会宣教協議会@浜名湖 戦争責任に関するアジア諸国への謝罪を再確認
	第6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環境・生態系・原発を巡って～」@慶州・月城・古里
2014	第3回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韓国の教会の働きに学ぶ」@ソウル・華城
	第2回世界聖公会平和協議会 @沖縄
2015	日韓宣教協働30周年記念大会 「生命・正義・平和～東アジアにおける聖公会の役割」@済州島
	日本聖公会第61(定期)総会「『ヘイトクライム(人種差別・民族憎悪犯罪)、ヘイトスピーチの根絶と真の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の創造を求める日本聖公会の立場』を採択する件」決議
	大韓聖公会第29次定期全国会議、上記日本聖公会の決議を支持する決議
	第7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ゆこう、核を越えて、東アジアの平和へ」@仙台・新地
	日本聖公会 韓国語での聖餐式を開始 (@牛込聖公会聖バルナバ教会) (注：2019 現在は月島聖公会にて実施)
2016	第4回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韓国の教会の働きから学ぶ」
	第8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歴史の現場で和解と分かち合いを」@中国・延吉/白頭山 TOPIK 医療支援に支援
	大韓聖公会代表者 沖繩慰霊の日、広島平和礼拝、長崎原爆記念礼拝に出席
	日本聖公会主教会「 “戦後70年”に当たって 」メッセージ発信(戦争責任に言及)
大韓聖公会「戦後70周年を迎え日本聖公会に差し上げる大韓聖公会主教会の応答メッセージ」	
司祭テモテ野村潔師追悼礼拝@ソウル教区大聖堂 日韓関係者出席	
大韓聖公会宣教125周年 日本聖公会より主教8名出席	
東日本大震災5周年礼拝に大韓聖公会代表者出席	
第62(定期)総会 日韓協働委員会設置 、大韓聖公会代表者より TOPIK 紹介	
第5回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 「韓国の教会の働きから学ぶ」	

2009	<p>제 1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지역에 밀착한 선교 활동의 다양성을 배움」 @서울</p> <p>제 4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변화하는 미래와 한일 성공회 청년의 과제」 @강원도 화천 · 서울</p> <p>일본성공회 선교 150주년 한-일 성공후이 계약 주교좌성당@제주</p> <p>여성 사제 서품 10주년 감사 프로그램@나고야</p> <p>제 2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다양한 사회선교의 현장을 배움」 @전주 · 대전</p> <p>일본성공회 프레선교협의회 TOPIK 작업그룹 설치</p> <p>제 5 회 한일 청년세미나 「주의평화」 @나가사키</p> <p>한일합병 100년 「화해와 평화의 순례」</p> <p>11월 14일 주일을 「한일 합병 100년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는 주일』로 정함, 각 교회에 「화해와 평화의 기도」와 헌금을 부탁함. 헌금을 강화교회 계단순잡이의 복원을 위해 헌금함.</p> <p>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하마나호 전쟁책임에 관해서 동아시아 각 국가에 사죄를 재 확인함.</p> <p>제 6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환경 · 생태계 · 원전을 둘러싸고~」 @경주 · 월성 · 고리</p> <p>제 3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한국교회의 활동을 배움」</p> <p>제 2 회 세계성공회 평화협의회@오키나와</p> <p>한일 선교협동 30주년 기념대회 「생명 · 정의 · 평화~등 아시아에 있어서 성공회의 역할」 @제주도</p> <p>일본성공회 61 (정기) 총회 「『중오범죄 (인종차별 · 민족 중오 범죄), 중오 연설의 근절과 진정한 다민족 · 다문화 공생사회의 창조를 구하는 일본성공회의 입장』을 채택하는 건」 결의</p> <p>대한성공회 제 29 차 정기 전국의회: 상기 일본성공회의 결의를 지지하는 결의</p> <p>제 7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가자, 핵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 @센다이 · 신지</p> <p>일본성공회 한국어 성찬식 개시 (@우시고매 성공회 바르나바 교회) (주 : 2019 년 현재는쁘키시마 성공회에서 실시)</p> <p>제 4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한국 교회의 활동으로부터 배움」</p> <p>제 8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역사의 현장에서 화해와 나눔을」 @중국 · 연길/백두산 TOPIK 의료지원을 지원</p> <p>대한성공회 대표자 오키나와 위령의 날, 히로시마 평화예배, 나가사키 원폭기념 예배 출석</p> <p>일본성공회 주교회의 「“전후 70주년”을 맞이해」 메시지 발신(전쟁 책임에 관해 언급)</p> <p>대한성공회 「전후 70주년을 맞아 일본 성공회에 드리는 대한 성공회 주교회의 응답 메시지」</p> <p>사제 데모데 노무라 키요시 추도예배@서울교구 대성당 한일 관계자 출석</p> <p>대한성공회 125주년 일본성공회로부터 주교 8명 출석</p> <p>동일본 대재해 5주년 예배에 대한성공회 대표자 출석</p> <p>제 62(정기)총회 한일 협동 위원회 설치, 대한성공회 대표자로부터 TOPIK 소개</p> <p>제 5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한국 교회의 활동으로부터 배움」</p> <p>대한성공회 여성 선교 센터 축하모임에 여성 데스크가 참석</p>
2010	<p>제 5 회 한일 청년세미나 「주의평화」 @나가사키</p> <p>한일합병 100년 「화해와 평화의 순례」</p>
2012	<p>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하마나호 전쟁책임에 관해서 동아시아 각 국가에 사죄를 재 확인함.</p>
2013	<p>제 3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한국교회의 활동을 배움」</p> <p>제 2 회 세계성공회 평화협의회@오키나와</p>
2014	<p>한일 선교협동 30주년 기념대회 「생명 · 정의 · 평화~등 아시아에 있어서 성공회의 역할」 @제주도</p> <p>일본성공회 61 (정기) 총회 「『중오범죄 (인종차별 · 민족 중오 범죄), 중오 연설의 근절과 진정한 다민족 · 다문화 공생사회의 창조를 구하는 일본성공회의 입장』을 채택하는 건」 결의</p> <p>대한성공회 제 29 차 정기 전국의회: 상기 일본성공회의 결의를 지지하는 결의</p> <p>제 7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가자, 핵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 @센다이 · 신지</p> <p>일본성공회 한국어 성찬식 개시 (@우시고매 성공회 바르나바 교회) (주 : 2019 년 현재는쁘키시마 성공회에서 실시)</p> <p>제 4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한국 교회의 활동으로부터 배움」</p> <p>제 8 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역사의 현장에서 화해와 나눔을」 @중국 · 연길/백두산 TOPIK 의료지원을 지원</p> <p>대한성공회 대표자 오키나와 위령의 날, 히로시마 평화예배, 나가사키 원폭기념 예배 출석</p> <p>일본성공회 주교회의 「“전후 70주년”을 맞이해」 메시지 발신(전쟁 책임에 관해 언급)</p> <p>대한성공회 「전후 70주년을 맞아 일본 성공회에 드리는 대한 성공회 주교회의 응답 메시지」</p> <p>사제 데모데 노무라 키요시 추도예배@서울교구 대성당 한일 관계자 출석</p> <p>대한성공회 125주년 일본성공회로부터 주교 8명 출석</p> <p>동일본 대재해 5주년 예배에 대한성공회 대표자 출석</p> <p>제 62(정기)총회 한일 협동 위원회 설치, 대한성공회 대표자로부터 TOPIK 소개</p> <p>제 5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한국 교회의 활동으로부터 배움」</p> <p>대한성공회 여성 선교 센터 축하모임에 여성 데스크가 참석</p>
2016	<p>제 5 회 한국 사회선교 스터디 투어 「한국 교회의 활동으로부터 배움」</p> <p>대한성공회 여성 선교 센터 축하모임에 여성 데스크가 참석</p>

	<p>大韓聖公会女性宣教センター 祝賀会に女性デスクが参加</p> <p>ジェンダープロジェクトが日韓協働合同委員会に陪席、大韓聖公会両性平等局のメンバーと課題を共有</p> <p>第9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核、武力、差別をこえて、生命、平和、共生の道を」@広島・呉・大久野島</p> <p>第10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愛からはじまる神の正義」@大田 (通算 20 回目)</p> <p>第6回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大田</p> <p>女性の司祭按手 20 年感謝プログラム@東京</p> <p>第11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隔ての壁を取り壊し、平和の福音を-3・1運動とキリスト教」@東京・川崎 (通算 21 回目)</p> <p>朝鮮独立運動 100 周年「今・和解と協働のために・・・」発行 「共同の祈り」を作成</p> <p>2.8 独立宣言 100 周年日韓聖公会合同礼拝@目白聖公会</p> <p>3.1 独立宣言 100 周年日韓聖公会合同礼拝@ソウル教区大聖堂</p> <p>司祭バルトロマイ竹内謙太郎師追悼礼拝@ソウル大聖堂 九州教区 釜山教区と姉妹教区協約締結</p> <p>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仙台 大韓聖公会からも出席</p> <p>「8.15 日韓聖公会共同宣言」大韓聖公会議長主教 兪樂濬師/日本聖公会首座主教 植松誠師</p> <p>和解と平和を求める日韓キリスト者の合同祈禱会@東京 大韓聖公会、日本聖公会代表者出席 (主催：実行委員会<在日大韓基督教会・日本基督教団・日本聖公会・日本福音ルーテル教会・日本バプテスタ連盟・日本バプテスト同盟・日本キリスト教会・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委員会・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p> <p>日韓合同会議に合わせ、40 周年に向けて、10 年の振り返りのセミナーをソウルで開催</p>
2017	<p>COVID-19 の感染拡大のため、予定されていた教区会、聖職按手式などの延期、礼拝を休止など各教区にて対応。さまざま研修会・プログラム・会合が中止またはオンライン開催に</p> <p>中止/延期となったもの：5 月の日韓合同主教会 (名古屋)、日韓協働合同会議 (管区事務所)</p>
2018	<p>COVID-19 のため中止/延期：2 月の日韓青年セミナー</p> <p>合同会議は Zoom にて行ない、情報交換や 40 周年の準備を行なう。Zoom 会議の中で竹田眞主教の追悼の祈り。合同会議にて長谷川主教が原発問題について発題。大韓聖公会女性の司祭按手 20 周年記念礼拝 (笹森主教がビデオメッセージ)</p> <p>聖公会生野センターが 30 周年を迎え、連続講座や記念礼拝。日韓協働委員からも出席。ミッシヨンステートメントを発表。</p> <p>日韓合同主教会を Zoom で開催。</p>
2019	<p>トリチウム汚染水海洋放出反対の共同声明を発信。済州友情教会の礼拝堂聖別式に首座主教と日韓協働委員、総主事が参列</p> <p>関東大震災 100 年 朝鮮人・中国人犠牲者追悼礼拝 (東京教区)</p> <p>2023 年日本聖公会宣教協議会で日韓協働委員会の働きのアピール文書を配布</p>
2020	<p>日韓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済州日韓友情の家建築・祝福式</p>
2021	
2022	
2023	
2024	

2017	젠더 프로젝트가 한일협동위원회에 배석, 대한성공회 양성평등국의 멤버와 과제를 공유 제 9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핵, 무력, 차별을 넘어, 생명, 평화, 공생의 길을」 @히로시마·쿠레·오쿠노 섬
2018	제 10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느님의 정의」 @대전 (통산 20 번째) 제 6회 한국 사회선교 스테디 투어@대전 여성사제 서품 20년 감사 프로그램@동경 제 11회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막힌 벽을 허물고, 평화의 복음을-3·1 운동과 그리스도교」 @동경·카와사키 (통산 21 번째) 조선독립운동 100주년 「지금·화해와 협동을 위하여...」 발행 「공동의 기도」 작성 2.8 독립선언 100주년 한일 성공회 합동 예배@대구로 교회 3.1 독립선언 100주년 한일 성공회 합동 예배@서울교구 대성당 사제 바르톨로메오 다케우치 켄타로 추도예배@서울대성당
2019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협의회@센다이 대한성공회에서도 참석 규슈교구 부산교구와 자매교구 협약 체결 「 8.15 한일 성공회 공동선언문 」 대한성공회의장비숍 유낙준 님/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우에마츠 마코토 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일 그리스도인 협동 기도회@동경 대한성공회, 일본성공회 대표자 참석 (주최: 실행위원회<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 기독교단·일본 성공회·일본 북음 루터교회·일본 침례교연맹·일본 침례교 동맹·일본 크리스도교회·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위원회·일본 카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한일 합동회의에 맞춰 40 주년을 향해 10년의 되돌아오는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
2020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교구회, 성직 안수식 등 연기, 예배를 휴지 등 각 교구에서 대응. 각종 연수회, 프로그램, 회의가 중단 또는 온라인 개최로 전환. 중단/연기된 것들 : 5월 한일합동주교회의(나고야), 일한직업계약협회(지방 사무소)
2021	COVID-19로 인해 중단/연기 : 2월 한일 청년 세미나 합동회의는 Zoom으로 진행, 정보 교환과 4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한다. Zoom 회의 중 다케다 마코토 주교의 추모 기도. 합동회의에서 하세가와 주교가 원전 문제에 대해 발제. 대한성공회 여성사제 안수 20주년 기념예배(사사모리 주교 영상 메시지)
2022	성공회 이쿠노센타가 30주년을 맞이해 연속 강좌나 기념 예배. 한일협동위원들도 참석.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 한일 합동주교회를 Zoom에서 개최.
2023	트리플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의 공동 성명을 발신. 제주우정교회 예배당 성별식에 수좌주교와 한일협동위원 총주사 참석. 관동 대지진 100년 조선인·중국인 희생자 추도 예배(도쿄 교구). 2023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에서 한일협동위원회의 일에 대한 호소문서를 배포.
2024	한일선교협동 40주년 기념대회 . 제주 한일우정의 집건축·축복식

平等と和解の共同体

司祭 朴泰植（前聖公会大学教授）



光と塩！キリスト教徒でなくても一度や二度は聞いたことがある言葉であろう。本来これは、キリスト教会の世の中の役割を象徴的に表現した言葉（マタイ 5：13-16）であるが、読者の中には首をかしげる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果たして教会は、世の光と塩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だろうか。

教会は、イエスが構成した共同体にルーツを置く。これはかつて2千年の間、変わらずに受け継がれてきた教会の教えである。果たしてイエスはどのような共同体を構成し、それによってどのような理想を実現しようとしたのだろうか。キリスト教徒だけに向けた問いかけではなく、非キリスト教徒であっても一度は関心を持つ価値ある問いである。

歴史におけるイエスは明確な意志で伝道活動を展開し、多くの追随者とともに共同体を構成した。そのため、その追随者の性格を明らかにし、彼らと共にイエスが推進したことを逆から辿れば、イエスの共同体像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最初の過程として、追随者の範囲を決定する作業から始めてみよう。

共同体のメンバー

十二弟子：イエスは公生涯を始めるにあたり、まず十二人の弟子を選んだ。その名簿はマルコ 3：16-19 に記されている。十二弟子の役割は二つに分かれており、一つはイエスと同行しながら教えを学び、身につける「弟子」（マセーテス）、もう一つはイエスから「神の国」宣教の使命を受けた「使徒」（アポストロス）である。私たちが同じ人たちを十二弟子とも呼び、十二使徒とも呼ぶ理由である。

十二弟子の中で目立つ人物は、断然シモン・ペテロである。彼は最初に弟子になる召命を受け（マルコ 1：16-17）、十二弟子の代表的な役割を果たし（マルコ 8：27-30, 16:7）、イエスの空の墓を初めて確認し（ヨハネ 20:1-10）、イエスの復活・昇天後、エルサレムの母教会を創立した張本人である（使徒 1-12 章）。ペテロは名実ともにイエスの愛弟子であった。次にゼベダイの二人の息子であるヤコブとヨハネは、ペテロとともにイエスに親しんだ弟子たちである。ヤコブとヨハネは、イエスに二番目に抜擢され（マルコ 1:18-20）、ペテロと一緒にしばしばイエスと同行した。（マルコ 1:29; 9:2; 10:35-40; 14:33）。言うなれば、イエスと特に親しかった「三人の弟子」である。その他の注目すべき人物としては、イエスの復活を疑ったトマス（ヨハネ 20:24-29）、熱心党员シモン（あるいは「カナンのシモン」）、そして裏切り者のガリラヤ人ユダがある。残りの弟子たちについては、聖書に詳しい情報が記されていない。

十二弟子の面々を見ると、さまざまな階層の人々で構成されている印象を与える。漁師と徴税人（マルコ 2:14=マタイ 9:9 に登場する「マタイ」徴税人）は平凡な職業であり、熱心党员は当時かなりの勢いを放つ党派の一員であった。そして、ローマの手先である徴税人と反ローマ勢力である熱心党员が十二弟子に含まれたことが大きな気づきを与えてくれる。「十二」という数字も同じ脈絡で理解できるが、これは伝統的にイスラエルの十二部族を象徴する数字であった。すなわち、十二人の弟子を通して、神の民全体を集めるというイエスの意志が象徴的に表現されたのである。十二弟子に所属した人物かどうかは不明だが、ヨハネ福音書に登場する愛弟子も言及に値する。彼はいつもペテロと比較され、むしろ優秀な人物であることが強調される人物である。特別な点は、愛弟子が大祭司の家に気兼ねなく入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事実である。これは間接的に彼が相当な地位に立つ上流階級であったことを証明している。つまり、ガリラヤ出身の漁師ペテロとは格の異なる人物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イエスの弟子集団にいかにも多様な階層の人々が含まれていたかを示す座標となる。

평등과 화해의 공동체

박태식신부 (前 성공회대 교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한두 번쯤 들어본 어구일 것이다.

이는 본디 그리스도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마태 5,13-16) 글의 독자 중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릴지 모른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교회는 예수가 구성했던 공동체에 뿌리를 둔다. 이는 지난 2천 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온 교회의 가르침이다. 과연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 했을까? 비단 그리스도인만 던지는 질문일 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라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질문이다.

역사의 예수는 뚜렷한 의지로 전도 활동을 떠나갔고 많은 추종자와 더불어 공동체를 구성했다. 따라서 그 추종자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가 추진해낸 일을 역추적하면 예수의 공동체 상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인 추종자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자.

공동체 구성원

열두 제자: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선 12제자를 뽑았고, 그 명단이 마르 3,16-19에 실려 있다. 12제자의 역할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제자'(마테테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에게서 '하느님의 나라'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도'(아포스톨로스)이다. 우리가 같은 이들을 두고 12제자라고도 부르고 12사도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12제자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시몬 베드로다. 그는 가장 먼저 제자가 되라는 소명召命을 받았고(마르 1,16-17), 12제자의 대표자 구실을 했으며(마르 8,27-30; 16,7), 예수의 빈 무덤을 처음 확인했고(요한 20,1-10), 예수의 부활.승천 이후 예루살렘 모뎀교회를 창립한 장본인이었다(사도 1-12장). 베드로는 명실공히 예수의 수제자였다. 다음으로 제배대오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와 친숙했던 제자들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에게 두 번째로 발탁되었으며(마르 1,18-20), 베드로와 함께 종종 예수와 동행한다(마르 1,29; 9,2; 10,35-40; 14,33). 말하자면, 예수와 특별히 가까웠던 '3인의 제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외 주목을 끄는 인물로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요한 20,24-29), 혁명당원 시몬 (혹은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배신자 가리옷 유다가 있다. 나머지 제자들에 관해서는 성서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준다. 어부와 세리(마르 2,14=마태 9,9에 나오는 '마태오' 세리)는 천한 직업이었고 혁명당원은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당파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와 반로마 세력인 혁명 당원이 12제자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12'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12제자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모으겠다는 예수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2제자단에 소속된 인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애제자도 언급 할만하다. 그는 늘 베드로와 비교되면서 오히려 출중한 인물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인물이다. 특별한 점은 애제자가 대제관의 집에 스스로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그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상류계층이었다는 반증이다. 말하자면 갈릴래아 출신의 어부 베드로와 격이 다른 인물이라는 뜻이다. 예수의 제자단에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알려주는 좌표가 된다.

十二弟子は、イエスと一緒に旅に出たが、時には「神の国」を広めるための使命を帯びて派遣される（マルコ6:7-13）。西暦53-58年頃に書かれたパウロのコリント書簡を念頭に置くと、「十二弟子」の体制はイエスの復活・昇天後もしばらく続いたようである（1コリント15:5-8）。

弟子集団：十二弟子を含め、イエスの追隨者は大きく二つの部類に分けられる。まず、弟子となった後も自分の住んでいた地域に住み続けた人々がいる。家のある（在家）弟子たちである。「イエスが登場するあちこちで支持者が生まれた。彼らは自分の家族と一緒に神の国の統治を待ち望み、イエスと使者たちを受け入れる人々である。全ての国、地域において、そのような人々が発見できる。特にガリラヤはもちろん、例えばベタニア、ユダヤ、またはデカポリスにもそのような人々が存在した（マルコ5:19-20）。」家のある弟子たちの名前を挙げると、サンヘドリンの議員であり、後にイエスに墓まで譲ったアリマタヤのヨセフ（マルコ15:42-47）、イエスを訪ねて教えを受けたファリサイ派の有力者ニコデモ（ヨハネ3:1-21）、徴税長ザアカイ（ルカ19:1-10）、イエスの弟子であり友人とも呼ばれたラザロ（ヨハネ11:1-42）などがある。

次にイエスが向かう先々において追いかけてきた人々を思い浮かべることができる（出家弟子）。私たちが本格的な意味で弟子集団というと、通常は出家した弟子を意味する。イエスの弟子集団に十二人だけがいたわけではない。それは単に確定された集団に過ぎず、実際にイエスに従った人々はずっと多かった。福音書の中で「弟子」（マセーテース）という言葉が「十二弟子」にのみ限定的に使われる文献がマタイ福音書だけである事実を考慮すると、イエスの弟子集団を十二人に限定するのは正しくない。仮に十二弟子には属さないが、イエスと同行した人物として、クレオパ（ルカ24:18）とバルサバと呼ばれるヨセフ（ユスト）マティア（使徒2:23-26）、そしてヨハネ文書にのみ登場するイエスの愛弟子（ヨハネ13:23-26; 18:15-16; 19:26-27; 20:2-10; 21:7.20-23）がいる。特にルカは十二弟子と区別される弟子たちを「七十二人の弟子集団」として広く定義し、彼らもまた福音伝道の召命を受けた（ルカ10:1.17）。七十二はイスラエル全体を意味する十二の六の倍数であり、聖霊降臨によって実現するペンテコステ共同体を暗示的に見据えた数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そして、イエスに従った多数の女性たちも弟子集団に属している（ルカ8:1-3）。弟子集団とは別に、イエスの家族もイエスに従った群衆に含まれる可能性がある（使徒2:14）。

女性たち：「イエスの追隨者」というカテゴリー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女性としては、イエスの臨終と葬儀を見守り、空の墓を確認したマグダラの MARIA、ヤコブとヨセフの母 MARIA、サロメ（マルコ15:40-47; 16:1-8; マタイ28:1-2; ヨハネ20:14-18）、イエスの母 MARIA、イエスの叔母、グレオパの妻 MARIA（ヨハネ19:25）、イエスの世話したマグダラの MARIA、クザの妻ヨハンナ、スサンナ（ルカ8:1-3）、そして在家の弟子 MARIA とマルタ（ルカ10:38-42）がいる。

イエスに従った女性たちは多様であった。MARIA やマルタのような堅気の女性から、罪人の中の罪人であるサマリア人女性、生涯出血に苦しんでいた女性、石を投げられて死んで当然の娼婦まで。これらすべては、イエスに従った女性たちの間にいかなる意味での差別もなかったことを意味し、そのような平等な関係は完全にイエスが作り出したものである。イエスの時代における女性たちは、社会的に活動できる幅が非常に制限されており、イエスに従った女性たちのように先生と一緒に伝道旅行に出かけることはなかった。女性たちは、ガリラヤ時代はもちろん（ルカ8:1-3）、エルサレムで十字架につけられたイエスの臨終まで見守った（マルコ15:40-41）。

罪人、病人、異邦人：マタイ福音書11章19節を見ると、イエスにつけられたあだ名が登場する：「見ろ、大食漢で大酒飲みだ。徴税人や罪人の仲間だ」これは特にイエスの敵対者たちからつけられたものであり、歴史的な信憑性が保証される呼称である。律法学者の見解によれば、律法を厳格に守る者だけが義人の仲間入りを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イエスの周りには、病人、悪霊に取り憑かれた人、女性、異邦人（マルコ7:24-30; マタイ8:5-13; ルカ7:1-10; ヨハネ4:43-54）、サマリア人など、律法に規定された罪人¹⁾が人だかりをなして集まった。ユダヤ人は、すべての病気は罪に起因すると考え（マルコ2:5-7）、サマリア人は異邦人の奴隷よりも一段低い扱いを受け（シラ書50:25-26）、商売を禁じられていた（ルカ17:11-19; ヨハネ4）。

12제자는 예수와 함께 길을 떠났고, 때로는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파견된다(마르 6,7-13). 서기 53-58년경에 씌어진 바울로의 고린도 서간을 염두에 둘 때 ‘12제자’ 체제는 예수가 부활.승천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다(1고린 15,5-8).

제자단: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제자가 된 후에도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 계속 살았던 이들이 있다, 재가在家 제자들이다. “예수가 등장하는 곳곳에서 지지자들이 생겼다. 그들은 자기네 가족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리며 예수와 예수의 사자 使者 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온 나라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된다. 특히 갈릴래아에는 물론이고, 예컨대 베타니아, 유대아, 또는 데카폴리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마르 5,19-20).” 재가 제자들의 이름을 꼽아보면, 산헤드린의 의원이며 후에 예수에게 자기 무덤까지 양보한 아리마테 요셉(마르 15,42-47), 예수를 찾아와 가르침을 받은 바리사이파 유력 인사인 니고데모(요한 3,1-21), 세리장 자캐우스(루가 19,1-10), 예수의 제자이자 친구로도 불린 나자로 등이 있다(요한 11,1-42).

다음으로 예수가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녔던 이들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출가 出家 제자). 우리가 본격적인 의미에서 제자단이라고 할 때는 보통 출가 제자를 뜻한다. 예수의 제자단에 비단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확정된 집단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훨씬 더 많았다. 복음서 중에서 ‘제자’(마테테스)라는 말이 ‘12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쓰이는 책이 오직 마태오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예수의 제자단을 12명에 국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와 동행했던 인물로, 글레오파(루가 24,18)와 바르사빠 요셉과 마티아(사도 2,23-26)와 요한계 문헌에만 등장하는 예수의 애제자 (요한 13,23-26; 18,15-16; 19,26-27; 20,2-10; 21,7.20-23)가 있다. 특히 루가는 12제자와 구분되는 제자들을 ‘72인 제자단’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고, 이들 역시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았다(루가 10,1.17). 72는 전체 이스라엘의 뜻하는 12의 6배수로,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질 오순절 공동체를 암시적으로 내다본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다수의 여성들도 제자단에 속한다(루가 8,1-3). 제자단과는 별도로, 예수의 가족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사도 2,14).

여인들: ‘예수의 추종자’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여인들로는, 예수의 임종과 장례를 지켜 봤고 빈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마르 15,40-47; 16,1-8; 마태 28,1-2; 요한 20,14-18),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요한 19,25), 예수의 수종을 든(시종을 든?) 막달라 마리아, 쿠자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루가 8,1-3), 그리고 재가 제자인 마리아와 마르타가 있다(루가 10,38-42).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은 각양각색이었다. 마리아와 마르타와 같은 여염집 아낙네로부터 죄인 중의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 평생을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창녀까지. 이들 모두는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사이에 어떤 유의 차별도 없었음을 뜻하며, 그런 평등한 관계는 전적으로 예수가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폭이 몹시 제한되어 있었고,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처럼 선생과 동반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법은 없었다. 여인들은 갈릴래아 시절은 물론(루가 8,1-3)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임종까지 지켜보았다(마르 15,40-41).

죄인, 병자, 이방인: 마태 11,19에 보면 예수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나온다: “보아라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이는 특히 예수의 적대자들로부터 붙여진 것들이기에 역사적인 신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명칭들이다. 율사의 견해에 따르면 모름지기 율법을 치밀하게 지키는 자만이 의인의 대열에 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 주변에는 병자, 귀신들린 사람, 여인, 이방인(마르 7,24-30; 마태 8,5-13; 루가 7,1-10; 요한 4,43-54). 사마리아인 등등 율법에 규정된 죄인들¹⁾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고(마르 2,5-7 참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노예보다도 한 단계 낮게 취급되어(집회 50,25-26) 상종을 금했다(루가 17,11-19; 요한 4장).

彼らは皆、イエスにそれぞれの願いを抱いて近づいた人々であり、イエスは彼らの願いをすべて叶え、今まで不当に背負っていた罪人の枷を取り去ってくれた。

宗教指導者: 先に挙げた女、罪人、病人、異邦人など疎外された人々以外に、社会の指導者層もイエスに従った。特にユダヤ人の最高議会であるサンヘドリン議員であったアリマタヤのヨセフ（マルコ15:42-47）やファリサイ派の指導者であるニコデモ（ヨハネ3:1-21）は、イエスに熱心に従った人々であった。一方、イエスを自分の家に招いた名前のないファリサイ派（ルカ11:37）、娘を癒すためにイエスの前にひざまずいた会堂長のヤイロ（マルコ5:21-23）、イエスと弟子たちが同じテーブルに座って食事をするのを見て怒りを爆発させたファリサイ派の律法学者（マルコ2:15-17）がいる。イエスは主に宗教指導者たちと論争を繰り広げたが、その論争が行われる過程は、イエスも律法学者たちの教育方法を熟知していたという事実を証明している。

イエスの追従者の中に宗教指導者が多く含まれていたことは明らかな事実である。しかし、私たちは彼らが主にイエスと敵対関係にあったという印象を受けるが、そうなった理由は、福音書記者の歴史観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福音書記者は、イエスを十字架に処刑した人々がまさにユダヤ教の宗教指導者であったことに執着し、一貫して彼らを否定的に描写することに全力を注いだ。しかし、複雑な律法の知識や論理的な問いにおいて、イエスの対話相手は常に宗教指導者であったという事実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律法学者やファリサイ派は、律法の知識に縛られて生きる人々であったため、論理的な説明がなければイエスの教えを受け入れなかった。したがって、目に見える奇跡で彼らを説得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マルコ8:11-13）。

-
- 1) イエスと同時代のイスラエルでは、律法によってすべての人が義人と罪人に分けられた。徴税人、牧童、漁師、娼婦、屠肉・皮革製造者、医者、高利貸し、犬の糞収集人などは、下品な職業であるという理由で罪人と言われた。「最も優秀な医者であっても、その人は地獄に落ちることになっており、どんなに品格のある屠肉・皮革製造者もアマレク人の友人に過ぎない。」（『ミシュナ』、キドゥーシン4:14）特に、医者が罪人扱いされた理由は（正確には「泥棒のような職業」と蔑ろにされた理由は）、金持ちは優遇され、治療費をうまく払えない貧しい人々は疎かに扱われたからだという。一方、生まれながらの罪人もおり、非嫡出子、足が萎えた人のような病人、異邦人、サマリヤ人、そして女は無条件に罪人の枠に入れられた。紀元2世紀頃、ラビ・ヨフダは自分の出自に自ら感動し、次のような言葉を残した。「ユダヤ人は毎日三度賛美を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わたしを異邦人にされなかった方、賛美をお受けください。私を女として創造されなかった方、賛美をお受けください。わたしを（律法に対して）未開人にされなかった方、賛美をお受けください。（『トセプタ』 7:18）

平等の共同体-低みからの平等

イエスは義人と罪人の間において、差別をしなかった。むしろ、罪人を義人よりもあたたかい目でご覧になった方である。そして、イエスにはユダヤ人と異邦人との差別もなかった。イエスはシリア・フェニキアに住んでいた異邦人女性の娘を癒した（マルコ7:24-29）。シリア・フェニキアの女以外にも、イエスが「このような信仰はイスラエルでも見たことがない」と賞賛を惜しまなかったローマの百人隊長（ルカ7:1-10）や、イエスが息を引き取った現場で「この人こそ、本当に神の子であった」と告白した百人隊長も異邦人であった（マルコ15:39）そして、イエスにとって男女の差別などあり得ないことであった。イエスは女性にも平等な教育の機会を与え（ルカ10:38-42）、共同体の暮らしを男性と分担し（ルカ8:1-3）、女性も復活の証人とした（マルコ16:1-8; マタイ28:9-10; ヨハネ20:14-18）。女性も男性と比較しても遜色ない弟子であった。

マタイ9:10-14 イエスが家で食事の席に着いておられたときのことである。そこに、徴税人や罪人が大勢来て、イエスや弟子たちと同席していた。ファリサイ派の人々はこれを見て、弟子たちに、「なぜ、あなたがたの先生は徴税人や罪人と一緒に食事をするのか」と言った。

그들 모두는 예수에게 나름대로 부탁을 안고 다가온 사람들이었고, 예수는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으며, 이제까지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있었던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었다.

종교지도자: 앞서 거론한 여인, 죄인, 병자, 이방인 등 소외자들 외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예수를 따랐다. 특히, 유대인 최고의회인 산헤드린의 위원이었던 아리마테 요셉(마르 15,42-47)이나 바리사이파 지도자인 니고데모(요한 3,1-21)는 예수를 열심히 따르던 이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했던 이름 모를 바리사이가 있고(루가 11,37),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으며(마르 5,21-23), 예수와 제자들이 한 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뜨렸던 바리사이파 율사들이 있다(마르 2,15-17). 예수는 종교지도자들과 주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들이 진행되는 과정은 예수도 율사들의 교육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예수의 추종자 중에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주로 예수와 적대 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렇게 된 이유로 복음서 작가들의 사관 史觀 이 한 몫을 크게 차지한다. 복음서 작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이 바로 유대교의 종교지도자들이었다는 점에 집착해, 한결같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복잡한 율법 지식이나 논리적인 질문에서 예수의 대화상대는 언제나 종교지도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율사나 바리사이들은 율법 지식에 얽매어 사는 사람들이었으니 만치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시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노릇이었다(마르 8,11-13)

1) 예수와 동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되었다. 세리, 목동, 어부, 창녀, 백정, 의사, 고리대금업자, 개똥수거꾼 등은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여 죄인으로 취급받았다: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으며, 아무리 품위 있는 백정도 아말렉 사람의 친구일 뿐이다.”(『미슈나』, 키두신 4,14) 특히, 의사가 죄인 취급을 받은 이유는(정확히 말해 ‘도둑질과 같은 직업’으로 천대받는 까닭은), 부자는 우대하면서도 치료비를 잘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소홀히 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아예 태생 죄인도 있어 사생아, 앓은뱅이 같은 병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죄인 축에 끼었다. 기원 2세기경에 랍비 여후다는 자신의 출신 성분에 스스로 감동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유대인은 매일 세 번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은 이여, 찬양을 받을지어다. 나를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이여, 찬양을 받을지어다. 나를 (율법에 대해) 미개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여, 찬양을 받을 지어다.”(『토세프타』 7,18)

평등의 공동체 – 낮은 곳에서 평등

예수는 의인과 죄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죄인을 의인보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분이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도 없었다. 예수는 시로페니키아에 살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다(마르 7,24-29). 비단 시로페니키아 여인 외에도 예수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로마인 백부장(루가 7,1-10)이나, 예수가 숨을 거두는 현장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한 백부장 !” (마르 15,39)도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예수에게 남녀의 차별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예수는 여성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루가 10,38-42), 공동체의 살림을 남성들과 나누어 맡겼으며(루가 8,1-3), 여성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었다(마르 16,1-8; 마태 28,9-10; 요한 20,14-18). 여성도 남성과 비교할 때 손색없는 제자였다.

마태 9,10-14: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イエスはこれを聞いて言われた。「医者が必要とするのは、丈夫な人ではなく病人である。『私が求めるのは慈しみであって、いけにえではない』とはどういう意味か、行って学びなさい。私が来たのは、正しい人を招くためではなく、罪人を招くためである。」

イエスがある家で食事をしたとき、多くの徴税人と罪人も一緒に席についた。すると、ファリサイ派がイエスに問いただした。「なぜ、あなたの先生は、徴税人と罪人と一緒に食事をするのですか。」このことから、義人と罪人は本来、一緒に食事をするのができない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まるで朝鮮時代における身分制度があるかのようである。しかし、内情は違う。イスラエルは皆、神の子であるため、一緒に食事をするのを禁じていない。しかし、口にする食べ物は違う。イスラエルの律法であるモーセ五書によると、口にできる食べ物とそうでない食べ物を厳密に区別しており（レビ記11章:食物規定）、例えば、ひづめが割れていて、反芻する動物は食べることができるが、どちらか一つでも満たさなければ口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例えば、ひづめが割れ、反芻する牛は食べることができるが、ひづめは割れているが反芻しない豚は食べることができない。イエスが食事をした場所は罪人の家であっただろうし、その場にいたファリサイ派は、律法が禁じている食べ物をよく食べていた罪人、徴税人、売春婦などと同じ席でイエスが食事をする姿を不愉快に思っただろう。だから、「あなたの先生は、どうして徴税人や罪人と一緒に食事をするのですか」と問うのである。

イエスは、たとえ在野の人物ではあったが、厳然なヤハウエの宗教の指導者の一人であったので、「義人」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った。しかし、罪人たちと一堂に会して食べ物を分かち合ったのは、非常に破格的な行動であった。そのような行為は、ファリサイ派の不満を呼び起こすのに十分であった。しかし、イエスの立場は確固たるものであった。そうであれば、これに対するイエスの応答もその文脈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実際、私は義人ではなく、罪人を呼びに来た」イエスの食卓には誰でも来て座ることができる。福音書を見ると、追隨者がイエスを自分の家に招いて食事を振る舞ったという話がよく出てくる。その中で、義人を自称するファリサイ派の招待を受け入れて食事を共にしたこともあったが（ルカ11:37-54;14:1.12）、誰もが認める罪人である徴税人の招待にも快く応じた（マルコ2:15-17）。それだけではない。ローマに隷属してユダヤ人を収奪する悪名高い徴税長ザアカイの招待さえもイエスは受け入れた（ルカ19:1-10）。仮に罪人の家に入り、律法が禁じている食べ物を口にしても何の問題も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イエス自身、「外から人に入って、人を汚すことのできるものは何もなくて、人から出て来るものが人を汚すのである。」（マルコ7:15）と述べている。

イエスの食卓が持つ特徴は平等にある。誰でも一堂に会して一緒に食事をするのであり得る。そして、平等の基準が罪人にあるという点が目立つ。イエスは決して義人と罪人の中間のような場所、あるいは誰もが満足できる次元の新しい食卓を用意したわけではなく、ただ単に罪人たちと一緒にくつろげる食卓を望んでいた。その席が苦手なファリサイ派や律法学者の立場を考慮しないのである。平等は最も低みにおい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なぜなら、イエスは義人ではなく、罪人に呼びかけるために来たからである。「健康な者には医者はいらないが、病人には必要な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非暴力の共同体 - 和解のメシア

弟子たちは、共同体の中核メンバーとして、三年間の公生活を通して、イスラエル全域で急上昇したイエスの人気を経験し、いよいよ政治・宗教の中心地であるエルサレムに行進するイエスから大きなエネルギーを感じた。そこで、エルサレム入城直前に次のようなお願いをする。弟子のヤコブとヨハネがイエスを訪ねてきて、新しく国を建てるときに自分たちを左右に座らせてほしいと。密かに自分たちの席（位置）を願い出たのである。すると、イエスは、こう答えた。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가 어느 집에서인가 식사를 했고 많은 세리와 죄인도 한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예수에게 시비를 건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이들 두고 의인과 죄인은 원래 겸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마치 조선시대 반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속 사정은 다르다. 이스라엘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같이 밥 먹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먹는 음식은 다르다. 이스라엘의 율법인 모세오경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엄격히 구분했는데(레위 11장: 음식규정), 이를테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는 먹을 수 있지만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먹을 수 없다. 예수가 식사를 한 곳은 죄인의 집이었을 테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사이들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곧잘 먹었던 죄인, 세리, 창녀 등과 한자리에서 예수가 식사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였다.

예수는 비록 재야의 인물이기는 했어도 엄연한 야훼 종교의 지도자 중 하나였으니 ‘의인’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죄인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눈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그런 처사들은 바리사이의 불평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예수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도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의 식탁에는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다. 복음서에 보면 추종자들이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그중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아들여 식사를 나눈 적도 있었지만(루가 11,37-54;14,1-12)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인 세리의 초대에도 선선히 응했다(마르 2,15-17). 어디 그뿐인가. 로마에 빌붙어 유다인을 수탈하는 악명 높은 세리장 자케우스의 초대마저 예수는 받아들였다(루가 19,1-10). 설혹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더라도 하등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이다. 예수 스스로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5)로 한 바 있다.

예수의 식탁이 갖는 특징을 평등에 있다. 누구라도 한자리에 모여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등의 기준이 죄인에게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수는 결코 의인과 죄인의 중간쯤 되는 곳 어디인가, 혹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원의 새로운 식탁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저 죄인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식탁을 원했다. 그 자리가 거북한 바리사이나 율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평등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한 법이다.

비폭력 공동체 - 화해의 메시아

제자들은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삼 년의 공생활 내내 이스라엘 전역에서 치솟은 예수의 인기를 경험했고 바야흐로 정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예수에게서 엄청난 기운을 느꼈다. 그래서 입성하기 직전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한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찾아와 새롭게 나라를 세울 때 자신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한다. 은밀하게 자리 부탁을 한 셈이다. 그러자 예수는 답한다.

マルコ10:39-40 彼らが、「できます」と言うと、イエスは言われた。「確かに、あなたがたは、私が飲む杯を飲み、私が受ける洗礼(バプテスマ)を受けることになる。しかし、私の右や左に座することは、私の決めることではない。定められた人々に許されるのだ。

当時、イスラエルには強力なメシア出現への期待が高まっていた。イスラエル統一王国を樹立したダビデの後を継いで再び強大な国をつくる人物を期待する思想で、メシア待望思想と呼ばれる。ところが、この期に及んで強力なカリスマ性を持ったイエスが登場し、イスラエルを振り回したのだから、十分にイエスをメシアとみなすことができた。つまり、イスラエルにとってメシアとは、支配者であるローマ帝国を武力で追い出し、窮地に陥った民を救う政治的メシアだったのである。そこにイエスが群衆と一緒にエルサレムに進撃したのだから、いよいよ時が来たという期待をするのは当然であった。しかし、イエスの立場は全く異なっていた。イエスは神の国が弟子たちの期待とは全く異なるという事実を強調し、すでに何度もそのことを暗示していたのである。

弟子たちが「誰がいちばん偉いか」という問題で道中に論争を繰り広げると、イエスはむしろ「いちばん先になりたい者は、すべての人の後になり、すべての人に仕える者になりなさい。」(マルコ9:35)と言われ、天から軍隊を呼び寄せて人々に見せつけようという言葉にも、イエスは反対の意向を明らかにする。「私が父にお願いできないとでも思うのか。お願いすれば、父は十二軍団以上の天使を今すぐ送ってくださるであろう。しかしそれでは、必ずこうなると書いてある聖書の言葉がどうして実現されよう。」(マタイ26:53-54)抜いた剣も鞘に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が、「剣を取る者は皆、剣で滅びる。」(マタイ26:52)からである。

イエスが社会を裁く方法を見ると、まず支配者に対する批判が目立つ。イエスは領主ヘロデを指して「狡猾な狐」と呼び(ルカ13:32)、「豪華な衣服を着た人々」といって贅沢な暮らしに溺れている王族を皮肉り(マタイ11:8)、ヘロデに不当に殺された洗礼者ヨハネを称賛した(マタイ11:11)。ヘロデの支持勢力である「ヘロデ派」は、イエスを困らせようとローマに納める税金の問題で敵対的な問いを投げかけ(マルコ12:13-17)、イエスを排除しようとファリサイ派と謀議した(マルコ3:6)。そのためかどうかは不明であるが、イエスは「ファリサイ派の人々のパン種とヘロデのパン種に十分気をつけなさい」(マルコ8:15)と弟子たちに忠告した。

また、イエスは当時のイスラエル社会の支配構造が持つ矛盾を批判する。イエスの側近となり、国家が転覆したら一角を占領しようとした弟子たちに、イエスはむしろ仕える人になるように告げる。実際、統治者たちは君臨し、高官たちは世渡りをする。「あなたがたも知っているように、諸民族の支配者と見なされている人々がその上に君臨し、また、偉い人たちが権力を振るっている。しかし、あなたがたの間では、そうではない。あなたがたの中で偉くなりたい者は、皆に仕える者となり、あなたがたの中で、頭になりたい者は、すべての人の僕になりなさい。」(マルコ10:42-44)この言葉は、支配／被支配が持つ構造的な矛盾を指摘した言葉と見ることができる。

イエスは武力革命を拒否し、これはイエスをメシアとして仰いだ周囲の期待を裏切ることであった。そのように、イエスの信念が政権の創出にあったわけでは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いわば、イエスに武力革命や国家転覆などの構想はなく、これはイスラエルが期待していたメシア像に反するものだった。イエスが支配／被支配の社会構造を否定し、政治的メシアを拒否したまま非暴力を堅持したのであれば、当時の情緒としては非常に斬新な思想で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文字通り平和を追求したのだから。また、具体的にはローマ帝国の植民地として、宗教権力の犠牲者として、ヘロデ家の被支配者として圧制に苦しんでいたイスラエルの民に、信仰的・霊的な自由を宣言することでもあった。神の国では誰も差別のない愛を受けるということを伝えた。

마르 10,39-40: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 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 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메시아 출현 기대가 있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수립한 다윗의 뒤를 이려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인물을 기대하는 사상으로, 메시아 대망(待望) 사상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참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예수가 등장해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녔으니 충분히 예수를 메시아로 간주할 법했다. 즉,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란 지배자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밀어내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으니 드디어 때가 왔다는 기대를 할 만했다. 하지만 예수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미 여러 차례 그에 대한 암시를 준 적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을 벌이자 예수는 오히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9,35)라 했고, 하늘에서 군대를 불러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말씀에도 예수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마태 26,53-54) 모름지기 뺏던 칼이라도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하는데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하기”(마태 26,52) 때문이다.

예수가 사회를 재단하는 방식을 보면 우선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띈다. 예수는 분봉 왕 헤로데를 가리켜 ‘교활한 여우’라 불렀고(루가 13,32 참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하여 사치한 생활에 빠진 왕족을 은근히 비아냥거렸으며(마태 11,8 참조), 헤로데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세례자 요한을 칭찬했다(마태 11,11 참조). 헤로데의 지지 세력인 ‘헤로데파’는 예수를 곤경에 빠트리려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로 적대적인 질문을 던졌고(마르 12,13-17 참조) 예수를 제거하려 바리사이와 모의를 했다(마르 3,6 참조).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예수는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시오”(마르 8,15)라며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바 있다.

또한,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 구조가 갖는 모순을 비판한다. 예수의 측근이 되어 국가가 전복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던 제자들에게 예수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사실 통치자들은 군림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2-44) 이는 지배/피지배가 갖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예수는 무력 혁명을 거부했고, 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추앙했던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었다. 것처럼 예수의 신념이 정권 창출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예수에게 무력 혁명이라든가 국가전복 따위의 구상은 없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 상과 어긋나는 일이었다. 예수가 지배/피지배의 사회구조를 부정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거부한 채 비폭력을 견지했다면 당시 정서로는 대단히 참신한 사상이었음이 분명하다. 글자 그대로 평화를 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는 로마제국의 식민지로, 종교 권력의 희생자로, 헤로데 가문의 피지배로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 영적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누구도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다.

平等と和解の共同体

イエスは、既得権のユダヤ教に反対し、もう一つの固定化された体制を作ったわけではない。イエスは純粋だった神への信仰が既得権のユダヤ教の影に隠れて真の光を失っているという事実を目撃し、自ら共同体を作った方である。もはや希望がない既得権に背を向け、平信徒に目を向けた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そして「時は満ち、神の国は近づいた。悔い改めて、福音を信じなさい」（マルコ1:15）という宣言を先頭に立ててイエスが起こした風は、荒野からやって来てエルサレムを席卷し、やがて小アジアとヨーロッパ、そして世界各地に吹き荒れた。イエスの福音には疲れることのない活力が含まれており、常に神に向かおうとする気運が湧き出るのである。

イエスが宣言した「神の国」は、その社会的な性格に照らしてみると、階層秩序を基盤とするある意味での組織ではなく、「共同体運動」と規定することが望ましい。神に近づくだけで、どんな障害物も突破できる推進力を持つ勢いある動きになるという意味である。

神の国は支配/被支配の階級的な考え方に合わず、統制を基盤とする権威主義的な社会では決してない。神の恵みがあふれる分かち合いが支配するところである。社会主義の理想そのものは非常に美しいが、革命によって誕生した共産主義国家は失敗を繰り返した。これは官僚主義が横行したためであると思われる。歴史が残した重要な教訓である。イエスにアナキズムに通じる理想を見出したのには、そのような理由がある。

今日の世界は極端な二極化が進んでいる。最も大きな原因は、恥ずかしさを知らない資本主義であり、国家中心の政治秩序がその背景を明確に守っている。歴史上のイエスが成し遂げた共同体が一つの代案として考えられる。三年間の公生涯の後、イエスはついにエルサレムに入城した。イエスを歓迎する群衆の歓声にうんざりしたファリサイ派がイエスに問い詰めた。「先生、お弟子たちを叱ってください」

イエスは答える。「言うておくが、もしこの人たちが黙れば、石が叫ぶだろう。」（ルカ19:40）。

（訳：松山健作）



평등과 화해의 공동체

예수는 제도권 유대교에 반대하여 또 하나의 고착된 체제를 만들지 않았다. 예수는 순수했던 하느님 신앙이 제도권 유대교의 그림자에 가려 참 빛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만든 분이다. 더는 희망이 없는 제도권을 등지고 평신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선포(마르 1,15)를 앞장세워 예수가 일으켰던 바람은 광야에서 몰려와 예루살렘을 휩쓸었고 곧이어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불어갔다. 예수의 복음에는 지치지 않는 활력이 들어있어 언제나 하느님에게 향하려는 기운이 용솨음치게 만든다.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그 사회적인 성격에 비추어볼 때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유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 운동’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느님에게 다가서기만 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세찬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지배/피지배의 계급적 사고방식과 어울리지 않고 통제를 바탕으로 삼는 권 위주의 사회는 결코 아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는 나눔이 지배하는 곳이다. 사회주의 이상은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다우나 혁명을 통해 탄생한 공산주의 국가는 실패를 거듭했고, 이는 관료주의가 득세한 때문으로 보인다. 역사가 남겨준 중요한 교훈이다. 예수에게서 아나키즘과 상통하는 이상을 발견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오늘의 세계는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본주의이고 국가 중심의 정치 질서가 그 배경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역사의 예수가 이룩했던 공동체가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삼 년간의 공생애 끝에 예수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예수를 반기는 군중들의 환호성에 질려버린 바리사이들이 예수에게 따졌다.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습니까?”

예수는 대답한다.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루가 19,40)



主教 エリヤ 金 長煥



私は今までの自分の牧会人生の中で 「教会とは何なのか？」と、問いかけ続けてきました。

教会について、マタイによる福音書 16：18 に「わたしも言うておく。あなたはペトロ。わたしはこの岩の上にわたしの教会を建てる。よみの力もこれに対抗できない。」と記さ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に、聖書はイエス・キリスト！を教会を建てられた方として示しています。キリストはなぜ、教会を建てられたのでしょうか？教会の主であられるイエス様がこの世に来られた理由が分かれば、教会の存在の意味も自然に分かります。マルコによる福音書 1：14-15 には、「ヨハネが捕らえられた後、イエスはガリラヤへ行き、神の福音を宣べ伝えて、時は満ち、神の国は近づいた。悔い改めて福音を信じなさい」と言わ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

イエス様がこの世に来られたのは神の国を建てるためです。

神様は、旧約から続く神ご自身のヴィジョンである「神のみ国を建てるため」自ら宣教師として来られました。その方が、御子イエスです。イエス様はご自分がはじめられた神のみ国を、神のみ国運動共同体である教会を通して続けられるようにされました。教会の存在の理由は、神のみ国を経験し、表して建てていくことです。

「神のみ国を建てていく教会！」宣教とは、神のみ国を建てていく教会の様々な実践です。これを具体的にまとめたものが、聖公会宣教の 5 指標 (5Marks) です。その中から、1 番目と 2 番目の内容を中心に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1. 神の国のよき知らせを宣言すること

最初の宣教指標を正しく実践するためには、先ず神の国について分かることが大事です。神の国は福音の核心的なポイントです。マルコによる福音書 1：14-15 によると、イエスは「ヨハネが捕らえられた後、ガリラヤへ行き、神の福音を宣べ伝えて、時は満ち、神の国は近づいた。悔い改めて福音を信じ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韓国の教会の中には、神の国に対する誤解があります。シャーマニズムの影響による、祝福第一主義が、米国発の福音主義の影響で成功・成長主義が、そして仏教的世界観で神の国を天国-天堂-極楽往生などの来世の意味のみで理解して、教会は孤立してきました。

神の国は神様が治められる領域とその状態を言います。神様が王になって支配する状態です。その国へ入ることが救いです。そして、その国へ入れる方法は悔い改めて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ことで神様の支配を受け入れることです。

教会の中から神の国の福音が回復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によって信仰が正しく建てられ、教会は教会らしくなります。神の国を正しく理解するためには、聖書が語る造り主・神様の元々の計画 Original Plan を正しく知ることが大事です。

イエス様が旧約をまとめ要約されたみ言葉に神様の Original Plan が紹介されてい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 22：36-40 に、³⁶「先生、律法の中で、どの掟が最も重要でしょうか。」³⁷ イエスは言われた。『心を尽くし、精神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³⁸ これが最も重要な第一の掟である。³⁹ 第二も、これと同じように重要である。『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しなさい。』⁴⁰ 律法全体と預言者は、この二つの掟に基づいている。」と記されています。

このみ言葉をもとにして、神様の元々の計画について整理してみました。

주교 엘리야 김 장환



목회를 하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마태오복음 16 장에 나옵니다.

마태 16:18,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세우셨나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 1:14-15,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 하느님의 비전인 하느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느님 자신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 나라 운동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드러내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선교란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제반 실천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성공회선교정신 5Marks 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선교정신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르코 1:14-15,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한국교회 안에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기복주의가, 미국발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성공주의와 성장주의가,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천국 -천당-극락왕생- 내세로만 이해하면서 교회는 고립되어 왔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상태를 말합니다. 하느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느님의 원래 계획 Original Plan 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총정리하시면서 요약하신 말씀에 하느님의 original plan 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오 22:36-40, 36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37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39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40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이 말씀으로 하느님의 원래 계획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わたしたちに向けられる神様の元々の計画

(1) 1 番目の計画 – 神様は私たちが神様との人格的な関係を結ぶように創造されました。

マタイ 22 : 37 に、イエスは言われた。『心を尽くし、精神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

このみ言葉の前提は神様が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親が自分の子どもを愛するように、創り主はご自分の似姿として創られた人を愛しておられます。その愛がよく表現されたみ言葉を一つ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

ゼファニヤ 3 : 17 お前の主なる神は、お前のただ中におられ、勇士であって勝利を与えられる。主はお前のゆえに喜び楽しみ、愛によってお前を新たにし、お前のゆえに喜びの歌をもって楽しまれる。

(2) 二つ目の計画 – 神様は私たちが自分自らを愛す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マタイ 22 : 39 第二も、これと同じように重要である。『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しなさい。』

自分を愛するという事は自分のあるがままを、自分で受け入れることです。自己肯定感とも言えると思います。環境と置かれた状況によって自分を判断しないで創り主でおられる神様の目線で自分自らを見るのです。親の愛情をたっぷり受けて成長する子どもたちのほうが自己肯定感が高いことと一緒です。

(3) 三番目の計画 – 神様は私たちが隣人を愛す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愛情を十分に受けて成長した子どもたちは寛大で優しいです。神様の愛を通して自分を愛する人は他人も愛し仕えます。

(4) 四番目の計画 – 神様は私たちが、この世をよく経営す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創世記 1 : 26 神は言われた。「我々にかたどり、我々に似せて、人を造ろう。そして海の魚、空の鳥、家畜、地の獣、地を這うものすべてを支配させよう。」

ここで、支配するという言葉について正しい理解が必要です。韓国社会の中では「支配する」という言葉を否定的に受け取ります。維新独裁、軍事独裁など歴史的な経験のためです。聖書が語る支配とは、その対象を最高の状態に養い育てることです。神様はそのように、私たちと共に治め、支配しておられます。

わたしたちに向かわれる神様の元々の計画は、わたしたちがこの四つの関係の中でバランス整った愛を実践し合って生きることです。これがまさに神の国の形です。エデンの園がそのモデルです。

2) ところが私たちの現実はどうでしょうか。

私たちが生きるこの世界はこの四つの領域から壊れていくことを明確に見せてくれます。

(1) 神様を無視しています。

神様から授かった人生の法則を軽んじます。

ポストモダニズム → 絶対的価値はないという現代社会を支配する価値観が進化論に基づいた無神論。物質+偶然+時間：人生の目的と意味を喪失する。

(2) 自己疎外

コンプレックスと怠惰、中毒。人間は神様との関係が途切れたことで4つのPを人生目的として生きていきます。— 快楽(Pleasure)、名誉(Prestige)、権力(Power)、財産(Property) – 満足がない。欲望という名の戦車に乗って…コンプレックスと高慢のシーソーのギッタンバッコンをしながら、尊い価値がある人生をかじり食っています。

(3) 対象化と疎外

ハラメントの社会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人は利用対象にすぎません。嫉妬と妬み、恨み。神様との関係が切れてしまい自分の人生に感謝がない人間は隣人との関係が壊れてしまいます。

1)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원래 계획

(1) 첫 번째 계획 - 하느님은 내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마태오 22:37,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의 전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창조주 하느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봅시다. 스바니아 3: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개역)

(2) 두 번째 계획 - 하느님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오 22:39,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것과 같습니다.

(3) 세 번째 계획 - 하느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타인에게 너그럽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4) 네 번째 계획 - 하느님은 내가 세상을 잘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6,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한국사회는 '다스린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신독재, 군사독재 등 역사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다스림은 그 대상을 최고의 상태로 가꾸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이 네 가지 관계에서 조화롭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에덴이 그 모델입니다.

2)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깨어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 하느님을 무시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삶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 절대 가치는 없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진화론에 기초한 무신론이다. 물질+우연+시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

(2) 자기 소외

자기 열등감과 태만, 중독. 사람은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4P 을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 쾌락(Pleasure), 명예(Prestige), 권력(Power), 돈.재물(Property) - 만족이 없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 열등감과 교만의 시소를 타면서 존귀한 인생을 값어 먹는다.

(3) 대상화와 소외

갑질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용대상일 뿐입니다. 질투와 시기, 증오.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자기 삶에 만족과 감사가 없는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4) 不義で腐敗した社会構造と環境破壊

新自由主義の極端的両極化 — 正規職、非正規職 — 1%と99%。腐敗して不義な社会構造で、神様の正義と公平が無視され、世界が嘆いています。環境破壊による環境の時計は既に終末に着いてきています。

3) 聖書はこのすべてのことが罪によるものだと言います。

わたしたちは本能的に自分が主人（主観者）となって神様と神様が建てられた人生（生き方の原則）を無視する傾向があります。すべての世界（この世）の主である神様に対する反逆です。聖書はこのような態度を罪と言います。SIN – I Centeredness.

イザヤ書 59:2 むしろお前たちの悪が、神とお前たちとの間を隔て、お前たちの罪が神の御顔を隠させ、お前たちに耳を傾けられるのを妨げているのだ。／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 3:23 人は皆、罪を犯して神の栄光を受けられなくなっています。先端科学の総集合体である飛行機を見ると一番大事なものはエンジンであるように、わたしたち人間には神様との関係が最も中心であり、一番大切な部分だと思えます。この関係が正しくなければ私たちの人生のすべての領域から問題が生じると思えます。人間は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様々な方法を選んできました。思想、哲学、理念、社会主義実験など。しかし、一番中心的な問題が解決されない限り、失敗するしかありません。

4) 神様の解決方法 – イエス・キリスト

イエス・キリストはわたしたちの罪のためにご自分で自らが代価を支払われました。

ローマ書 6:23 罪が支払う報酬は死です。しかし、神の賜物は、わたしたちの主キリスト・イエスによる永遠の命なのです。／ヨハネによる福音書 14:6 イエスは言われた。「わたしは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る。わたしを通らなければ、だれも父のもと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

神様は独り子を犠牲とされました。それほどわたしたちを愛されて、わたしたちが神様を知り神様を愛する人生を生きるようにするためです。根本的な関係を回復し、その他すべての関係を回復するための神様の方法です。

ローマ書 5:8 しかし、わたし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とき、キリストがわたし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神はわたし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ました。

神様が王になって支配する、その国に入って生きる生き方が最善で最上だとしました。わたしたちを無条件的に愛しておられる神様を知り、神様との人格的な関係の中でひたすら神様のみ言葉通り生きていくからです。それで神の国が福音になるわけです。イエス様を信じて神様を王として仕える神の国の民になって神様に礼拝をささげて、一つの体である皆が共に創り主でおられる神様の元々の計画 Original Plan を成し遂げていく生き方がキリスト教です。「証しする」、「宣べ伝える」とは、私たちが神の国の豊かさを享受しているため、自然に証しができることを言います。

広告の観点から見れば、広告を通して「とても良い」とか「素晴らし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感じます。そのように、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で神様が主となる生き方を生きることが最高に良いのに…」、まさしくその生き方を現す個人、そして神の国を現す共同体である教会です。それを広告する礼拝の現場、互いに愛し合う現場である小グループの重要性についても考えられます。

派遣礼 – 日常が神の御国である。“わたしたちの行いが最高の福音伝道です”（聖フランシス）

2. 新しい信徒を教え、洗礼を授け養うこと

個人の生き方や教会共同体を通して神の国が表されると人々はその神秘について問いかけてきます。

(4)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 구조와 환경 파괴

신자유주의 양극화 - 정규직, 비정규직 - 1%와 99%. 부패하고 불의한 사회구조로 하느님의 정의와 공평이 무시되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로 환경시계는 이미 종말에 와 있습니다.

3) 성서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느님과 하느님이 세운 삶의 원칙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서는 이런 태도를 죄라고 합니다. SIN - I Centeredness.

이사야 59:2,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느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가려 너희 청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이다. /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첨단과학의 총애인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상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해왔습니다. 사상, 철학, 이념, 사회주의 실험 등. 하지만, 가장 중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하느님의 해결 방법 -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6:23,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 요한 14:6,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느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나머지 관계를 회복해가기 위한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8,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삶이 최선이고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느님께 예배드리며 지제들과 함께 창조주 하느님의 원래 계획 Original Plan 을 이루어 가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증거한다,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에 저절로 증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 - 참 좋은데,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느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게 최고 좋은데.... 바로 그 삶을 보여주는 개인,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예배와 서로 사랑의 현장인 소그룹의 중요성!

파견례 - 일상이 하느님의 나라. “우리의 행동이 최고의 선포입니다.”(성 프란시스)

2. 새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주고 양육합니다.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신비를 질문해 옵니다.

ペトロの手紙Ⅰ 3:15 心の中でキリストを主とあがめなさい。あなたがたの抱いている希望について説明を要求する人には、いつでも弁明できるように備えていなさい。

このような人たちに福音を伝えて、イエス様を受け入れれば新しい信徒になるわけですが、新しい信徒向けの働きの中で最も大事なことは回心の働きです。点をつけることで線が引けるように、イエス様をキリストとして信じ、神様を自分の王として仕えることを決断する回心こそが信仰人として育つ養育に繋がるのです。それで、1番のほうから提示している神の国の福音の提示と理解、そして決断が絶対的に必要となることです。

このように主との人格的な関係が成立された時、主の養育が始まるのです。新しい信徒のために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おっしゃったみ言葉があります。「わたしの羊を養いなさい」(ヨハネ 21:15~17)。英語の聖書を見ると3つの表現が出ています。Then feed my lambs, Then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sheep. Feed. 食べさせ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羊たちに食べさせる物は何でしょう。それはみ言葉です。

ペトロの手紙Ⅰ 2:2 生まれたばかりの乳飲み子のように、混じりけのない^{した}霊の乳を慕い求めなさい。これを飲んで成長し、救われ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

信仰生活の中で、み言葉は絶対的に重要です。

テモテへの手紙Ⅱ 3:16 聖書はすべて神の霊の導きの下に書かれ、人を教え、戒め、誤りを正し、義に導く訓練をするうえに有益です。

信徒は愛を持って仕え、み言葉を持って成長するように育むことです。これが聖職者と役職を持つ奉仕者の役割です。聖書は聖職者の役割について牧者で教師であると言います。

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 4:11 そして、ある人を使徒、ある人を預言者、ある人を福音宣教者、ある人を牧者、教師とされたのです。

「牧者」と「教師」の前には、定冠詞が一つです。「牧者であり教師である」とも訳すことが出来ます。

聖職者を、教会の牧者と教師として立てられた目的が次に出てきます。

一つは信徒個人個人が成熟な人になることです。

13節 ついには、わたしたちは皆、神の子に対する信仰と知識において一つのものとなり、成熟した人間になり、キリストの満ちあふれる豊かさになるまで成長するのです。

このみ言葉に出ている成熟した人間という表現は弟子のことを言う言葉です。福音書から出ている「弟子」とは、パウロの書物では完全な・成熟したという表現で紹介しています。成熟した人間、つまり、弟子とはイエス様の人格を備える人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 4:2 一切高ぶることなく、柔和で、寛容の心を持ちなさい。愛をもって互いに忍耐しなさいと記されています。

そして、神様のみ言葉と真理を持って生きる人になることです。

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 4:14 こうして、わたしたちは、もはや未熟な者ではなくなり、人々を誤りに導こうとする悪賢い人間の、風のように変わりやすい教えに、もてあそばれたり、引き回されたり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それで、ついにキリストの完全性にたどりつくようになるのです。これこそが信徒個人個人が持つべき信仰の目標です。ところが信徒から弟子として成熟するということは自然にな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 4:12 を見ると、「適した(準備された)もの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と言います。日本語の聖書の「適した者」は韓国語の改訳聖書には「完全になる」と訳されています。これは、外れた骨を合わせるという整形外科用語です。

1 베드로 3:15,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이런 사람들에 복음을 증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신자가 됩니다. 새신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심사역입니다. 점을 찍어야 선을 그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회심이 있어야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양육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번에서 제시하는 하느님 나라 복음 제시와 이해, 그리고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양육이 시작됩니다. 새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들 잘 돌보아라.”(요한 21:15, 16, 17)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Then feed my lambs, Then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sheep. Feed,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들에게 먹일 양식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1 베드로 2:2,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서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 디모테오 3:16,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제와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성서는 사제의 역할이 목자이고 교사라고 합니다. 에페 4:11,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목자와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목자이며 교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제를 교회의 목자와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는 신자 개개인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 절,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성숙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가 바울서신에서는 온전한, 성숙한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성숙한 사람, 제자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페 4:2,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페 4:14, 그 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 개개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신자에서 제자로 성숙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페 4 장 12 절을 보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온전케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탈골한 뼈를 맞추다”는 정형외과 용어입니다.

英語で弟子は Discipleship で、訓練は Discipline です。つまり、訓練無しで弟子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オリンピックに出場する選手たちはその栄光のため、血のにじむような訓練をします。神の国を作りあげていく宣教共同体を立てていく成熟な信徒になるため継続なる誠実な訓練が絶対的です。訓練されて準備が出来れば、私たちを召された二つ目の目的が遂げられます。

キリストの体が成長することが二つ目の目的です。12 節を見ると「聖なる者たちは奉仕の業に適した者とされ、キリストの体を造り上げていく」となっていますが、信徒が適した者になり、つまりイエス様の人格を通して生まれ、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に結び合わされ各自の役割を担うことから教会は成長するのです。

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 4：16 キリストにより、体全体は、あらゆる節々が補い合うことによってしっかり組み合わされ、結び合わされて、おのこの部分は分に応じて働いて体を成長させ、自ら愛によって造り上げられてゆくのです。

信徒一人一人が霊的に成熟して、教会が私たちの聖公会の宣教指標 5Marks を実践する宣教共同体になることが、主が私たちを呼ばれた理由でこれがまさにこの時代の「弟子の道」です

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

マタイ 28：19-20 だから、あなたがたは行って、すべての民をわたしの弟子にしてください。彼らに父と子と聖霊の名によって洗礼を授け、20 あなたがたに命じておいたことをすべて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わたしは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あなたがたと共にいる。

このことで私たちは牧者と教師になって、信徒一人一人を養育し、彼らが弟子となるまで出産の苦しみを経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コロサイの信徒への手紙 1：28 このキリストを、わたしたちは宣べ伝えており、すべての人がキリストに結ばれて完全な者となるように、知恵を尽くしてすべての人 (Everyone) を諭し、教えています。／ガラテヤの信徒への手紙 4：19 わたしの子供たち、キリストがあなたがたの内に形づくられるまで、わたしは、もう一度あなたがたを産もうと苦しんでいます。

“神のみ国の福音によって回心された人たちがキリストに習い、

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を、神のみ国の運動共同体として立てていけるようにすることが私たちの使命です”

영어로 제자는 Discipleship이고 훈련은 Discipline입니다.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의 영광을 위해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선교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 꾸준하고 성실한 훈련이 절대적입니다. 훈련되어 준비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12 절을 보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서, 즉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자라나게 됩니다. 에페 4:16,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가 우리 성공회 선교정신 5Marks 를 실천하는 선교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마태오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자와 교사가 되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며 그들이 제자가 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골로 1:28,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느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 Everyone 을 경고하며 가르칩니다. / 갈라 4: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하느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몸인 교회를 하느님 나라 운동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主教 ルカ 武藤 謙一



はじめに

日本聖公会九州教区主教の武藤謙一と申します。私に与えられたテーマは「神との和解」(宣教の5指標①②)となっています。ご存知のように宣教の5指標①は「神の国のよき知らせを宣言すること」であり、②は「新しい信徒を教え、洗礼を受け、養うこと」です。「神との和解」とこの二つの指標をどのように結び付けて発題するのか悩みました。

「神との和解」とこの二つの宣教指標とが直接結びつく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日本聖公会のこれまでの歩みを振り返り、そのなかで日本聖公会として悔い改めを求められた三つの事、日本聖公会第38(定期)総会における部落差別発言、日本聖公会戦争責任に関する宣言、そして日本聖公会「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声明、これ等を「神との和解」の出来事として受け止めて発題といたします。

1 日本聖公会第38(定期)総会における部落差別発言

1983年5月19日開催の日本聖公会第38(定期)総会において、当時の東京教区信徒代議員の中川秀恭氏による部落差別に基づく結婚差別発言がありました。当時の「現行祈祷書中の『天皇』の字句と諸祈祷中の『天皇ため』『皇室のため』を削除する」という議案の審議のなかで、中川氏は「わたしは振り返ってみますと、自分の娘を部落の人だと分かっている所へ嫁にやるかという、躊躇するに違いありません」と発言したのです。総会の中で部落差別発言であると指摘され、本人は遺憾の意を表明し、発言の削除を求めました。総会后に部落差別問題委員会が中心になって事実確認や研修会を開催し、また本人への啓発がなされましたが、決して十分ではなく、本人への啓発も断念せざるを得ない状況となりました。そして12年を経過して1997年に「総括報告書」が出されました。その中で明らかにされていることは、この出来事は単に個人の差別意識に基づくものではなく、日本聖公会のうちにある差別体質が明らかになった出来事であるという認識です。この総括報告書において主教会は今後の取り組みとして以下のことを掲げました。

1. 管区に人権問題担当者を置き、管区レベルの人権啓発のための研修の立案実施、また『同和問題』に取り組む宗教教案連帯会議など諸宗教、部落問題に取り組む基督教連帯会議などキリスト教諸教団との連帯強化。2. 各教区に人権問題担当者を置き、各地域の人権の課題に取り組む。3. 中川差別発言の事実認識を深め聖公会の差別体質克服の研修の実施。4. 神学校での人権に関する学びの促進。5. 「狭山事件」の再審請求運動への参加。6. 主教会のなかに人権担当主教をおく。主教会、総会での人権の学びの実施。以後、決して十分とは言えませんが管区、教区レベルでの人権に関わる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ます。特に神学校を卒業して現場に遣わされる人たちに対しては新任人権研修会がなされ、そのなかでこの総括報告書をテキストに学びを行なっています。総会における部落差別発言は、日本聖公会にとって大きな出来事であり、人権に関わる課題を明確に宣教課題として受け止める契機になったと理解しています。

2 聖公会の戦争責任に関する宣言 (第49(定期)総会決議 1996年5月)

日本聖公会は、戦後50年に当たる1995年に宣教協議会を開催し、その成果として翌年に開催された第49(定期)総会にて「聖公会の戦争責任に関する宣言」を可決しました。この宣言において、戦前、戦中に日本国家による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を支持・黙認した責任を認め、その罪を告白し、日本が侵略したアジア諸国の教会に対して謝罪の意思をお伝えし、平和の器として歩むことを決意しました。



주교 루카 무토우 켄이치

시작하며

일본성공회 큐수교구의 주교, 무토켄이치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테마는 [하느님과의 화해](성공회 선교의 다섯 가지 표지1과 2)입니다.

알고 계시듯 선교의 다섯 가지 표지1은[하느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이고, 2는 [새신자를 가르치어 세례를 주고 양육한다]입니다. 이 두 가지와 테마인 [하느님과의 화해]를 어떻게 연결하여 발제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느님과의 화해]와 이 두 개의 선교표지가 직접 연결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성공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일본성공회로서 회개하도록 요청받은 세가지, 곧 일본성공회 제38(정기)총회에 있어서의 부락차별 발언, 일본성공회 전쟁책임에 대한 선언, 그리고 일본성공회[원전 없는 세계를 요구하는 국제협의회성명], 이 세 가지를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을 상징하고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성공회 제38(정기)총회에 있어서의 부락차별 발언

1983년 5월 19일에 개최된 일본성공회 제38(정기)총회에서, 당시 동경교구 평신도 대의원인 나카가와 히데야스씨의 결혼과 관련된 부락차별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현행 기도서 가운데 ‘천황’이라는 문구, 또 기도문에 사용된 ‘천황을 위해’ 와 ‘황실을 위해’라는 표현을 제거한다]라는 의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나카가와씨가 [내 딸을 부락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된 곳으로 며느리로 보내게 된다면, 분명 나는 보낼지 말지를 망설일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회 가운데 부락차별 발언이라고 지적되었고, 본인도 유감을 표명해 발언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총회 종료 후, 부락차별문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실 확인과 함께 연구회를 개최해, 나카가와씨를 계도하려 했으나 충분하지 못했고, 결국 계도를 단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97년에 [총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해진 것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차별의식에 요인한 것이 아니라, 일본성공회 안에 존재하는 차별의식, 그 체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총괄 보고서에서 주교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과제로서 이하의 것을 제시했습니다.

1)관구에 인권문제담당자를 두어, 관구 레벨에서 인권 계도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 또한 [동화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종교교단연대회의], [부락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기독교연대회의]등 제종교와 그리스도교 제교단과의 연대 강화. 2)각교구에 인권문제담당자를 두어, 각 지역의 인권문제에 적극 관여. 3)나카가와 차별발언의 사실인식에 대한 심화와 성공회의 체질적인 차별문제 극복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4)신학교에서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촉진. 5)[사야마 사건]에 대한 제심청구 운동에 참가. 6)주교회 안에 인권담당 주교를 두고, 주교회와 총회에서 인권 교육을 실시.

이후, 결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구, 교구레벨에서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보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임인권연수회를 실시, 그 안에서 이 총괄보고서를 텍스트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부락차별발언은 일본성공회로서는 큰 사건이었고, 동시에 인권에 관한 문제를 명확한 선교과제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일본성공회 전쟁책임에 대한 선언

일본성공회는 전쟁 50주년을 맞이한 1995년에 선교협의회를 개최해, 그 성과로서 다음해에 개최된 제 49(정기)총회에서 [성공회의 전쟁책임에 대한 선언]을 가결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국가의 의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묵인한 책임을 인정해, 그 죄를 고백하고, 일본이 침략한 아시아 여러나라들의 교회에 속죄의 뜻을 전해, 평화의 도구로서 나아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日本聖公会がこの宣言を決議する背景には大韓聖公会との出会いと交わり、また唯一地上戦が行われた沖縄教区の方々の訴えがあったと理解しています。アジア諸国、ことに長年にわたって植民地支配を受けて来られた大韓聖公会の方々、また在日韓国・朝鮮人の方々とともに歴史を振り返ることによって、また住民の4人に一人が犠牲となり、戦後も日本にある米軍基地の70パーセント以上が置かれ、事後や事件に絶えない沖縄の現実を知ることによって、歴史認識を変えられ、戦後50年という長い時間が経過していましたが、戦争責任告白を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これは日本聖公会の歴史の中の大きな転換点となり、「私たちが平和の器にしてください」が日本聖公会の宣教の基本となりました。「東アジアの平和の実現」という共通の課題に取り組む大韓聖公会との宣教協働もこの宣言が基になっていますし、在日韓国・朝鮮人の方々への取り組みである聖公会生野センターの働きにもつながっているものです。

3 日本聖公会「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声明

2011年3月11日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と津波によって原子力発電所事故が起こったことはよくご存じのことと思います。この事故によって原子力発電は決して安心なエネルギーでは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事故から13年を経た現在も故郷と自然を奪われた方々がおられます。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り解け落ちたデブリは880トンとされていますが、未だに1グラムも取り出すことができず、いつ廃炉となるのか見通しもついていません。今も毎日デブリを冷却した大量の汚染水が溜まり続け、海洋放出がなされています。(日韓聖公会は「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放射能汚染水海洋放出の撤回を求めます」声明文を出しています。)わたしたちは自らのライフスタイルが問われたのです。

日本聖公会は被災者支援活動として「一緒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を設けて活動してきましたが、このプロジェクトの課題の一つとして「原発事故と放射汚染」のことを掲げました。2012年5月の第59(定期)総会では「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て－原子力発電に対する日本聖公会の立場－」を決議し、特別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設けて少しずつ取り組みを始めました。そして2019年には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を開催し、「日本聖公会『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声明」を出し、翌年の日本聖公会総会で、これを日本聖公会全体のものであることを表明しました。現在は、正義と平和委員会のもとに「原発問題プロジェクト」を設けて、取り組みを継続し、核兵器だけでなく「核」そのものがいのちとは共存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日本聖公会の宣教の課題として受け止め、国内外に発信しています。

4 出会いの中でなされる神との和解

今まで取り上げた三つのことは、日本聖公会にとって、それまでの自らの在り方と問われ、悔い改める出来事であり、神との和解の出来事として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ます。

そこに共通するのは、それを気づかせてくれる人々との出会いがあることです。被差別部落に生きる方々、部落解放同盟の方々、部落差別問題に取り組む方々、日本軍が植民地支配したアジアの国々の方、殊に大韓聖公会の皆さん、在日韓国・朝鮮人の皆さん、また沖縄の方々、そして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り被災された方々、それ等の方々と出会い、その声に耳を傾けることによってこそ、悔い改めと和解の出来事が起こるのです。

私に与えられたテーマは、「神との和解」ですが、「神と和解」は、人々との声に耳を傾け、またこの世界の声に耳を傾けることを通してなされるものであり、神、人、自然との和解は個別のものではなく、それぞれが緊密につながっているものです。

人や出来事を通して悔い改めの視点が与えられる。その視点に立って「神の国のよき知らせを宣言し」、「新しい信徒を教え、洗礼を授け、養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と考えます。

日本聖公会の「神との和解」のしるしが、日本聖公会における人権問題担当者の活動であり、これから発題される生野センターの働きであり、正義と平和委員会原発プロジェクトの活動であると受け止めています。

일본성공회가 이 선언을 결의한 배경에는 대한성공회와의 만남과 나눔, 또 유일하게 지상전에 벌어진 오키나와 분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아시아의 여러나라, 특히 오랜 기간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 왔었던 대한성공회의 분들, 그리고 제일 한국/조선의 분들과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또한 주민 4명중 한명이 희생되고, 전후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70% 이상이 주둔해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오키나와의 현실을 알게된 것을 통해, 역사인식이 바뀌어, 전후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전쟁책임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성공회의 역사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십시오]가 일본성공회 선교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임하는 대한성공회와의 선교협동도 이 선언이 토대가 되었고, 또한 제일 한국/조선인 분들을 위한 성공회이쿠노센타의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일본성공회[원전 없는 세계를 요구하는 국제협의회]성명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고로 부터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향과 자연을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연료봉이 880톤이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단 1그램도 꺼내지 못하고, 언제 원자로를 폐쇄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사용된 대량의 오염수가 모아져, 해양방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일성공회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의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물음을 받았습니다.

일본성공회는 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만든 [함께 걷는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해왔고, 이 프로젝트의 과제의 하나로 [원전사고와 방사능 오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12년 5월에 열린 제 59(정기)총회에서는 [원전없는 세계를 추구하고 -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본성공회의 입장]을 결의, 특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조금씩이나마 적극적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원전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국제 협의회를 개최해 [일본성공회 '원전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협의회' 성명]을 내고, 다음해에 열린 일본성공회 총회에서 이것을 일본성공회 전체의 입장임을 표명했습니다. 현재는 정의와평화위원회 산하에 [원전문제 프로젝트]를 두어,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으며, 핵무기뿐 아니라 [핵] 그 자체가 생명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을 일본성공회의 선교 과제로서 받아들이고, 국내외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4. 만남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하느님과 화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가지는, 일본성공회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물음의 하나로써, 회개의 과정이기도 했고, 또한 하느님과 화해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별부락에서 살고있는 분들, 부락해방동맹의 분들, 부락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분들, 일본군이 식민지배 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분들, 특별히 대한성공회의 여러분, 제일 한국/조선인 여러분, 오키나와의 분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 그외의 분들과의 만남,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비로서 회개와 화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에게 주어진 테마는 [하느님과 화해]입니다만, [하느님과 화해]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느님/사람/자연과의 화해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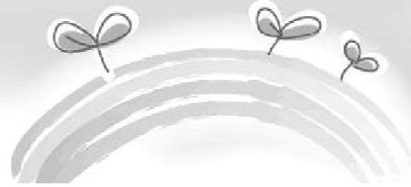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시점이 주어집니다. 그 시점 위에 서서 [하느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새신자를 가르치어 세례를 주고 양육]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성공회의 [하느님과 화해]의 표지가, 일본성공회에 있어서 인권문제 담당자의 활동이고, 이어서 발제가 있을 이쿠노센타의 활동이고, 정의와 평화위원회 원전프로젝트의 활동입니다.

----- 10/22 現場からの声② 「人間との和解」 -----

----- 10/22 現場에서의 소리② ‘사람과의 화해’ -----

金 均燮さん
김 균섭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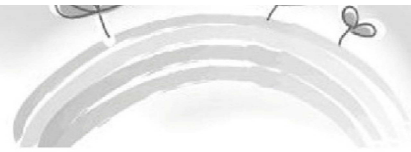
길 위 학교 路上の学校

- 대전나눔의집 (대전교구 중앙교무구) 大田分かち合いの家 (大田教区中央教務区)-

2024. 10



발표자 : 김균섭 発表者 : 金 均燮



차 례 もくじ

1. 길위학교 사업개요
路上の学校事業概要
2. 길위학교 운영방식
路上の学校の運営方法
3. 길위학교 의미와 제안
路上の学校の意味と提案

1. 길위학교 사업개요 路上の学校事業概要

- 1-1. 길위학교 운영기관 路上の学校の運営機関
- 1-2. 길위학교 배경1,2 路上の学校の背景 1、2
- 1-3. 길위학교 운영취지1,2 路上の学校の運営趣旨 1、2
- 1-4. 길위학교 수행실적1,2 路上の学校の実績 1、2

1-1. 길위학교 운영기관 路上の学校の運営機関

- 1) 운영법인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運営法人 : (財)大韓聖公会維持財団
- 2) 주관 : 성공회대전나눔의집
主管 : 大韓聖公会太田分かちあいの家
- 3) 주최 : 대전가정법원 主催 : 大田家庭裁判所
- 4)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 主管機関及び協力機関 :
대전 중앙교무구 산하 교회, 대전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대전일시
청소년쉼터(고정형, 드롭인센터),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대전남자단
기청소년쉼터, 대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전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
터, 대전광역시교육청남학생WEE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여학생WEE
센터,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 등
大田中央教務区傘下の教会、大田一時青少年シェルター(移動型)、大田一時青少年シェ
ルター(固定型、ドロップインセンター)、大田女子短期青少年シェルター、大田男子短期
青少年シェルター、大田女子中長期青少年シェルター、大田男子中長期青少年シェルター、
大田広域市教育庁男子WEEセンター、大田広域市教育庁女子WEEセンター、大田青少年
自立支援館等

1-2. 길위학교 배경 1 路上の学校の背景 1

- 1) 벨기에 오이코텐 벨ギー・オイコテン
 - 1982년 벨기에에서는, 청소년 자체가 역동이 요동치는 시기여서 집안
에 구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집 밖으로'
라는 의미의 "오이코텐"이란 프로그램 시작
1982年、ベルギーでは、青少年自身がダイナミックに揺れ動く時期であり、
家の中に収容する方法では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意味で、
「家から出る」という意味の「オイコテン」というプログラムを開始。
 - 18세가 되면 마차를 태워 외유를 시킴
18歳になると馬車に乗せて外遊させる。

1-2. 길위학교 배경 2

路上の学校の背景 2

2) 프랑스 쇠이유협회 프랑스Seuil(스이코)協會

- 2000년에 프랑스에서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문턱'이란 뜻의 '쇠이유협회' 창설
2000年にフランスでベルナル・オリヴィエが「敷居」という意味の「スイク協會」を創設。
- 소년원에 수감 중인 15~18세의 청소년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3개월간 약 2,000km를 걸으면 석방하는 교정 프로그램
少年院に収監されている15~18歳の青少年が、言葉が通じない外国で3ヶ月間、約2,000kmを歩くと解放される矯正プログラム。
- 쇠이유의 원칙 어떤 일이 있어도 걸어갈 것, 느리게 갈 것, 낯선 곳의 경치와 풍습을 요란하게 소개하는 일반적인 기행문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여정과 느낌만을 사진 한 장 없이 기록할 것
스이코의原則：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歩くこと、ゆっくり行くこと、見知らぬ土地の景色や風習を派手に紹介する一般的な紀行文ではなく、写真一枚も使わずに自分だけの旅路と感触だけを記録すること。
- 베르나르 올리비에 : 벨ナル・オリヴィエ :
“걷기라는 두 발을 움직이는 물리적 행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적 행동”
「ウォーキングという両足を動かす物理的な行動を通して自分を振り返る精神的な行動」
“인간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홀로 걸을 때 신체 균형을 되찾고 사고도 건전해진다.”
「人間には孤独が必要だ。しかし、一人で静かに考える機会が与えられていない。一人で歩くことで身体のバランスを取り戻し、思考も健全になる。」

1-3. 길위학교 운영 취지와 목적 1

路上の学校の運営趣旨と目的 1

◎ 사회적 약자들 재생산시키는 구조는 가정으로부터 방출되어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약자로서의 굴레는 끊임없이 비행과 일탈을 반복하게 한다. 그러나 비행과 일탈은 청소년에게는 또 다른 절망과 좌절에 지나지 않는다. 비행과 일탈의 악순환, 이로 인한 무기력과 미래의 포기, 그러한 속에서 청소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없다.

◎ 社会的弱者を再生産させる構造は、家庭から放り出されて頼るところがない青少年にはさらに過酷である。このような悪循環の構造の中で生きるしかないほとんどの青少年にとって、社会的弱者としての束縛は、絶えず非行と逸脱を繰り返すことになる。しかし、非行と逸脱は、青少年にとってはもう一つの絶望と欲求不満に過ぎない。非行と逸脱の悪循環、これによる無気力と将来の放棄、その中で青少年が進むことができる場所はない。

◎ 그래서 '길위학교'는 시작된 것이다. 길위학교는 걷기를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찾고 회복하며, 자신의 힘을 자각하는 과정이다. 끝없는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잃어 때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외부와 단절고립시키고, 그 가운데 자신의 상처를 찾아 직면하고 보듬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과정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힘과 본 모습을 자각하면서부터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법과 연대의 감정을 느끼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부분적으로라도 동질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そこで「路上の学校」は始まったのである。路上の学校は、歩くことを通じて自分の本来の姿を見つけ、回復し、自分の力を自覚する過程である。無限の道を歩きながら、自分を縛るすべてのものから離れ、外部の力によるものではなく、自分自身が主体的かつ能動的に自分自身を外部と断絶孤立させ、その中で自分の傷を見つけ、向き合い、癒しながら自分の状態を自覚する過程である。青少年たちは、自分の力と本質を自覚することから、自分自身と周囲の人々との接し方や連帯の感情を感じ、他者に対する責任感と部分的にでも同質性を体験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

1-3. 길위학교 운영 취지와 목적 2

路上の学校の運営趣旨と目的 2

-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처벌 및 격리 목적이 아닌 자아성찰을 통해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의 본질적 변화 유도**
 青少年の非行に対する罰や隔離目的ではなく、自己省察を通じて青少年の思考と行動の本質的な変化を誘導する。
- **동행자 선생님과 1:1로 10박 11일 '000길 걷기'를 통한 자아성찰 유도, 이를 통한 자존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同行者の先生と1対1で10泊11日「000道ウォーキング」を通じて自己省察を誘導し、自尊心と対人関係能力を向上させる。
-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 및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도모**
 青少年の再犯率低減と正しい社会人としての成長を図る。
- **길위학교의 핵심 가치** -路上の学校の核心的な価値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도 인간은 변화 가능하다.”
 「暴力的な方法を使わなくても、人間は変わることができる。」

1-4. 길위학교 수행실적 1

路上学校の実績 1

수행 년도 年度	사업명 事業名	주관기관 主管機関	사업 지역 地域	대상 対象		참여인원 参加人数		
				남자 男性	여자 女性	청소년 青少年	동행자 同行者	
1	2014	대전가정법원, 로드스쿨 지리산 둘레길 500리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智異山周辺500里	대전광역시 청소년드롭인센터 大田広域市 青少年ドロップインセンター	지리산 智異山	√		7	13
2	2015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지리산둘레길700리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智異山周辺700里	대전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 쉼터 大田広域市男性中長期青少年 シェルター(大田広域市)	지리산 智異山	√		10	13
3	2015	대전가정법원, 소녀 꽃씨를 품고 길위에서다 大田家庭裁判所、 少女 花の種を抱いて道に立つ	대전광역시 여자청소년쉼터 大田広域市 女子青少年シェルター	제주도 濟州島		√	8	14
4	2016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지리산둘레길 600리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智異山周り600里	대전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 쉼터 大田広域市男性中長期青少年 シェルター(大田広域市)	지리산 智異山	√		9	12
5	2017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지리산둘레길 600리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智異山周り600里	대전광역시 청소년드롭인센터 大田広域市 青少年ドロップインセンター	지리산 智異山	√		8	11
6	2018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리산 철백리, 길위학교 青少年と 一緒に智異山700里、 路上の学校	대전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 쉼터 大田広域市男性中長期青少年 シェルター(大田広域市)	지리산 智異山	√		9	11

1-4. 길위학교 수행실적 2 路上学校の実績 2

수행 년도 年度	사업명 事業名	주관기관 主管機關	사업 지역 地域	대상 対象		참여인원 参加人数	
				남자 男性	여자 女性	청소년 青少年	동행자 同行者
7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지리산둘레길 600리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智異山周辺600里	대전광역시이동 일시청소년쉼터 大田広域市移動 一時青少年シェルター	지리산 智異山	✓		11	12
8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지리산둘레길 600리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智異山周辺600里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 센터 大田広域市青少年ドロップ インセンター	지리산 智異山	✓		10	12
9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남파랑길 630리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南靑道630里	대전광역시이동 일시청소년쉼터 大田広域市移動 一時青少年シェルター	남해안 南海岸	✓		10	12
10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남파랑길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南靑道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大田男子短期青少年シェル ター	남해안 南海岸	✓		10	12
11	대전가정법원, 길위학교 금강종주길 大田家庭裁判所、路上の学校 金剛從走道	대전시남자중장기청소년 쉼터 大田市男子中長期青少年シ ェルター	금강종주길 金剛宗主道	✓		10	12

▶ 11년간 11회 프로그램운영 (참여청소년 102인 / 동행자 134인)
11年間11回プログラム運営 (参加青少年102人 / 同行者134人)

2. 길위학교 운영방식 路上の学校の運営方法

2-1. 길위학교 추진일정표

路上の学校 推進スケジュール表

2-2. 길위학교 일정별 활동예시(2024년도 길위학교)

路上の学校 日程別活動例 (2024年度 路上の学校)

2-3. 길위학교 참여 청소년의 특징(반사회성이 높은 청소년)

路上の学校 参加青少年の特徴 (反社会性の高い青少年)

* 소년재판 처분내용 少年裁判の処分内容

2-4. 길위학교 인력활용 路上の学校の人材活用

2-5. 진행코스 지도 進行コースマップ

2-6. 길위학교 활동사진 路上の学校の活動写真

2-7. 길위학교 운영의 어려움 路上の学校の運営の難しさ

2-1. 길위학교 추진일정표1

路上の学校 推進スケジュール表1

프로그램명 プログラム名	주요과제 主な課題	기간 期間	세부 추진내용 詳細推進内容
사전 프로그램 事前 プログラム	홀트리고 새로 세우기 崩して新たに 立て直す	1일 1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목적: 청소년 및 동행자의 공동생활로 서로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 만들기 主な目的: 青少年及び同行者の共同生活で互いの枠を壊し、新しい枠を作ること - 주요일정: 라포형성과 목적의식 고취 主な日程: 愛着形成と目的意識の向上 - 주요활동: 마음 챙김과 몸 챙김 활동을 통해 홀트리고 세우기 主な活動: マインドフルネスとボディフルネスの活動を通して、崩して新たに立て直す - 장소: 대전(인근) 지역 場所: 大田(周辺) 地域
길위학교 본프로그램 路上学校 本プログラム	길위학교 (걷다 -찾다 -느끼다 -바꾸다) 路上学校 (歩く -探す -感じる -変える)	10일 (230~ 280km 도보 코스) 10日 (230~ 280kmの ウォーキング コー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목적: 걷기를 통한 자기통찰, 갈등의 표출 및 해결, 자기 이해와 새로운 자기발견하기 主な目的: ウォーキングを通じた自己洞察、葛藤の表出と解決、自己理解と新たな自己発見をする。 - 주요활동: 10박11일간의 일정으로 지리산둘레길 걷기, 저녁시간 집단활동, 자기발견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이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청소년상담가들의 도움, 함께 걷기를 통해 정서지원, 공동체성 함양. 主な活動: 10泊11日の日程で、路上の学校 智異山ウォーキング、夕方の集団活動、自己発見などの多様なプログラムを通じて自己理解、専門的な訓練を受けた青少年カウンセラーの助け、一緒に歩くことによる情緒支援、共同体性の育成。 - 프로그램방향: 10박 11일간의 000길 주요 코스를 따라 프로그램 진행 プログラム内容: 10泊11日の000道主要コースに沿ってプログラム進行 - 장소: 000길 場所: 000道
	정리 및 해단식 まとめ および 解散式	11일차 마지막 날 11日目 最終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목적: 심리, 신체 상태 점검, 자기 평가 및 소감문 쓰기 主な目的: 心理、体調のチェック、自己評価と感想文を書く。 - 주요활동: 소감문 쓰기, 해단식(완주 메달 수여) 등 主な活動: 感想文を書く、解散式(完走メダル授与)など。 - 장소: 종착지 및 대전 복귀 후 대전가정법원 강당 場所: 終着地及び大田復帰後の大田家庭裁判所講堂

2-1. 길위학교 추진일정표2

路上の学校 推進スケジュール表2

프로그램명 プログラム名	주요과제 主な課題	기간 期間	세부 추진내용 詳細推進内容
사후 프로그램 事後 プログラム	변화 유지하기 変化 維持する	1일 1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목적: 길위학교를 통해 발견한 자기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의 개발 및 도움 제공 主な目的: 路上の学校を通じて発見した自己に対する認識の改善と、社会の中で新しい自分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資源の開発及び支援を提供する。 - 주요활동: 집단상담 등 主な活動: 集団相談など - 장소: - 場所: . . .
		6개월 6ヶ月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걸었던 동행자 선생님이 위탁보호인이 되어 6개월 위탁 보호 一緒に歩いた同行者先生が委託保護者になり、6ヶ月間委託保護者になる。

2-2. 길위학교 일정별 활동 예시(2024년도 길위학교) 路上学校日程別活動例 (2024年度路上学校)

- 3. 15(금) : 길위학교 관련 나눔의집 준비 회의 (동행자 선발)
3/15 (金) : 路上の学校関連分ち合いの家準備会議 (同行者選抜)
- 3. 25(월) : 대전가정법원과 회의 3/25 (月) : 大田家庭裁判所との会議
- 4. 11~12 : 길위학교 사전답사 4/11-12 (月) : 路上の学校事前調査
- 5월중 법원에서 참여청소년 선발 5月中、裁判所で参加青少年の選抜
- 5. 23(목) : 길위학교 청소년 - 학부모 설명회 5/23 (木) : 青少年路上学校—保護者説明会
- 6. 3(월) : 사전 프로그램 - 참가 청소년 개별 집결
6/3 (月) : 事前プログラム—参加青少年個別集会
- 6. 4(화) : 길위학교 발대식 (대전가정법원) 6/4 (火) : 路上学校発隊式 (大田家庭裁判所)
길위학교 출발 10:30 (000길) 路上の学校出発 10:30 (000道)
- 6. 10(월) 대전나눔의집과 대전가정법원(법원장 및 판사) 격려 방문(조별)
6/10 (月) 大田分ち合いの家と大田家庭裁判所 (裁判所長及び裁判官) 激励訪問 (班別)
- 6. 14(금) 대전 도착, 길위학교 해단식 6/14 (金) 大田到着、路上の学校解散式
- 7. 5(금) 길위학교 동행자 평가회의 7/5 (金) 路上の学校同行者評価会
- 9. 11(수) 길위학교 대전가정법원과 평가회의 및
9/11 (水) 路上の学校大田家庭裁判所と評価会議及び
회의결과 내년 계획에 반영 會議結果を来年度の計画に反映

2-3. 길위학교 참여 청소년의 특성

路上の学校 参加青少年の特徴

(반사회성이 높은 청소년) (反社会性の高い青少年)

유형 種類	특징 特徴
주호소 主な特徴	권위자와의 갈등, 규칙을 어기는,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행동화, 알코올/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충동적인 행동,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자기애적인, 반항적인, 화가 난 権威者との葛藤、規則を破る、親密な関係をうまく築けない、行動化、アルコール・薬物を乱用する可能性がある、衝動的な行動、他人を巧みに操る、自己愛的、反抗的、怒っている
사고 思考	의심이 많은, 소외된, 화가 난, 안절부절 못하는, 지루해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계산적인, 즉각적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疑い深い、疎外されている、怒っている、落ち着きがない、落ち着きがない、退屈している、手先が器用、計算高い、即座に自己欲求が満たされる
정서 情緒	무신경한, 충동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는, 알팍한, 피상적인, 남을 탓하는, 자극을 추구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권태로운, 감정적으로 단절된 無神経、衝動的、社会的状況に恐れを知らない、浅はかな、表面的、他人を責める、刺激を求める、落ち着きがない、飽きっぽい、倦怠感、感情的に断絶している
성격 및 행동특성 性格・行動特性	미숙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충동적인,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모험을 즐김, 자기주장이 강한, 진취적인, 타인을 교묘하게 다루는, 요구적인, 예외법절과 판단력이 부족한 未熟、自己中心的、衝動的、信じられない、無責任、冒険好き、自己主張が強い、進取的、他人を巧みに操る、要求が多い、礼儀作法や判断力に欠ける

* 소년재판 처분내용

少年裁判の処分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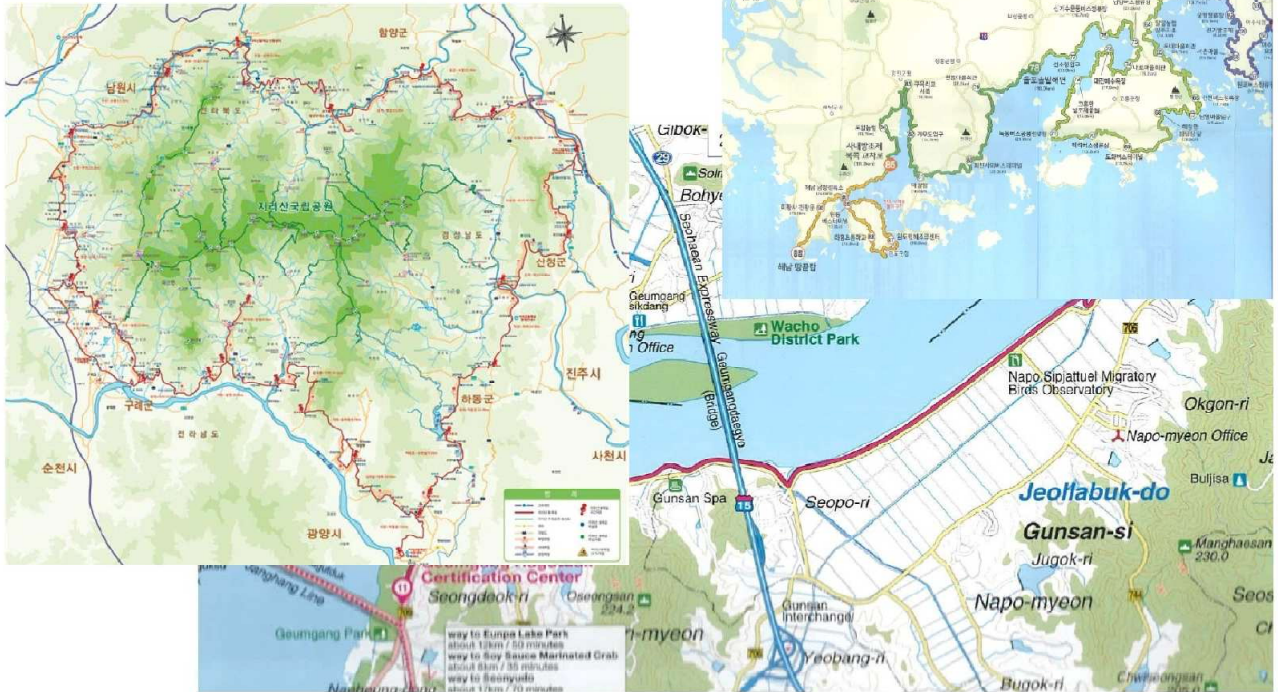
처분 処分	처분 내용 処分内容	비고 備考
1호 처분 1号処分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保護者又は保護者に代わって少年を保護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監護を委託する。	신병 인수처분과 신병 물인수 처분이 있음 身柄を引き取る処分と身柄を引き取らない処分がある。
2호 처분 2号処分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受講命令 (100時間以内)	
3호 처분 3号処分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社会奉仕命令 (200時間以内)	
4호 처분 4号処分	단기 보호관찰 (1년) 短期保護観察 (1年)	
5호 처분 5号処分	장기 보호관찰 (2년) 長期保護観察 (2年)	
6호 처분 6号処分	이동복지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보통 6개월) 児童福祉施設またはその他の少年保護施設への監護委託 (通常6ヶ月)。	전국에 4곳 全国に4ヶ所
7호 처분 7号処分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病院、療養所または少年医療保護施設への委託	치료 감호 治療監護
8호 처분 8号処分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ヶ月以内の少年院送致	
9호 처분 9号処分	단기 소년원 송치 (1년 이내) 短期少年院送致 (1年以内)	
10호 처분 10号処分	상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長期少年院送致 (2年以内)	

2-4. 길위학교 인력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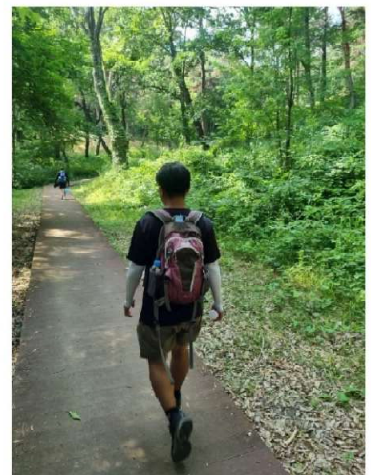
路上の学校の人材活用

구성 構成	필요인력 必要人員	주요업무 主な業務	필요사항 必要事項
진행팀 (동행자) 進行チーム (同行者)	10인 10人	- 참여청소년 지도 및 프로그램 진행 参加青少年指導及びプログラム進行 - 1:1 걷기 동행자 및 멘토 ウォーキング同行者およびメンター - 사업정리 및 결과보고 事業整理及び結果報告	상담 및 보호 자료확보 안전관리 相談・保護 資料確保 安全管理
지원팀 支援チーム	2인 2人	- 현지 안전관리요원, 비상사항 대비 - 물품지원	지역연계 회계진행 地域連携 会計処理
행정팀 管理チーム	2인 2人	- 행정 및 지역협조에 대한 지원 行政・地域連携への支援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事業計画書、結果報告書の作成 - 예산진행 및 기타 업무처리 予算執行及びその他の業務処理 - 진행, 지원팀 현황파악 및 비상연락망가동 進行、支援チーム現況把握及び緊急連絡網稼動	지역연계 행정 및 회계관리 地域連携 行政及び会計管理
총인원 総人数	14인 14人		

2-5. 길위학교 진행코스 지도 路上の学校の進行コースマップ



2-6. 길위학교 활동사진 路上の学校の活動写真



2-7. 길위학교 운영상 어려움 路上の学校の運営上の困難

요소 要素	내용 内容	제안 및 비고 提案と備考
동행자 구성 同行者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행자 대부분 실무자라서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과중함 同行者のほとんどが実務者であるため、既存の業務に追加される過重さ。 충분한 동행자 발굴 및 인적 구성 어려움 十分な同行者の発掘及び人的構成の難しさ 동행자 양성교육 필요함 同行者養成教育が必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필요함 持続可能な成長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構成が必要 	<p>지속적 동행자 발굴, 모입 및 교육, 센터 설립 継続的な同行者の発掘、集会及び教育、センター設立</p>
코스 및 운영 コースと運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 및 기간이 짧아 충분한 소통과 교류가 부족하고 기존환경에서 단절의 효과가 부족함 コース及び期間が短いため、十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交流が不足し、既存環境からの断絶の効果が不足している。 도보 가능한 코스에 대한 유지 및 보존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歩行可能なコースに対する維持・保全がされていない場合が少なくない。 외부활동이라서 기후 날씨의 영향이 큼 外での活動なので、気候天氣の影響が大きい。 	<p>철저한 사전답사 및 안전교육 등 강화 徹底した事前調査及び安全教育など強化</p>
참여청소년 선발 参加青少年選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색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음 熟考する訓練がされていない 재판중인 청소년 중에서 참여 선발에 대한 어려움 裁判中の青少年の中から参加者選抜の難しさについて 리포 형성에 대한 시간 부족 レポート作成のための時間不足 	<p>참여에 대한 동의 과정과 사전 교육 필요 参加への同意過程と事前教育が必要</p>
예산 予算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원 예산으로 조속한 집행이 어렵고 지출 항목에 대한 한계가 있음 政府支援予算で早急な執行が難しく、支出項目に限界がある。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음 予算増額が容易ではない 	<p>후원구조 및 수익 모델 필요성 スポンサー体制と収益モデルの必要性</p>
부정적 인식 否定的な認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하는 사회분위기 犯罪を犯した青少年に対する処罰強化を求める社会的雰囲気 길위학교가 면죄부 주는 역할만 강조 路上の学校が免罪符を与える役割だけ強調 	<p>교정프로그램으로 정착 및 법제화 校正プログラムの定着と法制化</p>

3. 길위학교 의미와 제안 1

吉備学校の意味と提案1

- 유낙준 주교님 '2014년 길위학교 결과보고서 자료집' 격려사 내용 중에서

ユ・ナクジュン主教様「2014年路トの学校結果報告書資料集」励ましのメッセージから

로드스쿨은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곁에 내가 힘들어 할 때에는 동행자가 곁에 있다는 믿음 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다들 떠나가지만 로드스쿨에서의 동행자는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자가 자신의 동행자로 있었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삶도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 곁에 존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자신감이 강해진 자신을 보게 합니다. 또한 걸으면서 몰입한 분석력이 강해져 자신의 살 길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졌음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할 일이고 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되어 자신을 분명하게 하는 자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드스쿨 “내 발걸음으로!”는 청소년이 어른으로 직립 보행하는 자격증을 갖추게 된다 하겠습니까.

ロードスクールは、そういう意味で人を変えるという確信のもとに行われるものです。それは、自分が苦しんでいるときに、自分のそばに仲間がいるという信念の上に変化が起こるのです。世の中は、自分が苦しんでいるときにみんな去っていきますが、ロードスクールの仲間は、自分が苦しんでいるときにそばにいます。聞き手が自分の伴侶としていた経験のもとに、自分の人生も困難な境遇にある人のそばに存在することができる人になるという信念が生まれ、自信が強くなった自分を見ることが出来ます。また、歩きながら没頭した分析力が強くなり、自分の生きる道に対する分別力が高まったことをとても簡単に見ることが出来ます。これは明らかに自分がやるべきことであり、あれは自分がやるべきことではないことを知ることで、自分を明確にする位置を把握することが出来ます。こうしてロードスクール「自分の足取りで!」は、青少年が大人として直立歩行する資格を身につけることになるのです。

3. 길위학교 의미와 제안 2

路上の学校の意味と提案2

- 유낙준 주교님 2014년 길위학교 결과보고서 자료집 격려사 내용 중에서

ユ・ナクジュン主教様「2014年路上の学校結果報告書資料集」励ましのメッセージから

우리에게 동행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늘이 계셨고 구름과 비와 안개가 계셨습니다. 또한 숲과 나무들과 새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흙과 돌과 바위들과 산속의 물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셨습니다. 살아계신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도와주셨고 하늘로 가신 분들의 영혼들은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의 안내자 역할로 도와 주셨습니다.

私たちの伴侶は誰ですか? 空があり、雲と雨と霧があり、森と木と鳥があり、土と石と岩と山の中の水があり、そして人々です。生きている人たちは目に見える形で助けてくださり、天に召された方々の魂は千の風となって、目に見えない形で道を見つけれられない私たちの魂の案内役として助けてくださいました。

3. 길위학교 의미와 제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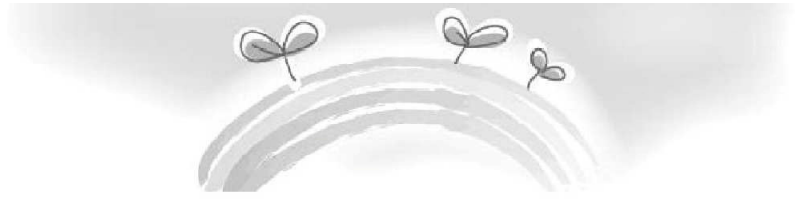
路上の学校の意味と提案3

- 유낙준 주교님 2014년 길위학교 결과보고서 자료집 격려사 내용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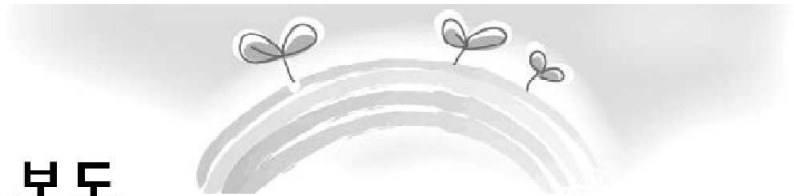
ユ・ナクジュン主教様「2014年路上の学校結果報告書資料集」励ましのメッセージから

또한 벨기에의 오이쿠텐을 세워 청소년의 로드스쿨을 시작하신 디미트리 뒤오르티에 선생님도, 프랑스 쇠이유의 올리베르 선생님도 우리의 갈 길을 먼저 열어 주시어 우리의 동행자로 걸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내 발걸음으로!"를 열어주신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님과 고춘순 부장판사님과 김은영판사님의 청소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 대전 나눔의집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에 젖은 나눔 활성화들의 열정에 젖은 삶이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셨습니다. **동행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내 속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기에 청소년들은 동행자와 함께 있으니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사회가 청소년에게 동행자가 되는 그러한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また、ベルギーのオイクーテンを設立し、青少年のロードスクールを始められたディミトリ・デュルティエ先生も、フランスのスイユのオリベール先生も、私たちの進むべき道を先に開いて下さり、私たちの仲間として歩いて下さいました。続いて、韓国の「私の足で!」を開いて下さったソン・ワンソク大田家庭裁判所院長とコ・チュンスン部長判事とキム・ギムヨン判事の青少年に対する深い思いやりが私たちのそばにありました。最後に、聖公会大田分かち合いの家のキリスト・イエス様の精神に濡れた分かち合いの活動家たちの情熱に溢れた人生が美しい同行者になってくださいました。同行者は自分が誰であるかを知り、自分の中に込められた価値を発見させてくれるので、青少年は同行者と一緒にいて良かったと言います。そのように、私たちの社会が青少年に同行者になるような社会であ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미디어(TV) 보도**
メディア(TV)報道

MBC 뉴스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pjQHjL1SseY>

중도일보 인터뷰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hyV1pa5Mn6k>

CBS 뉴스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uNCkMaOUrwc>

MBC 뉴스(2019) <https://www.youtube.com/watch?v=dCogRMSo-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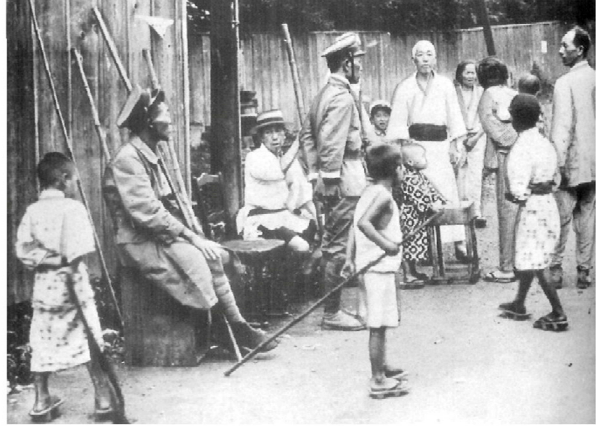
MBC 뉴스(2020) <https://www.youtube.com/watch?v=YBTG6JCAO7g>

MBC 뉴스(2023) <https://www.youtube.com/watch?v=Wfr47P-wgto>

吳 光現さん / 오 광현 씨



人との和解 = マイノリティの私から 사람과의 화해 : 소수자의 입장에서



聖公会生野センター
総主事 吳光現

성공회 이쿠노센터
총주사 오광현

宣教の5指標の4
성공회 선교정신4

社会の不正な構造を改革し、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고,
あらゆる暴力に反対し、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
平和と和解を追求すること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

朝鮮人は日本人より劣っている
“조선인은 일본인 보다 뒤떨어진다.”

..... と強制された
..... 라고 강요받음.

「日本人」になりたい
“일본인” 이 되고 싶다

こんな日本は嫌だ・・・韓国人になりたい

그런 일본이 싫다・・・한국인이 되고 싶다

「在日同胞は韓国人にもなれなく、日本人にもなれない」

“재일동포는 한국인도 될 수 없고, 일본인도 될 수 없다.”

神を受け入れる 신(하나님)을 받아들임

・私は会社のお金を盗んでいます。故郷の弟に送るため。

そんな**私は罪びと**でしょうか？

・저는 회사의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고향의 동생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요.
이런 **저는 죄인**입니까?

(1982年3月1日。永登浦都市産業宣教会の三一記念礼拝での女子労働者の祈り)

(1982년 3월 1일.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삼일기념예배에서 여성노동자의 기도)

・ここにいる人で彼女に罪を問える「罪のない人」はいません。

(故チョ・ジソン牧師の応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故 조지송 목사의 응답)

→ この時、**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る決心をした**

→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하기로 결심함.**

地域活動から

지역 활동으로부터

・・・誰も**が**ありのままの姿でいいんだ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좋다**

=私のキリスト教信仰の根

=내 기독교 신앙의 뿌리

先人の闘い

1995年 アメリカ

ローザ・パークス

The only tired I was tired of giving up

唯一の疲れは**屈服することに疲れた**ことだった

アラバマ州バスボイコット始まる → 公民権運動の導火線

醜い「日本人」=レイシストたち
추악한 “일본인” = 인종차별주의자들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어느 쪽이건 모두 죽여라

= 侵略軍の軍人の心の距離 =
= 침략군 군인의 마음의 거리 =
こうして人を殺していく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アメリカの哲学者デーブ・グロスマンの言葉

미국 철학자 데이브 그로스만의 말

人を人として認めないと「敵」は殺せな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적'을 죽일 수 없다.

現代のヘイトスピーチの原型 현대 혐오표현의 원형

まさに今、イスラエルがパレスチナにしていること。そして世界の権力がこれを認めている。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 ① 文化的距離 문화의 거리
- ② 社会的距離 사회의 거리
- ③ 倫理的距離 윤리적 거리
- ④ 機械的距離 기계적 거리

2015년 6월 6일

わたし小中高って建国って民族学校にあって、小3からずっと電車通学やったねんけど、小学生のとき中心に、電車の中で韓国語の教科書読んだり韓国語しゃべってるだけで「チョンコ言われたり、朝鮮語しゃべんな」言われたり、三つ編み引っ張られたり、ひどいときは友達ビンタされたり、在日韓国人ってだけで、めっちゃ怖い思いしてきた。そんなときに周りにいた大人たちは誰も助けてくれへんかった。なんでか親にも学校の 선생님(先生)にもそのこと言えんかった。そんなとき居合わせてたクラスメイトだけで内緒にしてた気がする。なんでか...。わたしが韓国人ってことは、電車で韓国語しゃべったらしばかれてもしゃーないことなんかなっておもてもーた、けど。

2015년 6월 일기 중에서(번역자가 윤재)

나는 초중고등학교를 '건국'이라는 민족학교에 다녔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전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전차 안에서 한국어 교과서를 읽거나 한국어로 말하거나 하면 "총코(조선인을 비하하는 표현)"라 불리거나, "조선말로 떠들지마"는 소리를 듣거나, 뺨은 머리를 누가 잡아당기거나, 심할 때는 친구가 따귀를 얻어맞거나 하는 등 제일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말 너무 무서웠다.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어른들 중 그 누구 한 명 도와주지 않았다. 웬지 부모님께도 학교 선생님께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마침 같이 있었던 반 친구에게만 비밀로 했던 기억이 난다. 왜 그랬을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전차 안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폭력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해버렸다.

そんなことないよな、(大阪の)阪和線で、環状線で、学校で習ったウリマル(母国語)ふつうにしゃべってもいいよな別に。三つ編み引っ張られたりせんでええんよなビンタされんでええんよな。

おとといからしばらく、ヘイトスピーチが布施(大阪市の東隣の東大市の地名。在日の多住地域)で毎日あるらしい。近くにウリハッキョ(朝鮮学校)ある。布施とか生野(大阪市の区の一つ。日本で一番在日韓国朝鮮人の多住地域)のつぎに第二の地元やん。ウリハッキョ通ってる子たちに、わたしみたいな嫌な思いモヤモヤした思いさしたくないやん。

わたし、あの有名な、数年前の、鶴橋大虐殺しますよーって鶴橋でのヘイトスピーチのとき、たまたまあの場に居合わせて、ほんまに怖くて、ずーっとヘイトスピーチとかレイシズムのこととか、避けて避けて生きてたけど。

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오사카 한와阪和선에서나, 칸쵸環状선에서나, 학교에서 배운 우리말(모국어)을 그냥 사용해도 전혀 문제 될 건 없잖아. 뺨은 머리를 꼬집어 당기거나 하지 않아도 되잖아.

옛그제부터 후세(오사카시 동쪽에 접해있는 히가시오사카시의 지명. 제일동포 집주지역 중 하나)에서 매일같이 헤이트 스피치가 있다 보다. 근처에는 우리학교(조선학교)가 있다. 후세는, 이쿠노(오사카시의 행정구 중 하나)라는 일본에서 제일한국조선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바로 다음으로 많은 제2의 동네잖아. 우리학교(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겪었던 불쾌한 감정이나 찝찝한 기분을 갖게 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난, 그 유명한, 몇 년 전에 "츄루하시 대학살"을 자행하겠다고 츄루하시에서 했던 헤이트 스피치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계속 헤이트 스피치라던가 인종차별주의 등을 피해서 살았긴 했지만...

今日ひさっつしぶりに、カウンターとして頭数になればって思って自分から出かけて行って、コリアンへのヘイトスピーチまともに聞いて、ダメージ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おつきいけど、酒飲まないとやっつけられへんな〜ってかんじやけど、これ以上嫌な思いするひと増やしたくないなあ〜。 はあ〜。お酒いっぱいのでがんばろ〜。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카운터(헤이트 스피치에 대항하는 집회)에 머릿수라도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혼자 참가했는데, 제일코리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제대로 듣고 나니, 그 충격이 정말 너무너무 큰데, 그래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다. 아아~ 술 한 잔 마시고 힘내자~

今日カウンターの端くれとして布施にいって、つらかったのは、レイシストたちへの腹立ちもあるけどそれ以上に通行人たちのひとごと感...。ヘイトスピーチする側とカウンターどっちもどっちとか言うひとには、もっと考えてほしい、ほんまにどっちもどっちなのか...自分が差別される側ならどう思うのか。

ほんで、ヘイトスピーチに無関心でひとごとな日本のひとたち、もっと関心持って欲しい、ほっといたらヘイトスピーチなんてなくなるとか言い続けて、今があります。在日がもっと抗議しろとかは聞き飽きましたしその言葉ほんま傷つく。てかなんで私らが声あげなあかんねん、ヘイトスピーチ日本の問題やし日本人の問題やん?

오늘 카운터 집회 참가자의 한 명으로서 후세에서 괴로웠던 것은,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해 화가 났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했던 것은 그냥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쪽과 그 반대편의 카운터, 어느 쪽이나 다 (시끄럽고) 똑같다고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정말 양쪽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기 자신이 차별받는 쪽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헤이트 스피치에 무관심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라. 솔직히 말하면,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건 없어질 거야라고 말해 온 결과, 바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냐. (당사자인) 재일코리아인이 좀 더 항의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질렸어. 그런데 이게 (소수자인) 우리들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하는 문제야?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의 문제이자 (다수자인) 일본인들의 문제 아니야?

少なくとも私は、ヘイトスピーチ受けてるってだけで、だいぶ疲弊するし抗議する元気あんま出ないっす。ここに書くのためらうような耳疑うようなひどいことずーっと言われるんすよ。わたしも家族も友達も韓国人はみんなゴキブリ以下とか言われるんすよ。日本から出てけとか言われるんすよ、出てけもなんも、わたしの帰るとこ、ここやし。はあ。疲れる。

**普通に悔しくて涙でる。やからできたら日本人だけで解決してよね
ほんま。はあー。おやすみなさい。**

적어도 나는, 헤이트 스피치를 듣거나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폐해지고, 항의할 기운조차 별로 없다고. 여기에 쓰는 것도 주저되는, 귀를 의심케 하는 심한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나도, 가족도, 친구도, 한국인은 모두 바퀴벌레만도 못하다고 들어왔단 말이야. 일본에서 꺼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일본에서 나가라고 해 봤자 내가 돌아올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아아... 지친다.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제발 일본인들끼리서 해결해라
정말. 하아- 안녕히 주무세요.**

聖公会
生野センターの
願うもの

성공회
이쿠노센터가
바라는 것



谷間にいる人たちと共に 골짜기에 있는 이들과 함께

在日1世の言葉 재일동포 1세의 말

「朝鮮人殺せというなら
私が前に出てやろうか!」
“조선인을 죽이자고 한다니,
내가 앞에 나설까!”

在日高齢者の過ごす場ーのりばん
재일동포 고령자 쉼터, 놀이방



障がい者アート = 好きなことをしていい
장애인 예술 : 하고싶은대로 해도 좋아



人との和解 = 苦しみか? 喜びか?
사람과의 화해 : 고통일까? 기쁨일까?

マイノリティに = 「頑張ってください」
소수자에게 “기운내서 열심히 해요!”라고 하는 것

→いつまで私たちが頑張ればいいのか?
→ 언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

マジョリティの問題ではないのか?
다수자의 문제가 아닐까?

マイノリティとマジョリティの和解 소수자와 다수자의 화해

谷間にいる人たちがのびのびと生きていける社会

골짜기에 있는 이들이 구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マジョリティがマイノリティに寄り添う社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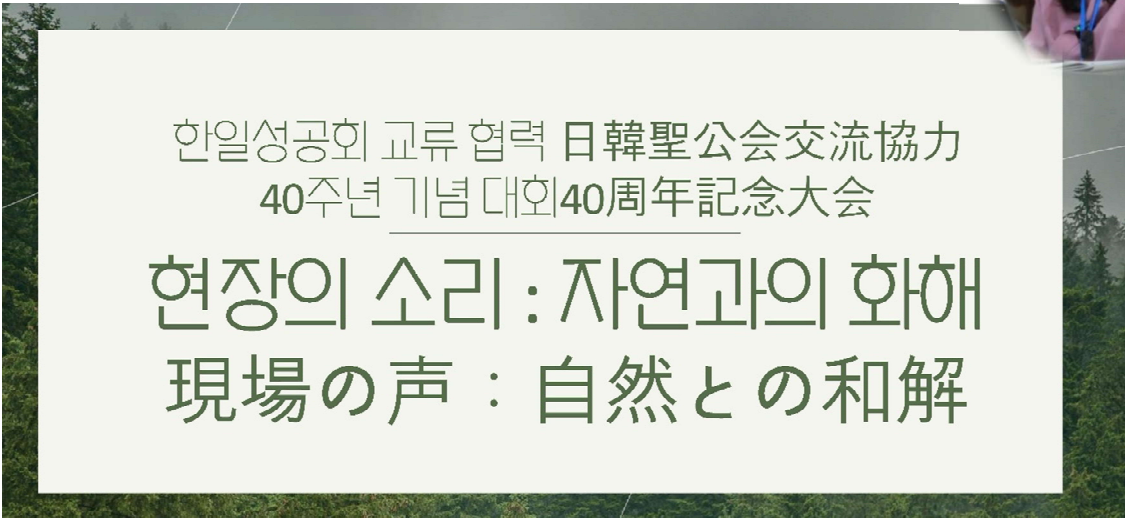
다수가 소수에게 다가서는 사회

ありのままの自分を愛することができる社会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회

この姿を本当に愛せるときが来るのを願う
이 모습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목 차 •
 目次

현장의 소리 : 자연과의 화해
 現場の声 : 自然との和解

- 01 기후위기시대 교회의 역할
- 02 녹색선교 상상 : 창조절기, 사순절(원주)
- 03 대한성공회 : 몽골 성공회 숲 조성
- 04 신학하기: 지구정치신학
- 05 지역과의 연대
- 06 에너지자립운동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목 차 •
 目次

현장의 소리 : 자연과의 화해
 現場の声 : 自然との和解

- 01 気候危機時代の教会の役
- 02 緑の宣教想像 : 創造節、四旬節(原宿)
- 03 大韓聖公會 : モンゴル聖公會の森づくり
- 04 神学をする : 地球政治神学
- 05 地域との連帯
- 06 エネルギー自立運動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1

기후위기 시대 교회역할 気候危機時代教会の役割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교회라는 플랫폼

教会というプラットフォーム

1. 교차성(交差性): 많은 곳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람의 교통, 정보의 교통, 먹을거리의 교통, 교육의 교통, 부의 교통

多くの場所の交差が成される場所である。人の交通、情報の交通、食べ物の交通、教育の交通、富の交通

2. 개방성(開放性): 국고로 운영되지 않는 공적인 공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공간, 예술과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연속

国庫で運営されない公的な空間、自発的になされる空間、芸術と伝統を保有している文化の連続

01

기후위기 시대 교회역할 気候危機時代教会の役割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교회라는 플랫폼

教会というプラットフォーム

座の政治学: フェミニズムで話される「座」、社会的位置を全て含んだ意味。新しい座としての移動を可能にしてくれる場所が教会である。

3. 자리의 정치학(座の政治学):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자리' 사회적 위치를 모두 포함한 의미, 새로운 자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매수일 모이고 흩어지며 자기 삶 가운데 들은 바를 적용한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질지만 이는 또한 지나친 폐쇄성과 확신성으로 인해나 세상을 오염시키고는 한다. 교회들 새롭게 꾸미지 않고는 이제 교회는 계속 세상과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教会は有機的な共同体である。お互いに影響を受け、与えながら、毎主日集まり、散らばりながら、自己の人生の中で聴いたことを適用する。見えない連結が濃くなるが、これはまた行き過ぎた閉鎖性と確信性としていつでも世界を汚染させるという。境界を新しく造り上げなければ、今や教会は世界と遠ざかるばかりである。」

02

녹색선교 상상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창조절기, 사순절 (원주교회 사례)

創造節期、大齋節 (ウオンジュ教会の事例)



緑の恵みへの招待
녹색은총으로의 초대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현황:공회 40주년
지역:의 황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현황:공회 40주년
지역:의 황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현황:공회 40주년
지역:의 황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현황:공회 40주년
지역:의 황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会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會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會の森づくり
事業



03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敎想像賞
몽골성공회순
조성사업
モンゴル聖公
會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성공회 숲에는 2천주 정도의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6천만원의
비용중에 4천만원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聖公會의 숲에는 2千株ほどの木が植えられています

나무 1주 3만원(木 1株 3,276JPY)_나무 묘목구입 및 이후 관리비용

6千万ウォンの費用の内、4千万ウォンは、既に納付しました。
木 1株 3万ウォン (木 1株 3,276円)、木の苗木購入及び、以後の管理費用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教想像賞
몽골성공회숲
조성사업
몽골聖公
會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수신 전국교회 및 기관

창조 관할사제, 교회위원
계곡 관구발전 특별봉헌·몽골 성공회 숲 만들기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992년 세계 성공회의 35번째 관구가 된 대한성공회는 2016년 제 87차 전국상임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구발전의 특별봉헌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2024년은 9월 한 달을 창조절기와 더불어 '몽골 성공회 숲 만들기' 사업 지속을 위한 특별 봉헌으로 지키게 됩니다.
2. 올해 2024년 대한성공회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몽골 비양항기이 지역 축구장 2개 면적에 2,000 그루 나무를 심는 '몽골 성공회 숲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조절기가 시작되는 9월 환경보존을 위한 대한성공회의 실천을 통해 생태 친화적 교회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3. 9월 한 달 동안 창조절기, 여성선교주일, 추수 등 많은 행사와 기념으로 분주하시겠지만 관구의 발전과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각별한 기도와 봉헌을 요청 드립니다, 모금된 금액은 아래의 모금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1) 제목: 2024년 관구발전 특별봉헌
 - 2) 기간: 2024년 9월 한 달간
 - 3) 내용: '몽골 성공회 숲 만들기'
 - 4) 모금 목표액: 2천만원
 - 5) 모금계좌: 신한은행 140-002-238276 (예금주: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첨부: 창조절서 회복을 위한 성공회 숲 만들기 모금 제안서

창조절서 회복을 위한 성공회 숲 만들기 모금 제안서

1. 서론

2024년 서순사기에 국가와 경제로 '몽골 성공회 숲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관구발전 모금 또한 성공회 숲 조성에 매진하여, 대한성공회의 발전을 위한 헌금을 통해 창조절서 회복을 목표로 교회의 변화와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며, 그력이 공동체가 함께 비록 계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열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2024년 하반기 '성공회 숲 만들기' 모금 목표

몽골 비양항기이 성공회 숲 조성의 총 목표액은 4천만 원이며, 그중 상반기 동안 이미 4천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2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3. '성공회 숲 만들기' 모금의 목적

이번 모금 활동은 창조절서 회복을 위한 교회의 변화와 실천에 일원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몽골 비양항기이 지역에 서의 '성공회 숲 만들기' 프로젝트로 통해 사막화 방지와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여, 창조절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지구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세계성공회의 조림 프로젝트

책은님의 구원사 창조의 범위를 개인과 세상을 넘어 모든 피조세계로 넓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최근 세계성공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캔터베리 교구에서는 2022년에 캔터베리 시와 협력하여 도시에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다양한 기후를 가진 프로젝트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 자원 봉사 기회 제공, 대가질 개선, 새로운 서식지 생성 등입니다. 환경관리와 지역사회의 이익 가치를 결합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녹색선교
상상:그린
宣教想像賞
몽골성공회숲
조성사업
몽골聖公
會の森づくり
事業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受信全国教会及び期間

参照 管轄司祭、教会委員
題目 韓国発展特別奉獻—モンゴル聖公會の森づくり

1. 1992년 세계성공회의 35번째 관구가 된 대한성공회는 2016년 제 87차 전국상임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구발전의 특별봉헌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2024년은 9월 한 달을 창조절기와 더불어 '몽골 성공회 숲 만들기' 사업 지속을 위한 특별 봉헌으로 지키게 됩니다.
2. 올해 2024년 대한성공회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몽골 비양항기이 지역 축구장 2개 면적에 2,000 그루 나무를 심는 '몽골 성공회 숲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조절기가 시작되는 9월 환경보존을 위한 대한성공회의 실천을 통해 생태 친화적 교회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3. 9월의 한 달 동안 창조절기, 여성선교주일, 추수 등 많은 행사와 기념으로 분주하시겠지만 관구의 발전과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각별한 기도와 봉헌을 요청 드립니다, 모금된 금액은 아래의 모금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下記—

- 1) 제목: 2024년 관구발전 특별봉헌
 - 2) 기간: 2024년 9월의 1개월간
 - 3) 내용: 「몽골성공회 숲 만들기」
 - 4) 모금 목표액: 2천만원
 - 5) 모금계좌: 신한은행 140-002-238276 (예금주: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첨부: 창조절서 회복을 위한 성공회 숲 만들기 모금 제안서

創造秩序回復のための聖公會の森づくり募金提案書

1. 序論

2024年大齋節期に克己と節制で「モンゴル聖公會の森づくり」に積極參與される皆様に深い感謝を申し上げます。続けて、2024年管区發展募金また聖公會の森造成に邁進し、大韓聖公會の發展のための募金を通して、創造秩序回復を目標に教会の變化と実践に寄与しようと思ひます。

このために、募金活動を進行し、教会の共同体が環境保存と持続可能な未來のために協力することのできる機会を整えようと思ひます。

2. 2024年下半期「聖公會の森づくり」募金目標

モンゴルのビヤハンガイでの聖公會の森造成の總募金額は6千万ウォンであり、その内、上半期の間、既に4千万ウォンを達成しました。これからシモン半期は、2千万ウォンを追加で募金し、全体目標の達成のため、努力していく予定です。

3. 「聖公會の森づくり」募金の目的

今回の募金活動は、創造秩序の回復のための教会の變化と実践の一環として行われます。特に、モンゴルのビヤハンガイ地域での「聖公會の森づくり」プロジェクトを通して、砂漠化の防止と環境復元を目標に、創造世界の美しさを回復し、地球の健康な未來のための足掛かりとなることを目指します。

1) 世界聖公會の造林プロジェクト

神の救いと想像の範圍を個人と世界を超えて、全ての被造世界に広げて理解し、実践することは、昨今の世界聖公會の新しい流れを反映しています。英國のカンタベリー教区では、2022年にカンタベリー市と協力して都市にクヌギ、ブナ、ハイノキのような多様な在来種、數種を植えるプロジェクトを始めました。これを通して、教育ワークショップ、ボランティア機会の提供、大氣の改善、新しい生息地の生成だけでなく、環境管理と地域社会と靈的価値を結合する事例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상호연결성(相互接続性)

_생성/되기(becoming)

1. 인류세의 추락(人類滅亡の墜落) : 인간 중심사고로 인한 무자비한 개발과 채굴은 우리사회를 계속했고 여기에는 신학이 많은 책임이 있다.
대표적 사례. 운석열과 태극기부대, 트럼프와 총격사건, 부시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반대
2. 양자역학(量子力学)과 신유물론(New materialism) : 새로운 세상 읽기를 통한 새로운 관계 적립을 통한 신학의 새로운 방향
"신유물론에 의해 보강된 신학들 안에서, 우리는, 물질 그 자체들 안에 있는 생기성을 식별할 수 있다. 포도주와 컵의 실아있는 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정교한 망막의 길라잡이한 전시 속으로 오는 광자들의 비가시성 속에서도 생기성을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땀, 살, 섹스, 종이, 허로부터 그리고 참여자들의 해방되거나 억압된 생동성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생기성을 식별할 수 있다."


상호연결성(相互接続性)

_생성/되기(becoming)

1. 人類世の墜落 : 人間中心思考による無慈悲な開発と採掘は私たちの社会で継続しており、ここには神学に多くの責任がある。
代表的な事例: ユン・ソギョルと太極旗部隊、トランプと襲撃事件、プッシュの胚性幹細胞研究反対
2. 量子力学と新唯物論 : 新しい世界を読むことを通した新しい関係の積立を通した神学の新しい方向
「新唯物論によって補強された神学たちの中で、私たちは、物質それ自体たちの中にある 생기性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ワインとカップの生きている分子たちを通して、あなたの精巧な網膜のカ라フルな電子の中に来る講師たちの非可視性の中にも 생기性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パン、肉、セックス、紙、舌からそして参与者たちの解放されたり抑圧された生動性の中にも、それと同じような 생기性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



지역의 기후위기 활동가와 연대

1. 녹색교회네트워크 
2. 지역을 돌아보기
3. 기후정의동맹 안으로 들어가기 - 생활협동조합, 시민운동진영, 지역내에서 감시 활동에 동참하기, 평화와 정치구호 준비하기
- 4.

地域の気候危機活動家と連帯

1. 緑の教会ネットワーク
2. 地域の見守り
3. 気候正義同盟の中への加入-生活協働組合、市民運動陣営、地域内での監視活動への参加、平和と政治呼びかけの整備

05
지역과의
연대
提案2.
地域との連
帯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2024
**강원NCC포
기후림**

기후위기, 강원도는 제대로 대응 중일까요?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환경, 노동, 여성, 청년, 농업, 국제 등 주제별로
지역의 기후위기 현안과 정책을 짚어봅니다.

일정 10.10.(목) 14:00-17:00
장소 원주영광교회 1층 갈릴리실
문의 010-9408-0969

05
지역과의
연대
提案2.
地域との連
帯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5
지역과의
연대
提案2.
地域との連
帯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지역과의
연대
提案2.
地域との連
帯



05
지역과의 연대
地域との連
帯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06

에너지
자립운동
エネルギー
自立運動

한일성공회 40주년
지연과의 화해



06

에너지
자립운동
エネルギー
自立運動

한일성공회 40주년
자연과의 화해



에너지자립의 중심 _ 교회 エネルギー自立の中心_教会

사례 1. 대전교구 주교좌성당 : 100kw 발전량, 월

300만원의 효과/년간 6천만원의 이득(설치비용

약1억4천만원~5천만원

- 연간예상발전량 :

$100\text{kw} \times 3.6\text{시간(하루평균)} \times 365\text{일} = 131,400\text{kwh}$ (킬로와트시는 에너지단위)

연간SMP예상수익 : 94원(2018년

평균가)*131,400kwh=12,351,600원

- 연간 REC 예상 수익 : 98원(2018년

평균가)*1.5배(가중치)*131,400kwh=19,315,800원

- 연간 예상 수익합계 31,667,400원

事例 1. 大田教区主教座教会 : 100kw 発電量、月

300 万ウオンの効果/年間 6 千万ウオンの利益 (設置費用約 1 億 4 千万ウォン~5 千万ウォン)

- 年間予想発電量 :

$100\text{kw} \times 3.6\text{時間(一日平均)} \times 365\text{日} = 131,400\text{kwh}$
(キロワット時は、エネルギー単位)

年間 SMP 予想収益 : 94 ウォン (2018 年平均価)
*131,400kwh = 12,351,600 ウォン

- 年間 REC 予想収益 : 98 ウォン (2018 年平均価) *1.5 倍
(加重値) *131,400kwh = 19,315,800 ウォン

- 年間予想収益合計 31,667,400 ウォン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제 발표를 마칩니다. これで発表を終了します

다원성공회 원수교회 이쁜이
한국에너지연구원 연구실

----- 10/22 現場からの声③ 「自然との和解」 /
현장에서의 소리③ '자연과의 화해' -----

主教 長谷川清純 / 주교 하세가와 키요스미



日韓聖公会宣教協働40周年記念大会
일본성공회선교협동40주년기념대회

現場からの声③ 「自然との和解」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 ③ 「 자연과의 화해 」

2024年10月21日(火) @イシドル リトリートセンター
2024년 10월 21일 (화) 이시돌 피정의 집



2011年3月11日
 東日本大震災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マグニチュード9.0の巨大地震と
 最高到達点40.5mの巨大津波と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爆発事故(レベル7)の
 三重苦
 매그니튜드 9.0의 거대지진과
 최고도달점 40.5m의 거대지진해일과
 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레벨7)의
 삼중고

死者19,500人
 行方不明者2,520人
 震災関連死3,802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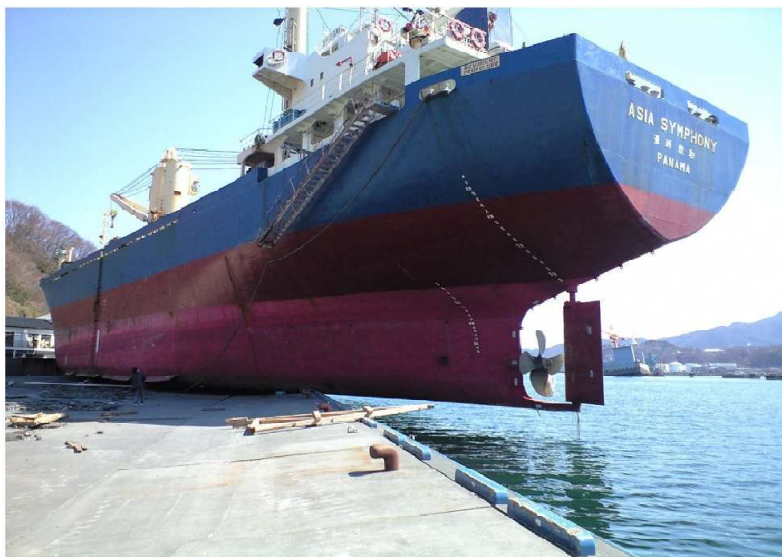
사망자 19,500명
 행방불명자 2,520명
 지진재해관련사망자 3,802명

避難者数ピーク時(3日目)約47万人
 福島県からの国内避難民約3万人

피난자수 피크시(3일째) 약 47만명
 후쿠시마현에서 국내 피난민 약3만명



福島県新地町 2011年3月24日
 후쿠시마현 신치마치 2011년 3월 24일



岩手県釜石市港 2011年4月6日
 이와테현 카마이시시항 2011년 4월 6일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1~3号機ともメルトダウンの影響で、水素が大量発生、爆発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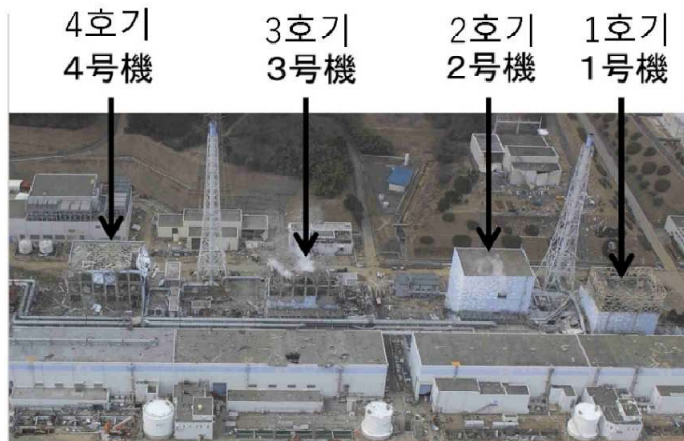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3号機爆発 2016年9月19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1-3호기 모두 멜트다운의 영향으로, 수소가 대량발생, 폭발하였다.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3호기 폭발 2016년 9월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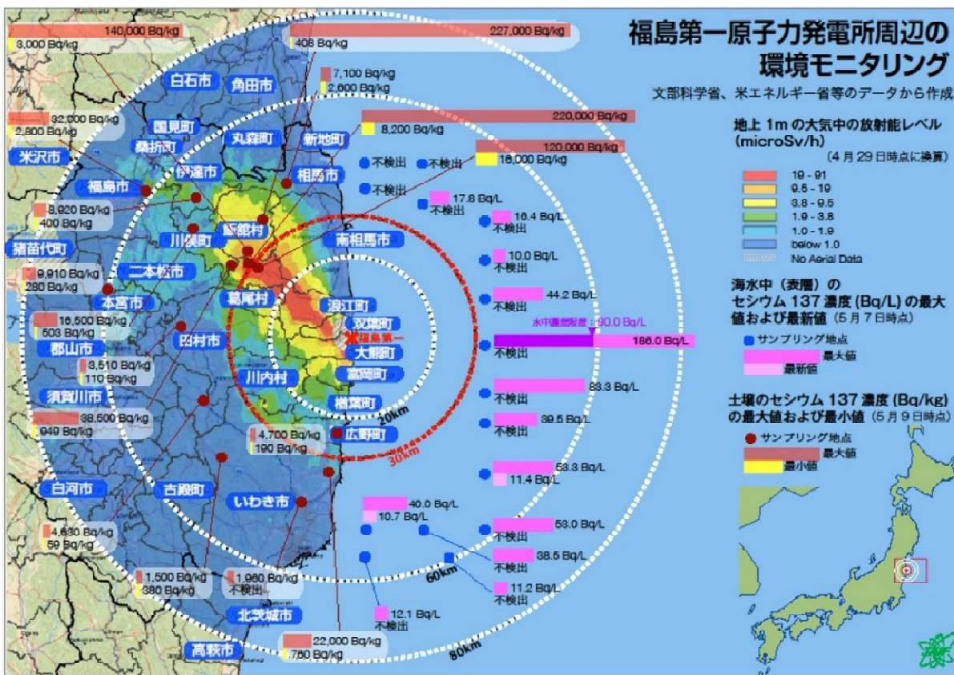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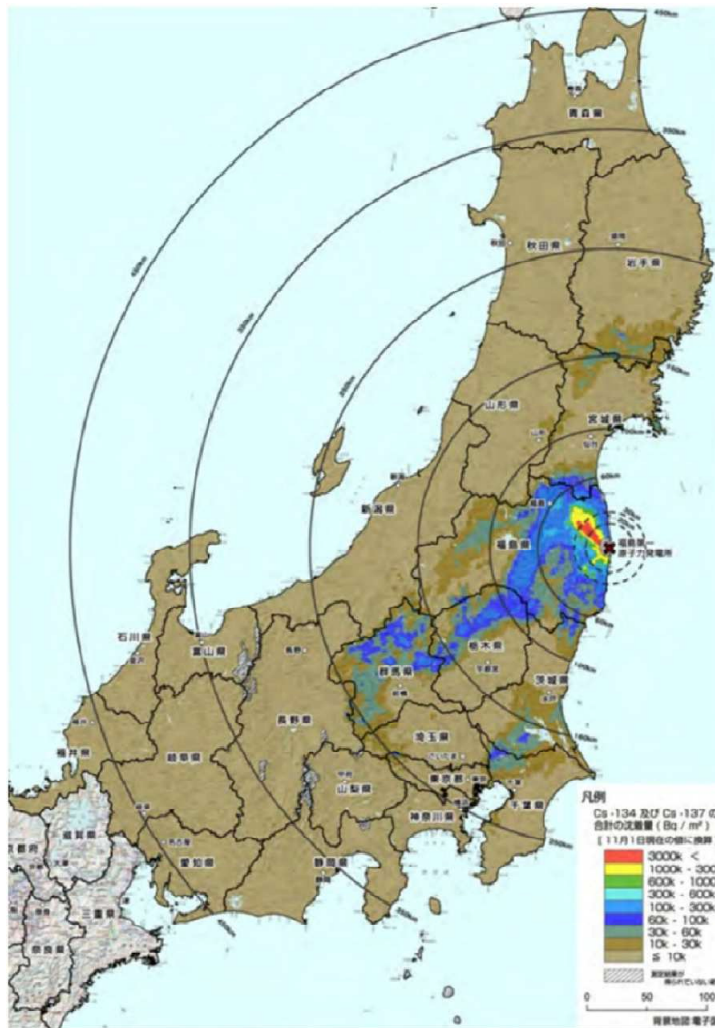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1号機水素爆発 2011年月12日15:36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소폭발 2011년 3월12일 15:36



福島原発事故 今、進行中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 현재 진행형

小出裕章氏講演資料より
 2022.5.15
 코이데 히로아키씨 강연회자료로부터
 2022년 5월15일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모니터링

【資料作成】 一般社団法人 日本原子力産業協会
 【出典】 東京電力(株)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の環境への影響(最近の主な状況) 2011年12月15日時点
 【編集】 川根 真也

통행 규제 중 : 이 사전 귀환 곤란 지역에 대해 통행 금지(원자력재해 현지대책본부·나미에쵸)



피폭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아이들은 피폭에 민감. 그럼에도 방사선관리구역이며 지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장소에 아이들도 버려지고 있다. 적어도 오염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주의도 할 수 있지만, 방사선의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다.

被曝は危険を伴う。特に子どもは被曝に敏感。それなのに、放射線管理区域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場所に子どもたちも棄てられている。せめて、汚染していることを感じられれば注意もできるが、放射能は五感で感じられない。



柚木ミサトさんの赤いつぶつぶのイラスト
（赤いつぶつぶが放射能を示している）

유즈키 미사토씨의 붉은 알갱이의 일러스트
붉은 알갱이가 방사선의 나타내고 있다.

小児甲状腺がん 発症者約400人

소아갑상선암 발생자 약 400명

311子ども甲状腺がん裁判

311아이들 갑상선암 재판

- 事故当時6～16歳の子どもたち7名
• 사고 당시 6 ~ 16세의 아이들 7명
- 東電に対し、事故に伴う放射線被ばくにより甲状腺がんを発症したとして、損害賠償を求める裁判
• 도쿄전력에 대해서 사고의 방사선피폭에 의해 갑상선암을 발병했음을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

311子ども 甲状腺がん 裁判

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によって
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って被曝し、
甲状腺がんになった若者が1月
東京電力を訴える裁判に立ち上がりました。
応援してください。

9月7日
水曜日
午後2時



311 어린이 갑상선암 재판

●● 第2回口頭弁論期日のお知らせ ●●

東京地方裁判所

- 12時30分 弁護団アビール
- 12時50分 入廷行動
- 13時20分 傍聴整理券配布(未定)
- 13時40分 整理券配布締切(未定)
- 13時40分 傍聴抽選発表(未定)
- 14時 開廷(803号法廷)

*本裁判のテーマカラー(緑色)を身につけてご参加ください。
*傍聴は抽選のため、外れた場合は支援集会にお越し下さい。

日比谷コンベンションホール大ホール

- 14時00分 開場
- 14時20分 支援・報告集会開始
原告意見陳述共有
- 14時50分頃 弁護団合流
- 16時30分 終了

日比谷コンベンションホール
(千代田区日比谷公園1-4 B1)
地下鉄メトロ 霞ヶ関・日比谷駅下車
都営三田線内幸町駅下車



311甲状腺がん
子ども支援ネットワーク

さくら共同法律事務所東京都新宿区西谷1丁目6-1
E-mail: info@311support.net FAX: 03-6384-1121
<https://311suppor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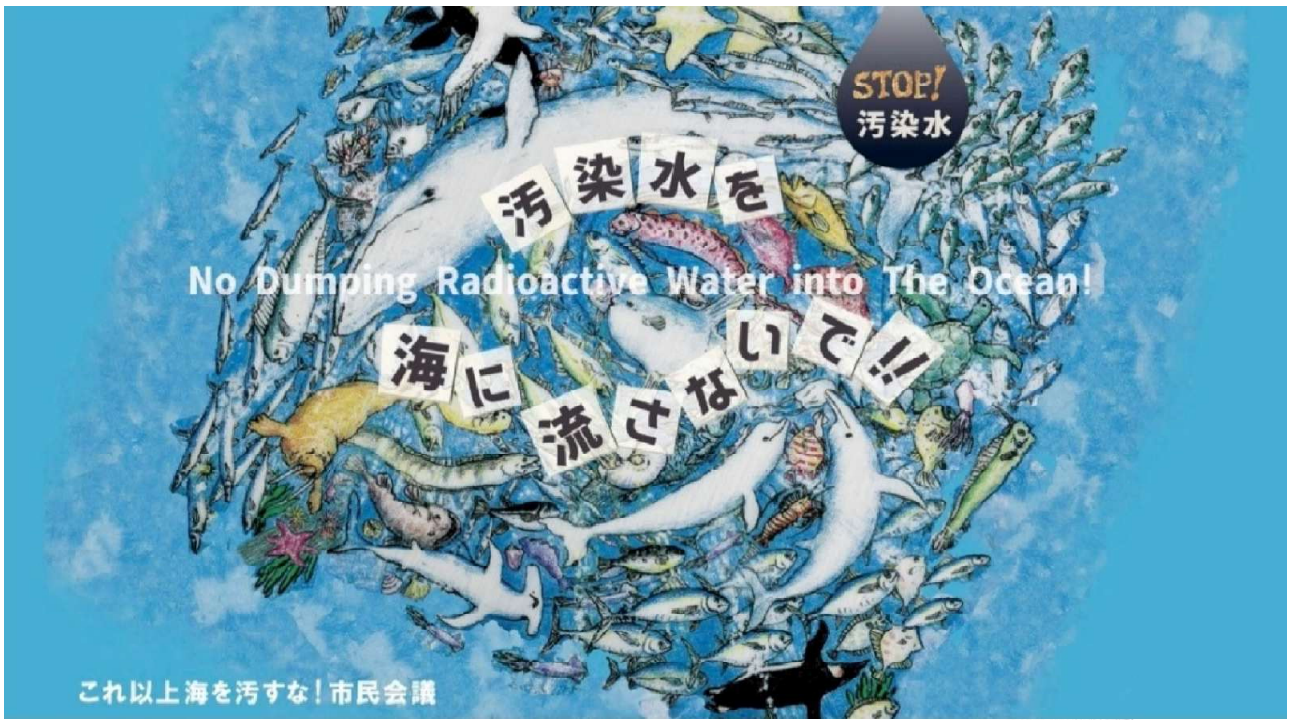
最新情報は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
311甲状腺がん子ども支援ネット



放射能汚染水海洋投棄 방사능오염수해양투기

福一原発事故後、地下水による放射能汚染水を組み上げ、ALPSで処理された汚染水をタンクに貯めて約137万トンに達した。廃炉のために確保する場所が足りなくなったとして、汚染水を海水で薄めて、トリチウムが東電が設けた放出停止の基準(700ベクレル)や世界保健機関(WHO)の飲料水基準(1万ベクレル)以下にして沖合1kmの海底に放出する。2023年8月24日開始され、2024年10月17日から10回目が行われ、約8万トンが投棄される。IAEA(国際原子力機関)から安全のお墨付きをもらっている。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지하수에 의한 방사능오염수를 퍼올려, ALPS 로 처리된 오염수를 탱크에 담아모아 약 137만톤에 당하였다. 폐로를 위해 확보하는 장소가 모자라게 되어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하여, 토리튬이 도쿄전력이 정한 방출정지기준(700베크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기준(1만베크렐)이하로 만들어 해안으로부터 1km의 해저에 방출한다. 2023년8월24일에 개시되어, 2024년10월17일부터 10회째가 실시되어, 약 8만톤이 방출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안전의 보장을 받고 있다.



트리튬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반대합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십시오!

롯데소무라에 재처리 공장은 필요 없다!

核燃料サイクル事業 핵연료사이클사업

再処理工場で化学処理しウランとプルトニウムを取り出し、MOX燃料工場で他の物質と混ぜてMOX燃料に加工し、もう一度発電に利用する取り組み。

재처리공장에서 화학처리를 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MOX 연료공장에서 다른 물질과 섞어 MOX 연료로 가공하여, 다시 한번 발전에 이용하는 사업

青森県六ヶ所村の再処理工場について、日本原燃は8月、2024年度上期としてきた完成目標を2026年度内にすると発表。完成延期は27回目。総事業費は計約17兆5000億円。

電気料金を通じて国民が負担している格好。

아오모리현 롯카쇼촌의 재처리공장에 대해, 일본원연은 8월, 2024년도 상반기로 삼아왔던 완성목표를 2026년도내로 삼겠다고 발표. 완성연기는 27회째. 총사업비는 계 약 17조5000억엔.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모양새.



- ・ 宗教者が核燃料サイクル事業廃止を求める裁判 (宗教者核燃裁判)
- ・ 종교인이 핵연료사이클사업 철폐를 청하는 재판(종교인핵연료재판)

不義によって真理の働きを妨げる人間のあらゆる不信心と不義に対して、神は天から怒りを現されます。

『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 1章 18節

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 18절)

東日本大震災被災者支援から発展 동일본대지진 피해자 지원으로부터 발전

- いっしょ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 2011.5~2013.5
 ・ 함께 걸자! 프로젝트 2011.5~2013.5)
- だいに東北 2013.6~2015.5 (東北教区)
 ・ 소중히 토호쿠 2013.6~2015.5(토호쿠교구)
- いっしょ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パートII 2013.6~2016.5
 ・ 함께걸자! 프로젝트 파트2 2013.6~2016.5
 原発と放射能に関する特別問題プロジェクト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한 특별지원프로젝트
- 東北教区東日本大震災支援室 2015.6~2018.12.
 ・ 토호쿠교구 동일본대지진 지원실 2015.6~2018.12
- 日本聖公会正義と平和委員会原発問題プロジェクト 2016.5~
 ・ 일본성공회 정의와평화위원회 원자력발전문제 프로젝트 2016.5~
- 東北教区東日本大震災被災者支援プロジェクト 2019.1.1~
 ・ 토호쿠교구 동일본대지진 피해자지원 프로젝트 2019.1.1~

諸活動 (1) 여러활동(1)

- *子どもリフレッシュプログラム
 아이들 휴양 프로그램
- *幼稚園支援
 유치원지원
- *お茶会「水曜喫茶」
 다도회(수요다방)
 (震災以後現在も継続中、月1回開催)
 (지진피해 이후 현재도 계속중, 월1회 개최)



*水曜喫茶
2022.8.10

수요다방
2022.8.10

諸活動 (2) 여러활동(2)

協議会・集会・講演会 협의회, 집회, 강연회

- *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 2019.5.27~31(仙台市)
원자력발전이 없는 세계를 원하는 국제협의회 2019.5.27~31(센다이시)
- *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週間「原発はやめようよ」 2021.6~
원자력발전이 없는 세계를 원하는 주간[원자력 발전을 그만두자] 2021.6~
オンライン講演会 ①2021 ②2022 ③2023 ④2024年
온라인 강연회 ①2021 ②2022 ③2023 ④2024년
- *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Zoom Café (偶数月の第3土曜日定期開催)
원자력발전 없는 세계를 원하는 Zoom Café (짝수월 제3토요일 정기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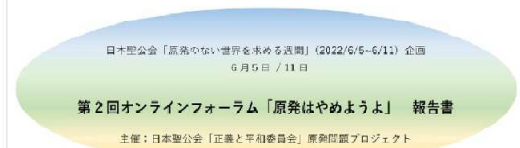
諸活動 (3) 여러활동(3)

広報・報告書 광고, 보고서

広報・報告書 광고, 보고서



HP <https://www.nskk.org/province/no-nuke-project/>



1. はじめに
「原発」は「原子力」ということで、簡単に言えば「原子力」の略称です。原子力は各都道府県から派遣された方を中心に、聖書協議会実行委員、正義と平和委員、原発問題プロジェクト委員、若年地区生、若年生です。

5日のプログラムは、できるだけ多くのみなさんと共有したいの思いからYouTube配信をしています。
<https://youtube.com/ECCJ0918>

2. 公開プログラム 6月5日(日) 16:00-18:00
原発の被害や原発正主(正義と平和委員会・委員長)は、「原子力に対して夢や期待を抱いていた時代は違いました。しかし、原発の被害事故を経験した方からは、原発は原は人の力で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確信しています。また、福島原発の事故だけでなく、広島、長崎への原爆投下によって、いまだに苦しんでいる人たちがい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一方で、原発を推進する人や、原発やその問題解決で働く人がいることも確かです。

このフォーラムに求められるのは、批判や対立、争いではありません。いろいろな分野の人たちの知恵を活用し、立場や考えの違いを超えて、平和と持続可能な世界をどのように守るのか、また、どのようにやって行くのかを確するためのフォーラムでもあると思います」と述べています。いのちを再び救済することの大切さと責任を込めてお話ししました。
原発止めの交渉の後、映像による被災地の紹介、公開講演会と終わりました。



諸活動 (4) 여러활동(4)

日本聖公会總會決議 일본성공회 총회결의

声明・メッセージ発信 성명, 메시지 발신

決議・声明 결의, 성명

- 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て - 原子力発電に対する日本聖公会の立場 - 2012年5月23日 日本聖公会第59(定期) 総会
원자력발전 없는 세계를 원하며 -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본성공회의 입장 - 2012년 5월23일 일본성공회 제59(정기) 총회
- 日本聖公会「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声明
2019 年5月31 日 日本聖公会「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国際協議会」
参加者一同
일본성공회[원자력발전 없는 세계를 원하는 국제협의회]성명
2019년5월31일 일본성공회[원자력발전 없는 세계를 원하는 국제협의회]참가자 일동
- 同声明に賛同する件 2020年10月29日
위의 성명에 찬동하는 건 2020년 10월29일
-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いわゆるトリチウム汚染水海洋放出決定の撤回を求める。～日韓教会(NCCK-NCCJ)共同声明を日本聖公会正義と平和委員会と日本聖公会日韓協働委員会と大韓聖公会韓日共同委員会で共同提出。2021年6月10日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이른바 토리튬오염수해양방출결정의 철회를 원한다. ~한일교회공동성명을 일본성공회 정의와 평화위원회와 일본성공회 한일협동위원회와 대한성공회 한일공동위원회가 공동제출 2021년6월10일
- 放射性物質トリチウムを含む処理汚染水の海洋放出に反対します。
방사성물질 토리튬을 포함한 처리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반대합니다.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のノーベル平和賞受賞 に際して

일본원자수소폭탄 피해자단체협의회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맞이하여

日本聖公会は、日本被団協(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のノーベル平和賞の受賞を、心よりお喜びいたします。

広島・長崎のヒバクシャの方々が、長きにわたって自らの体験を国内外の人たちに証言し、核兵器廃絶を徹底して訴えてこられたことに、心から敬意を表します。

ヒバクシャの方々の証言は、国境を越えるとともに、次世代の若者たちの心も平和へといざなってきました。

일본성공회는 일본피단협(일본원자수소폭탄피해자단체협의회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체험을 국내외의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핵병기철폐를 철저하게 호소해 온 것에,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피폭자 분들의 증언은, 국경을 넘음과 동시에, 차세대의 젊은이들의 마음도 평화를 향하게 해 왔습니다.

今回の被団協のノーベル賞受賞は、今なお世界各地で起こり続けている戦争への警告にもな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核」はすべてのいのちを破壊します。この世界から核兵器を廃絶することを、世界中の平和を求める人びとと共に祈り求めます。
新しい日本の政府が、ヒバクシャの人々の声に真摯に向き合い、一刻も早く、核兵器禁止条約に署名・批准して核兵器廃絶に大きく貢献するようにと切に願います。

이번 피단협 의 노벨상수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경고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핵]은 모든 생명을 파괴합니다. 이 세계에서 핵병기를 철폐하는 것을, 세상 모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본 정부가, 피폭자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마주하여, 하루라도 빨리, 핵병기금지조약에 서명,비준하여 핵병기 철폐에 크게 공헌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2024年10月16日

日本聖公会首座主教 主教 上原榮正
日本聖公会正義と平和委員会
委員長 主教 長谷川清純

2024년10월16일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주교 우에하라 에이쇼
본성공회 정의와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 하세가와 키요스미

諸活動 (5) 여러활동 (5) 連携・連帯 연계, 연대

- *これ以上海を汚すな市民会議 一斉スタンディング
이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동시데모
- *宗教者核燃裁判 原告
종교인 핵연재판 원고
- *原発運転期間「原則40年」規定の削除方針の撤回を求めます 署名
원자력발전 운전기간[원칙40년]규정의 삭제방침의 철회를 원합니다 서명
- *青森県を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地としない条例制定を求める 署名
아오모리현을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지로 하지 않는 조례제정을 원한다 서명
- *「6.17最高裁判決を正す公正判決要請署名」 (団体署名)
[6.17최고재판소결정을 바로잡는 공정판결요청서명] (단체서명)
- *「核ゴミの地層処分に反対する宗教者ネットワーク」(北海道)賛同団体 等など
[핵쓰레기의 지층처분에 반대하는 종교인 네트워크](홋카이도) 찬동단체 등등

아오모리를
핵의 쓰레기 최종
처분지로 하지
않는다!!

**青森県を
核のゴミ最終処分地に
させない!!**

子どもたちに残したい愛するふるさと

青森は今、縄文遺跡群を世界文化遺産に登録し、今後は自然環境と食や社会的資源にも恵まれ、魅力あふれる誇りや文化、更に発展する大きな可能性を持っています。子どもたちに残すふるさと青森を自然と誇りをもって守り継ぐことが、私たちの責任と使命です。

核のゴミ捨て場を増やすつもり?

青森県には、原発で発生した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日本でも唯一の最終処分場が現にあり、最終処分場の決まらない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ガラス固化体）の一時貯蔵施設もあります。そのうえ、再処理工場から大量のガラス固化体が出てきます。このままでは、青森県が核のゴミ捨て場にされてしまいます。

多くの皆さまの署名・入会をお願いします。

発行：「青森県を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地としない条例」制定を求める県民の会

事務局・連絡先：〒029-1166 青森県八戸市昭和9丁目19-9 茨石法律事務所
 総機料サイト欄より万人署名活動員事務所 TEL/FAX：0178-42-2121
 1man-genkokujumo ●ウェブサイトホームページ http://kenminpoka15100area.com

**再処理・原発・核のゴミ
食の遺産は増やさない!!**

六ヶ所再処理施設は、1999年4月26日、2009年10月の一時貯蔵開始の約束で、プルトニウムを再処理の準備に始めてきました。今や、4年リスカも満ちました。また、六ヶ所再処理工場のクレーンが騒音問題でもつづられ、今も、再処理が予定されている40年間の稼働期間中につづられるガラス固化体は、約4万トンに達します。最終処分場では、その数倍のガラス固化体を、地下300mより深い地層にトンネルをつくって埋め込みます。これは、約10万年も人間生活と隔離し、放射能が自然に減るのを待たせ、子どもたちに残してはなりません。

青森県を最終処分地としない条例を!

知事は今も、「国から青森県を最終処分地としない条例の制定を求めない」「事業者との交渉協定で青森県での一時貯蔵施設を20年から50年と決められている」ので、県で条例を制定する必要はない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条例案が2015年5月25日の県議会に提出されてから、最終処分場の建設費が25%増えるにすぎず、約13年では建設費に含めなくても済みます。この条項では、最終処分場の建設費が最終処分地とされず、これまで以上に高い建設費と対応する事は、県の負担として青森県を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地としないことと、建設費の約10%は県民にわたすこと、法的義務のある条例制定を必要とすべきです。

国はやるべきことをやっていない!!

最終処分場、建設費につづいて解決するといふものではありません。まず、国は使用済燃料やガラス固化体などの核のゴミをこれ以上増やさない法的決定をすべきです。そのうえで、それまでにつづられた核のゴミは電力会社の責任で、安全に管理する。国は、安全確保の法令などを整備し、廃棄までのスケジュールや施設内容などを情報公開する。さらに、国の議論を尽くし、民主的手続きによって国民の合意を確保し、処分方法と処分地を決めるべきです。国は、やるべきことをまだやっていない。

解除できない 原子力緊急事態宣言



国民が法律を破ると国家は処罰する。
 それなら、法律を守るのは、国家の最低限の義務であろう。
 日本では、一般人には1年間に1ミリシーベルト以上の被曝をさ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律がある。
 放射線管理区域から、1平方メートルあたり4万ベクレルを超えて放射能で汚れたものを管理区域外に持ち出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法律もあった。
 福島原発事故を引き起こした最大の犯罪者は政府であり、その政府は、緊急事態を理由に、特措法を乱発して、事故から11年以上たった今も、棄民を続けている。
 大地を汚染している主成分はセシウム137で、その半減期は30年。100年たっても、汚染は10分の1にしかならない。
 日本は今後100年以上、原子力緊急事態宣言下にあり続ける。

해제할 수 없는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국민이 법률을 어기면 국가는 처벌한다.
 그렇다면, 법률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일본에는, 일반인은 1년간 1밀리시버트 이상의 피폭을 당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이 있다.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1평방미터 근방 4만베크렐을 넘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을 관리 구역외로 갖고 나와서는 안된다는 법률도 있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를 일으킨 최대의 범죄자는 정부이며, 그 정부는, 긴급사태를 이유로, 특별법을 난발하여, 사고로부터 11년 이상 지난 지금도, 시민을 버리고 있다.
 대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성분은 세슘137로, 그 반감기는 30년. 100년이 지나도, 오염은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향후 100년 이상,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하에 있게 된다.

不誠實な原子力推進派



ニューモ(NUMO)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

核 ぐみ 管理 機構 日本

原子力発電環境整備機構

불성실한 원자력추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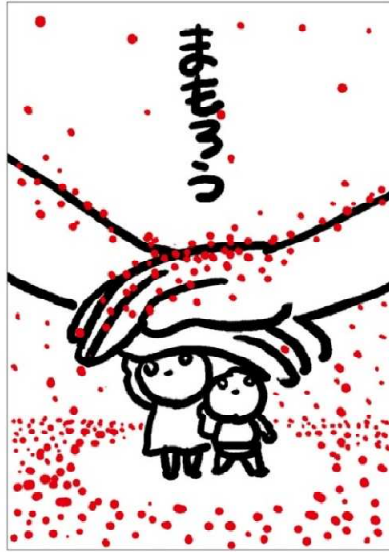
뉴모(NUMO)

핵 쓰레기 관리 기구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일본인 어른에게는 원자력 폭주를 허용하고,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있다. 자신이 피폭당하더라도, 아이들을 피폭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어른의 책임

日本人の大人には原子力の暴走を許し、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を引き起こした責任がある。自分が被曝しても、子どもたちを被曝から守るのが大人の責任



柚木ミサトさんのイラスト

いのちと核は共存しない !
 생명과 핵은 공존하지 않는다 !
 私たちがしなければならぬこと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 放射能から子どものいのちを守る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킨다.
- 放射能汚染物質でいのちと自然環境(大地と空気と海)を汚さない
방사능오염물질로 생명과 자연환경(대지와 공기와 바다)를 더럽히지 않는다.
- 核のゴミ(放射性廃棄物)を負の遺産として子孫に負わせない
핵쓰레기(방사성폐기물)을 부끄러운 유산으로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 エネルギーシフトする 「聖光幼稚園/おひさま発電所」「東京教区パワーシフト」
에너지를 절약한다 [성광유치원/햇님발전소][도쿄교구 파워시프트]
- 国際社会と意識を共有し解決の道で協働し責務を負い続ける
국제사회와 의식을 공유하여 해결의 길에서 협동하여 책무를 다한다.

諸活動 (6) 여러활동 (6)

祈り・礼拝
 기도, 예배

*原発のない世界を求める祈り
 원자력발전 없는 세상을 원하는 기도

(2022年原発問題プロジェクト作成)
 2022년 원자력문제 프로젝트 작성

* 祈りのカード
기도카드

* 東日本大震災を憶えて 午後2時46分の黙想
동일본대지진을 기억하여 오후2시46분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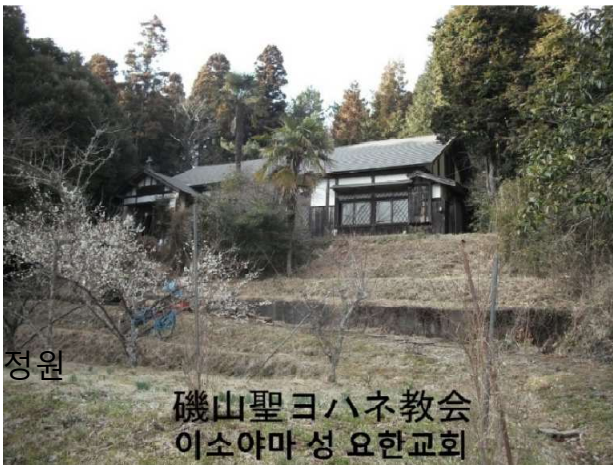
* 東日本大震災周年記念礼拝・講演会
毎年3月11日 (東北教区主教座聖堂を中心にして)
동일본대지진 주년기념예배, 강연회
매년3월11일(토호쿠교구 주교좌성당을 중심으로)



女川第1中学校3年 神田瑞季
오나가와 제1중학교 3학년 칸다 미즈키



名取第1中避難所 2011.5.2.(月)
나토리 제1중 피난소 2011.5.2(월)



정원

磯山聖ヨハネ教会
이소야마 성 요한교회



祈りの庭/기도의

祈りの碑/기도비



女川第1中学校3年
鈴木里衣菜

오나가와 제1중학교 3학년
스즈키 리에나



----- 10/22 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メモ -----

グループ1

- ・マイノリティとマジョリティの関係の中では、マジョリティが配慮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発題内容が印象的だった。
- ・自分自身が和解の対象に入っている。社会的な大きなことだけでなく、個人のことでもある。
- ・コリント5章の和解が能動態ではないことに気づいた。一方的なものではなく互いの関係性のこと。
- ・傾聴の大切さを実感した。
- ・今ここに生きている和解とは、神様との和解、自分自身との和解について分かち合った。今までの和解も完成形ではない。あきらめず、真実から逃げずに、同じ方向を見つめることが大切。

グループ2

- ・印象に残ったこと、ご指標の中で、教会で実行していることを分かち合った。
- ・被造物の本来の姿を守ることを大切にマイコップを持参している教会、幼稚園保育園の働きを大切にしている教会の話などを分かち合った。今大切に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全てが、5指標に当てはまるという話もあった。
- ・和解について、アウシュビッツの経験者の話で、生き残ったものの悲しみもあるという話もあった。自分だけが生きるのではなく、共に生きるということが意味するものが和解ではないか。
- ・日韓が手を取り合って、アジアやモンゴルでの森づくりなどへの宣教の働きを一緒に行うことも可能ではないか。

グループ3

- ・青年メンバーから、知りたかったことを多く聞いたのでよかった。聖公会の大人は何を考えているのかわからなかったが、互いに真面目で安心した。大学で学んでいる人類学よりも面白い。
- ・新しい信徒を教えて養育するという指標を大切に、もっと情報交換をして、どうやって信徒を増やせるかを一緒に考えていきたい。
- ・谷間にいる人（GFSの脱北者の女性の支援グレースカフェ）の働きを思い出した。信徒ではない女性が、妹との電話が情報局にバレて逮捕され無期懲役になりそうだったが、そのことを祈ってほしいと言われ、一緒に祈った。無期懲役にならずにすんだ。
- ・日韓聖公会の名前でモンゴルに森を作ってはどうか。

グループ4

- ・アメリカでは、福音化、和解、環境保全に力を入れてきた。偉くなりたいものはしもべになりなさいということ再認識した。
- ・教会に集い、祈ることが和解につながることに気づいた。
- ・和解の場はどこなのか、贖いの和解の一致、関わりたくないことから関わりと和解が生じることなどを学んだ。
- ・罪人に対する理解について、そこに至るまでの環境などの背景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学んだ。

----- 10/22 그룹 토론 메 -----

그룹 1

-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에서 다수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발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 나 자신이 화해의 대상이다. 사회적으로 큰 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 고린도전서 5 장의 화해가 능동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성을 말한다.
-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지금 여기 살아있는 화해란 하나님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에 대해 나누었다. 지금까지의 화해도 완성형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 2

- 인상 깊었던 것, 지시사항 중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
- 피조물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이컵을 가져오는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5 가지 지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화해에 대해 아우슈비츠 경험자의 이야기로, 살아남았지만 슬픔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것이 화해의 의미가 아닐까.
- 한일 양국이 손을 잡고 아시아나 몽골에서 숲 조성 등의 선교사역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룹 3

- 청년 회원들로부터 알고 싶었던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성공회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지만, 서로 진지해서 안심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배우는 인류학보다 더 흥미로웠다.
- 새로운 신자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정보 교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신자를 늘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
- 골짜기에 있는 사람 (GFS 의 탈북여성지원 그레이스 카페) 의 사역을 떠올렸다. 신자가 아닌 여성이 여동생과 통화한 것이 정보국에 발각되어 체포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다.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었다.
- 한일성공회 이름으로 몽골에 숲을 만들면 어떨까.

그룹 4

- 미국에서는 복음화, 화해, 환경보존에 힘써왔다.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라는 것을 재인식했다.
-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화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 화해의 자리가 어디인지, 구속의 화해의 일치,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관여와 화해가 생긴다는 것 등을 배웠다.
- 죄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죄인에 대한 이해는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환경 등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 ・被災者などへの正しい理解が必要だと思った。
- ・環境を壊しながら自然エネルギーを導入したりという問題もある。
- ・在日のことは韓国人としては見たくないという思いもある。知らないうちに自分も加害者にな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和解とは回復という意味もあることを知った。
- ・イエスが低みに立たれたように、同じ立場に立つことから始めたい。
- ・木が枯れないように5倍の土が必要だったが、3倍に妥協して生き残った話し。自分との和解というキーワード、自分自身と向き合う必要性。
- ・東北の被災者の話を聞いたので支援をしたい。
- ・あまりにも重い課題でさげたい思いもあったが、しっかりと受け止めて核なき世界を構築する必要性を感じた。

グループ5

- ・一番低いところからの平等、谷間にいる人への眼差し、マジョリティから寄り添う必要性など、教会の存在意義を確認できて嬉しかった。
- ・プラットフォームの意味などを再確認した。共に歩く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とは何か。
- ・コロナの時に食料配布を始めたこと。本当に必要とされていない人も来たりして、線引きをするべきか悩んだが、イエスならどうするだろう、線は引かないだろうと考え、そうした。
- ・支援活動をする中で、困った人だと思える人もいるが、実は困った人と見える人は本人が困っていると思っていないはず。そんな人とも一緒に歩いていこうとすることが大切。

グループ6

- ・出会って課題を分かち合うことに意味があった。
- ・30周年の10項目が忘れかけられてある傾向もあった。
- ・路上の学校やグリーンチャーチの話など、特別な場では聞くことができるが、個々の教会でも分かち合われたい。
- ・日韓で罪を犯した青年たちが互いの道を歩むような取り組みがあれば。
- ・青年セミナーの再開を待ち望んでいる！

グループ7

- ・宣教の5指標、一番低いところからの和解・平等、出会いからの協働・連帯、理解を求めるには継続的な出会いが必要。
- ・今現在、低いところに立っているのか？低い人と出会うとき、その側に喜んで立つことができるのか？今回の学びを一緒に共有し、低くなって、一番よいキーワードがある。
- ・宣教の5指標が発表されて今年で40年。新しい信徒向けの聖書研究や宣教の5指標に関する対面とオンラインの講座を設けた。まだまだ初めて知る人もいる。聖公会はキリストに従っている宣教共同体として、イエスの福音の働きに従っていくことだと紹介できると思う。一番大切なのは、神の良い福音と伝えること。そこから2345がつながっていく。地域の中で教会の中で信徒の中で宣教の5指標広げていく方法を話し合っていきたい。

- 재해 피해자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환경을 파괴하면서 자연 에너지를 도입하는 문제도 있다.
- 재일동포의 일은 한국인으로서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화해란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예수님이 낮은 곳에 서신 것처럼 같은 입장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 나무가 죽지 않도록 5 배의 흙이 필요했지만 3 배로 타협하여 살아남은 이야기. 자신과의 화해라는 키워드, 자신과 마주할 필요성.
- 동북의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지원을 하고 싶다.
- 너무 무거운 과제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 핵 없는 세상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룹 5

- 가장 낮은 곳에서의 평등, 골짜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 다수가 아닌 소수로부터의 포용의 필요성 등 교회의 존재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플랫폼의 의미 등을 재확인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코로나 때 식량 배급을 시작했던 일. -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오기도 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오기도 하고,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선을 긋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 지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본인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과도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 6

- 만나서 과제를 공유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 30 주년의 10 가지 항목이 잊혀져 가는 경향도 있었다.
- 길위학교나 그린치치 이야기 등 특별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지만, 각 교회에서도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 한일 양국에서 죄를 지은 청년들이 서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 청년세미나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룹 7

- 선교의 5 가지 지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의 화해와 평등, 만남으로부터의 협력과 연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 지금 현재 낮은 곳에 서 있는가?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 기꺼이 그 편에 설 수 있는가? 이번 배움을 함께 나누고, 낮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키워드이다.
- 선교의 5 가지 지표가 발표된 지 올해로 40 년. 새신자를 위한 성경공부와 선교 5 지표에 관한 대면과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아직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공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교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기서 2345 가 연결된다.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도들 안에서 선교의 5 가지 지표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논의하고 싶다.

グループ8

- ・今どこに立っているのか、どのように実践していけるかを悩んでいる。共に歩むことについてたくさん話し合った。神との和解、聖書は和解と救いについて教えている。救いが一番低いところを実現する。どこにたっているか、同じ方向を向いているか。何を神の声と理解するのか。小さな、低い、大変なところからの聞こえてくるものを上からの声と理解する。和解を壁だと思わせる私達の神との和解とは。多様な声に耳を傾けて応答していけば、変えられていく。
- ・エマオで歩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のように、神は私たちと共に歩んでくださっている。差別や暴力にさらされている人、孤独の中にいる人と共に歩むこと。
- ・助けを必要としている人と共に歩む同行者となり、ありのままの存在として認められるように。
- ・原発や砂漠化が解決できない大きな課題のように見えても諦めずに取り組みたい。緑の色付けを日韓で行っていききたい。



그룹 8

-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님과의 화해, 성경은 화해와 구원에 대해 가르친다. 구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실현된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는가.작고, 낮고,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위로부터의 목소리로 이해한다. 화해를 벽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해란 무엇인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면 변화되어 간다.
- 엠마오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인정받게 하소서.
- 원전과 사막화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과제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한일 양국에서 녹색의 색채를 입혀 나가고 싶다.



----- 10/23 濟州 4・3 事件犠牲者追悼の祈り -----

全てのいのちの源である神よ、日韓聖公会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を迎え、今日、私たちを共に（濟州 4・3 平和公園に）集めてくださったこと感謝いたします。あなたは、この世界と私たちを極めて良いものとしてお造りになりました。しかし、私たちは、自分たちの欲望のために、あなたの似姿を歪め、あなたからのいのちをないがしろにしてきました。特に日本国は、過去の戦争の中で、朝鮮半島を含むアジアの国々を侵略し、そこでは多くの血と涙が流されました。そして、そのことは、今日までに及ぶ朝鮮半島の分裂と、濟州 4・3 事件という大きな痛みの歴史に繋がっています。どうか、私たちがこの痛みの歴史から目を逸らすことなく、あなたからのまことの和解と平和の道を共に探し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濟州 4・3 事件によって傷つき、失われた全ての魂に主の豊かな平安が与えられ、そして今なお、この痛みに向き合う人々に、あなたの癒しと慰めと勇気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私たちのために、十字架につけられ、復活させられた、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お願いいたします アーメン



----- 10/23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도기도 -----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40주년 기념대회를 맞이하여 오늘 저희를 (제주 4·3 평화공원에) 모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 세상과 저희를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들의 욕망으로 인해 당신의 값은 모습을 왜곡하고 당신의 생명을 파괴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의 전쟁 속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고, 그곳에서는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반도의 분열과 제주 4·3 사건이라는 큰 고통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통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주 4·3 사건에 의해 상처를 입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따뜻한 평안이 주어지고, 지금도 이 고통에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치유와 위로와 용기를 주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 10/23 日韓友情の家祝福式 -----

共同司式：オネシモ朴東信主教（大韓聖公会議長主教）

ダビデ上原榮正主教（日本聖公会首座主教）

司会：ヤコブ崔チャンワン司祭

会衆が日韓友情の家前の庭に集り次第、祝福式を開始する

司式者：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平和が皆さんと共に

会衆 **アーメン**

詩編を交読する間に司式者は祝福する場に聖水をふる

詩編 90：1-6、10-17

奇数節は日本聖公会、 偶数節は大韓聖公会

◎ わたしたちの神、主の恵みを注ぎ// わたしたちの手の業を栄えさせてください

1. 主よ、あなたは世々にわたって// わたしたちの住みか

2. 山が生まれず、地と世界が造られる前から// 永遠から永遠にあなたは神

3. あなたは人に「元に戻れ」と仰せになり// 人は塵に戻される

4. あなたの目には千年も、過ぎ去った昨日のよう// 夜回りの一時にすぎない

5. あなたは人を夢のように消し去る// 人は朝ごとに生え変わる草のよう

6. 朝には萌え出て花を開くが// 夕べにはしおれて枯れる

10. 七十年、八十年生きるとしても、その年月はむなしく、労苦に満ち// 速やかに過ぎ去り、わたしたちも消えうせる

11. だれがあなたの怒りに力を知り// あなたの怒りの恐ろしさを悟るだろうか

12. 残された日々を数えることを教え// 知恵の心を与えてください

13. 主よ、顧みてください、み怒りはいつまで続くのですか// あなたの僕らに憐れみを与えてください

14. 朝ごとにあなたの慈しみを注ぎ、わたしたちに満たし// 日々喜び樂しませてください

15. あなたが、わたしたちを苦しめられた日々// わたしたちが災いを見た年月に従って、わたしたちを樂しませてください

16. あなたのみ業をわたしたちの上に// あなたの輝きを子孫に現してください

17. わたしたちの神、主の恵みを注ぎ// わたしたちの手の業を栄えさせてください
栄光は// 父と子と聖霊に

初めのように、今も// 世々に限りなく アーメン

◎ わたしたちの神、主の恵みを注ぎ// わたしたちの手の業を栄えさせてください

----- 10/23 한일 우정의 집 축복식 -----

공동집전 :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우에하라 에이쇼우 주교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사회 : 채창완 야곱 신부

모두 한일 우정의 집 앞 마당으로 모이면 축복식을 시작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 아멘

시편을 교독하는 동안 공동집전자들은 축복하는 곳에 성수를 뿌린다.

시편 90:1-6, 10-17

홀수절은 일본 성공회, 짝수절은 대한성공회

- ◎ 주, 우리 하느님, 우리를 어여뻐 여기시어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 게 하소서.
- 1 주여, 당신은 대대손손 ○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 2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이 태어나기 전, ○ 한 옛날부터 영원히 당신은 하느님,
- 3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 “사람아, 돌아가라”하시오니
- 4 당신 앞에서는 천 년도 하루와 같아 ○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있는 밤과 같사오니
- 5 당신께서 휩쓸어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 아침에 돌아나는 풀잎입니다.
- 6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입니다.
- 10 인생은 기껏해야 칠십 년, 근력이 좋아야 팔십 년, ○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 11 누가 당신 분노의 힘을 알 수 있으며, ○ 당신 노기의 그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 12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 13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 14 동틀 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 15 우리가 고생한 그 날수만큼 ○ 어려움을 당한 그 햇수만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 16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 또 그 후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려내소서.
- 17 주, 우리 하느님, 우리를 어여뻐 여기시어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 게 하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 주, 우리 하느님, 우리를 어여뻐 여기시어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 게 하소서.

主教 主は天と地を創られました
会衆 **わたしたちの救いは主のみ名にあります**
主教 主は皆さんとともに
会衆 **また、あなたとともに**
主教 祈りましょう

日韓 友情の家 祝福

全能の父なる神よ、この日韓友情の家と、ここで黙想し、祈るすべての人々のために謙虚に祈ります。この家を祝福し、+聖とし、すべての良いもので満たし、ここを訪れるすべての人びとに天の露と地の油を与え、それらの心が主の慈悲深い恵みを得るよう導いてください。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の家を祝福されたように、この家を祝福し、主のみ使いたちに命じ、ここに留まりお守りください。また、この日韓友情の家が、大韓聖公会と日本聖公会の宣教交流の目に見えるしるしとして、お互いの友情と調和を築くことに貢献し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ここで日本の首座主教は状況に合わせてお祈りをしたのち、祝祷する

主教 父と子と聖霊なる全能の神の恵みが、常に皆さんとともにありますように
会衆 **アーメン**

【日韓友情の献金 伝達式】

あいさつ：

オネシモ朴東信主教（大韓聖公会議長主教）、ダビデ上原榮正主教（日本聖公会首座主教）

伝達式

濟州友情教会 および 信徒紹介

- +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 ◎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 + 나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 + 고 기도합시다.

한일 우정의 집 축복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여기 한일 우정의 집과 여기에서 피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 니, 이 집을 축복하시고, + 거룩하게 하시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며, 여기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을 베푸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얻도록 인도하소서. 아브라 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이 집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천사들을 명하시어 여기 머물러 보 호하게 하소서. 또한 이 한일 우정의 집이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의 선교 교류의 가시적 표징으로서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이뤄가는 데 기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여기에서 일본수좌주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더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기도로 끝맺는다.

- + 전능하신 하느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강복하소서.
- ◎ 아멘

[한일 우정 헌금 전달식]

인사말 :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 上原正主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전달식

제주우정교회 및 교인 소개









----- 10/24 全体振り返り / 전체 회고 -----







Coram Deo!!! (神のみ前で)

大田教区 主教 テトス 金 鎬旭 (キム・ホウク)

私たちは、過ぎた数日間、日韓聖公会の交流と協力 40 周年記念大会を共同で開催し、「共に生きる世界—神と人間と自然との和解」という主題で、神様を礼拝し、友情と親交を分かち合う時間を持ちました。

日韓関係は、歴史的な痛みを持っています。韓国と日本が、「近くて遠い国」という言葉で表現されるのは、まさにこの歴史的な痛みから生じたもので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大韓聖公会と日本聖公会は、その歴史的な痛みの中でも、キリストの内に和解と赦し、更に愛を叫び、実践してきました。

疑う余地なく、教会は、私たちが憤怒や憎悪、偽善と利己心で覆われたこの世界の暗闇の中で呼び出し、あなたの驚くべき愛の真ん中へと導いてくださる主イエス・キリスト、その方の土台の上に立てられたものです。キリスト教は和解の宗教です。和解のための、どんな努力も躊躇したり、妨げてはなりません。

今日、私たちは、無神論や偶像崇拜がはびこる終末の時代を過ごしています。時代を分別して、それに相応しい行動をしないことは、そのための能力が不足しているからではなく、神に対する真剣さが欠如している態度のためです。ガンジーは、純潔さは炎に対峙した時にのみ、その真偽が明らかになると言いました。世俗主義の波が流れるこの時代に福音の価値を高く掲げ、その流れに立ち向かう自覚と勇気、それがまさに時代を分別する人生の一步です。ゆえに、私たちの日常的な生活は、神の御前に立つ姿勢でなければならず、私たちの全ての思いと言葉と行いは、神の愛に根差した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日もこの礼拝の中で、主は私たちを探しておられます。そして私たちを捕らえて、私たちに御国に属する人々が行うことを、喜びをもって成し遂げるようにという使命を与えられます。それは、私たちが互いに愛することです。愛はキリスト教の根幹です。

この「愛しなさい」という掟は、人種、民族、国家、文化、言語、性別、富の水準など、どんなことから影響を受けません。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あなたがたが互いに愛するなら、世の人々は、あなたがたが私の弟子である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と仰いました。世の人々が、私たちが、イエス様の弟子だと気づき、愛しながら生きていくことを望みます。加えて、私たちの今回の出会いが、主イエス・キリストと、主の愛の内に私たちの交わりと経験と希望と親交を、より厚く誠実なものとする、新しい出発点となることをお祈りします。

また、この場を借りて、ここにおられる日韓の教会だけでなく、世界聖公会の指導者の方々に、日韓間における和解と平和はもちろん、ますます冷え込んでいる朝鮮半島の和解と平和のためにもお祈りくださることを、切に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Coram Deo!!!

대전교구장 김호욱 디도 주교

우리는 지난 며칠 간 한일성공회 교류 협력 40 주년 기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 -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라는 주제로 하느님을 예배하고 우정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일관계는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이 역사적 아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는 그 역사적 아픔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용서 나아가 사랑을 외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교회는 우리를 분노와 증오, 위선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이 세상의 어둠속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화해의 종교입니다. 화해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주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신론과 우상숭배가 창궐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진지성이 결여된 태도 때문입니다. 간디는 순결은 불길에 맞붙어졌을 때에만 진위가 판명난다고 했습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흐르는 이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는 자각과 용기, 그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 삶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세이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느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근간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인종, 민족, 국가, 문화, 언어, 성별, 부의 수준 등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겨지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이번 만남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친교와 경험과 희망과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여기에 계신 한일교회는 온 세계성공회 지도자들님들께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는 물론 점점더 냉각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日韓聖公会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を終えて

共に生きる世界 ～神・人間・自然との和解～
「神と和解させていただきなさい。」（コリント二 5：20）

日本聖公会と大韓聖公会は神からの招きと導きを受けて、2024 年 10 月 21 日から 24 日まで、韓国済州島に集い、「日韓聖公会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を開催しました。日本聖公会首座主教・大韓聖公会議長主教をはじめ、韓国 3 教区、日本 11 教区の主教・司祭・信徒、そして英国・米国聖公会からの特別ゲストを含め、計 83 人と済州友情教会・西帰浦教会のボランティアが共に過ごしました。

1984 年に日韓聖公会の宣教協働が公式に始まり、10 年ごとに記念大会を開催するなど、互いに「誠心の交わり」を大切に、様々な交流と学びを重ね、相互理解を深めてきました。2014 年の 30 周年記念大会は韓国・済州島で開催し、宣教協働を振り返り、新たな 10 年に向けた取り組みについて協議し、11 項目の共同声明にまとめました。日韓合同会議の度にその進捗状況を確認し、互いの宣教課題を学ぶフィールドワークを行いつつ、日韓青年セミナーや韓国社会宣教スタディーツアーも実施してきました。今回も再び済州島で開催したことは、日本と韓国の歴史を深く見つめ、また、30 周年共同声明の『⑤両聖公会は「風の島を聖霊の島へ」という済州友情教会の宣教ビジョンを共有し、「生命、正義、平和」を求める共同の信仰的実践を模索する。』に基づき、その意義を深めるためでした。

今回の大会において、わたしたちはこれまでの信頼関係のもとに築いてきた宣教協働の実りを分かち合い、日韓・東アジア・世界の聖公会の連帯がさらに強固にするものになる時間を過ごし、また神によって与えられた恵みを分かち合いながら、ポストコロナという新しい宣教課題を共有し、互いに学び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

両国の深い痛みをもつ過去の歴史に対して、過去 40 年間、両聖公会は、心からの謝罪と反省、そして受容と抱擁に基づいて、キリストにあって真の和解がどのように可能である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共に応えてまいりました。そして、わたしたちの努力が持続可能な実践につながるように現場の声に耳を傾け、歴史の現場と一緒に巡り過去の痛みを共有し、韓日友情の家の開所を共に祝い、わたしたちの友情を確認しました。

そしてこの新しい和解を通して、今の時代における戦争と貧困と破壊された自然に対してキリストの希望を伝えようと一緒に学び、話し合い、見つめ合い、心と両手を合わせて祈りました。

わたしたちは、今大会において、日韓聖公会の素晴らしい出会いが与えられた 4 日間すべての日程を終了できた導きに対して、さらには神と神によって与えられた祈りの仲間との出会いに感謝します。今わたしたちは、それぞれの現場に戻り、この記念大会を通して与えられた学びと出会い、そして気づきを分かち合い、伝え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特に私たちが「共に生きる世界」で「神・人間・自然との和解～」に対して日韓聖公会に連なる一人ひとりが、真剣に取り組み、深い和解と更なる協働に向けて、祈りをささげ、情報交換を行ない、交流、学びを深めることを誓いました。

そして、両聖公会が、10 年後の 2034 年に与えられた実りを分かち合うために再び集い、東アジアにおける宣教協働について新たな歩みを始めることを希求します。

2024 年 10 月 24 日
日韓聖公会宣教協働 40 周年記念大会
日本聖公会・大韓聖公会の参加者一同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 주년 대회’를 끝내면서

함께사는세상 ~하느님, 인간, 자연과의 화해~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5:20c)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는 하느님의 초대와 인도를 받아 2024 년 10 월 21 일부터 24 일까지 한국 제주에 모여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 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대한성공회 의장주교를 비롯해 한국 3 교구, 일본 11 교구의 주교, 사제, 신도, 그리고 해외성공회의 특별한 손님을 포함, 총 83 명과 제주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일성공회는 1984 년 한일성공회의 선교협력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10 년마다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교류와 배움을 거듭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4 년 30 주년 기념대회는 한국·제주에서 개최하고, 양국간의 선교협력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 년을 향해 협의하고 11 항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협력 회의 때마다 그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서로의 선교과제를 배우는 필드워크를 실시하면서, 한일청년세미나와 한국사회선교 스터디투어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30 주년 공동성명의 [‘⑤ 양 성공회는 '바람의 섬을 성령의 섬으로'라는 제주교회의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생명, 정의, 평화'를 요구하는 공동의 신앙적 실천을 모색한다.]에 근거한 의미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기념대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신뢰관계에 쌓아온 선교협력의 열매를 나누고 한일, 동아시아, 세계의 성공회와의 연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보냈으며,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새로운 선교 과제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양국의 깊은 고통을 가진 과거의 역사에 대해 지난 40 년간 양 성공회는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함께 응답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역사의 현장을 함께 다니며 과거의 아픔을 공유했고, 한일우정센터의 개소를 함께 축하하며 현재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화해를 통하여 전쟁과 빈곤과 파괴된 자연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고자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과 두 손을 합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일성공회의 멋진 만남이 허락된 4 일간의 모든 일정을 인도해주신 은혜와 함께 기도하는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각각의 현장으로 돌아가 이 기념 대회를 통해 주어진 배움과 만남, 깨달음을 나누면서 전해 나아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사는세상 ~ 하느님, 인간, 자연과의 화해~’에 대해서 한일성공회의 한사람 한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며, 깊은 화해와 더욱 굳건한 협력을 위해 기도를 바치면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함께 배우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양성공회가 10 년 후 2034 년에 주어진 열매를 나누기 위해 모이고 동아시아에서의 선교협력에 대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것을 희망합니다.

2024 년 10 월 24 일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 주년 기념대회
대한성공회·일본성공회의 참가자 일동



2024

日韓聖公会宣教協働40周年大会
한일성공회 선교협력 40주년 대회

和解

神との和解
하느님과의 화해
人との和解
인간과의 화해
自然との和解
자연과의 화해

2024. 10. 21(月)~24(木)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韓国濟州島 个木リトリセンター

2025年4月25日
編集：日韓協働委員会
発行：日本聖公会管区事務所